

2007학년도 제주대학교 재학생 실태조사

강 석 규* · 김 두 화**

〈 목 차 〉

I. 서 론	IV. 요약 및 결론
II. 조사대상 및 방법	참고문헌
III. 결과분석 및 해석	<Abstract>

I. 서 론

오늘날의 대학은 전통적인 학문을 하는 교육의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세대의 학생들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과거의 중요한 전통과 가치를 깨닫고 이해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특징짓는 복잡성과 변화에 적응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대학이란 공간은 재학생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삶을 계획하고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에서 많은 재학생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갈등을 접하게 된다. 고교 시절 제한적인 정보를 통해 선택한 전공과 실제 자신에 맞는 전공 간의 불일치에 대한 고민, 적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향후 진로에 대한 혼선, 이성경험과 낯선 친구들 간의 갈등, 취업에 대한 현실적인 불안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재학생들의 특성, 고민, 어려움 등 실태를 파악하여,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이고, 재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앞으로 사회인으로 서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대학은 매년 재학생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학생들의 전반적인 실태 및 의식과 학교에 대한 생각들을 파악하고, 매년 실시된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여 지속적인 변화 추세를 이해함으로써 효율적인 학생

*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직업능력개발원 교수

들의 대학생활 지도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와 연구 및 행정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07년도 재학생 실태조사에서는 2006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설문에 기초하여 1) 개인 및 가정생활 관련, 2) 대학선택 및 본교 관련, 3) 대학생활 관련, 4) 개인생활·가치관 관계, 5) 취업 관련 등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학생들의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II.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본 조사는 제주대학교에 재학생 중에서 설문에 응답한 877명 중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한 66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응한 재학생들의 단과대학별, 학년별, 성별 분포는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단과대학, 학년, 성별 조사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응답자수	비율(%)
단과대학	인 문 대 학	103	15.5
	법 정 대 학	74	11.1
	경 상 대 학	126	18.9
	사 범 대 학	61	9.2
	생 명 자 원 과 학 대 학	52	7.8
	해 양 과 학 대 학	56	8.4
	자 연 과 학 대 학	82	12.3
	공 과 대 학	104	15.6
	의 과 대 학	7	1.1
	합	계	665
학 년	1 학 년	159	23.9
	2 학 년	163	24.5
	3 학 년	188	28.3
	4 학 년	155	23.3
	합	계	665
성 별	남	359	54.0
	여	306	46.0
	합	계	665

2. 조사도구 및 내용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도에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부분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및 가정생활 관련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가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 재학 중 학비(등록금) 부담자, 가계 월평균 소득

2) 대학선택 및 본교 관련

본교에서 가장 만족한 부분, 본교에서 불만족한 부분, 본교에 대한 긍지,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및 편입 계획, 휴학 계획

3) 대학생활 관련

학과(학부, 전공) 만족도, 복수전공 계획, 학과·전공영역 바꿀 계획, 대학생활 중 교수에게 바라는 점, 현재 수업중인 교수에 대한 만족도, 현재 수업중인 교수에 대한 불만족 이유, 대학수업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원하는 강의형태

4) 개인생활·가치관 관련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한달 용돈, 용돈 출처, 용돈 주사용처, 아르바이트 목적,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이성교제 경험 유무, 대학에서의 교우관계, 대학에서의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

5) 취업 관련

졸업 후 진로, 직업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 취업준비에 가장 중요한 사항, 장래 직업선택시 현재 전공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 직업능력개발원 인지 여부, 직업능력개발원 이용 경험, 직업능력개발원 상담 선호도,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상담,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심리검사, 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하고 싶은 프로그램,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 여부, 취업 관련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향후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 의사,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여부,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향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의사,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이력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 취업종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여부, 회원 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 취업정보시스템의 이력서 작성여부

3. 조사 실시 및 자료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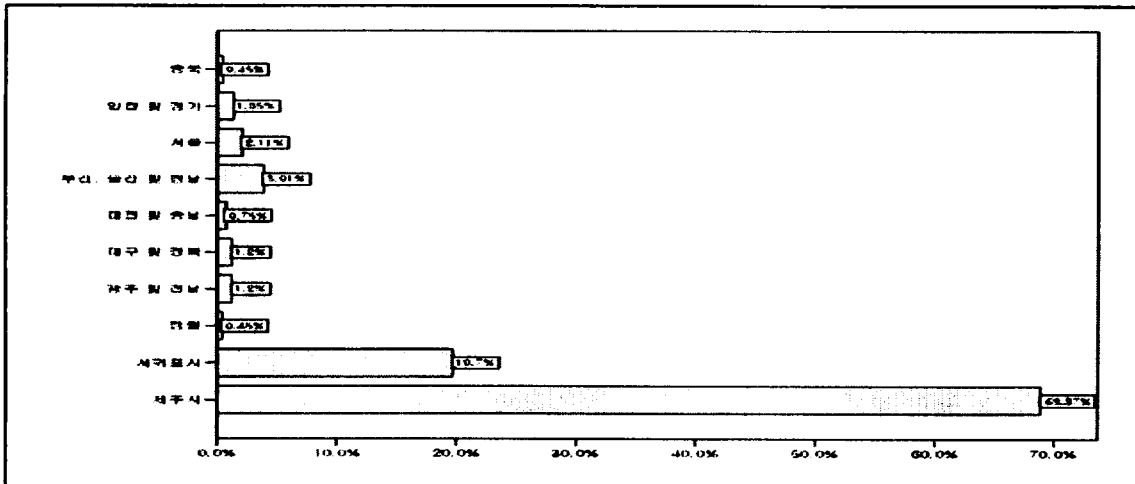
본 조사는 2007년 10월 제주대학교 학부(과)별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실시되었으며, 총 877부가 회수되었으며, 결측치가 존재하는 설문지를 제외한 665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빈도분석을 통한 백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대학별, 학년별, 성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분석 및 해석

1. 개인 및 가정생활 관련

1)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는 [그림 3-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재학생 전체의 68.9%가 제주시 출신이었고, 서귀포시 19.7%, 육지 출신 11.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주도 출신이 88.6%였으며, 육지 출신은 11.4%로 전년도(12.2%) 대비 육지부 출신 학생들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지의 경우에는 부산 및 경남지역 출신이 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3-1]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단과대학별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를 살펴보면, <표 3-1>과 같이 설문에 응답한 경상대학 재학생 126명 중 제주시 소재 고등학교 출신이 6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소재 고등학교 15.1%, 부산, 울산 및 경남 소재 고등학교 7.1%, 광주 및 전남 4.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제주도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의과대학(100%)이었으며, 다음으로 인문대학 98.0%, 해양과학대학 96.4%, 공과대학 95.2%, 법정대학 94.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육지 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생명자원과학대학으로 32.7%에 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상대학 19.8%, 사범대학 16.4%, 자연과학대학 13.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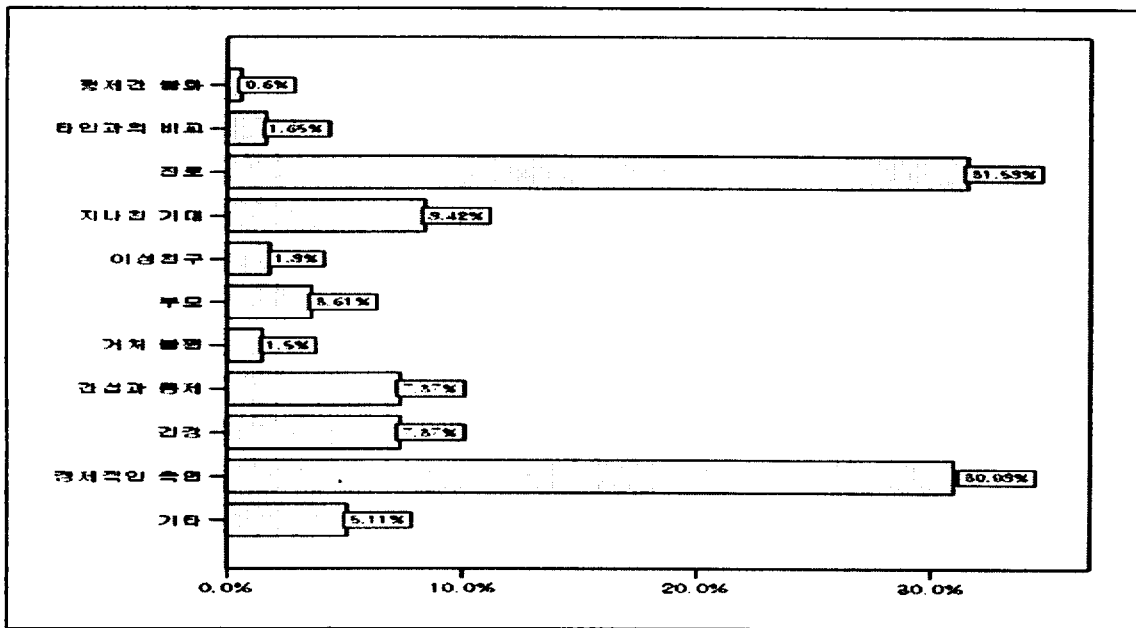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총 부			1 (0.8)				1 (1.2)	1 (1.0)		2 (1.3)		1 (0.5)		1 (0.3)	2 (0.7)	3 (0.5)
인천 및 경기		2 (2.7)	3 (2.4)		2 (3.8)		2 (2.4)			1 (0.6)	2 (1.2)	4 (2.1)	2 (1.3)	7 (1.9)	2 (0.7)	9 (1.4)
서울	1 (1.0)	1 (1.4)	3 (2.4)	1 (1.6)	4 (7.7)	1 (1.8)	2 (2.4)	1 (1.0)		6 (3.8)	1 (0.6)	3 (1.6)	4 (2.6)	10 (2.8)	4 (1.3)	14 (2.1)
부산 울산 및 경남		1 (1.4)	9 (7.1)	4 (6.6)	8 (15.4)		3 (3.7)	1 (1.0)		9 (5.7)	7 (4.3)	6 (3.2)	4 (2.6)	16 (4.5)	10 (3.3)	26 (3.9)
대전 및 충청			2 (1.6)		1 (1.9)	1 (1.8)	1 (1.2)			1 (0.6)		2 (1.1)	2 (1.3)	4 (1.1)	1 (0.3)	5 (0.8)
대구 및 경북	1 (1.0)		2 (1.6)	3 (4.9)	1 (1.9)			1 (1.0)		2 (1.3)	2 (1.2)	3 (1.6)	1 (0.6)	2 (0.6)	6 (2.0)	8 (1.2)
광주 및 전남			5 (4.0)	2 (3.3)			1 (1.2)				7 (4.3)		1 (0.6)	1 (0.3)	7 (2.3)	8 (1.2)
강 원					1 (1.9)		1 (1.2)	1 (1.0)			1 (0.6)	2 (1.1)		2 (0.6)	1 (0.3)	3 (0.5)
서귀포시	23 (22.3)	17 (23.0)	19 (15.1)	8 (13.1)	9 (17.3)	8 (14.3)	21 (25.6)	24 (23.1)	2 (28.6)	28 (17.6)	35 (21.5)	35 (18.6)	33 (21.3)	78 (21.7)	53 (17.3)	131 (19.7)
제 주 시	78 (75.7)	53 (71.6)	82 (65.1)	43 (70.5)	26 (50.0)	46 (82.1)	50 (61.0)	75 (72.1)	5 (71.4)	110 (69.2)	108 (66.3)	132 (70.2)	108 (69.7)	238 (66.3)	220 (71.9)	458 (68.9)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표 3-1> 처럼 1학년의 경우, 69.2%가 제주시 출신이고 서귀포시 17.6%로 나타났으며, 제주도 출신이 8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의 경우, 66.3%가 제주시 출신이고 서귀포시 21.5%로 나타났으며, 제주도 출신이 8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의 경우, 70.2%가 제주시 출신이고 서귀포시 18.6%로 나타났으며, 제주도 출신이 8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학년의 경우, 69.7%가 제주시 출신이고 서귀포시 21.3%로 나타났으며, 제주도 출신이 9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낮을수록 제주도 소재 출신 고등학교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66.3%가 제주시 출신이었고, 서귀포시 21.7%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주도 출신이 8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71.9%가 제주시 출신이었고, 서귀포시 17.3%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제주도 출신이 89.2%로 나타났다.

2) 가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가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그림 3-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진로 31.6%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인 측면 인 측면 31.0%, 지나친 기대 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가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

단과대학별로는 <표3-2>에 나타난 것 처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과대학(39.4%), 법정대학(35.1%), 의과대학(42.9%), 인문대학(36.9%)은 경제적 측면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경상대학(33.3%), 사범대학(37.7%), 생명자원과학대학(42.3%), 자연과학대학(39.0%), 해양과학대학(39.3%)은 진로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의 경우,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측면(35.8%)이 가장 많았고, 진로(23.3%), 간섭과 통제(9.4%), 건강(7.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학년의 경우는 진로(33.1%)가 가장 많았고, 경제적 측면(27.6%), 지나친 기대(9.8%), 간섭과 통제(8.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3학년의 경우, 경제적 측면(36.7%)이 가장 많았고, 진로(28.7%), 지나친 기대(8.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4학년의 경우, 진로(41.9%)가 가장 많았고, 경제적 측면(22.6%), 지나친 기대(11.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3-2> 가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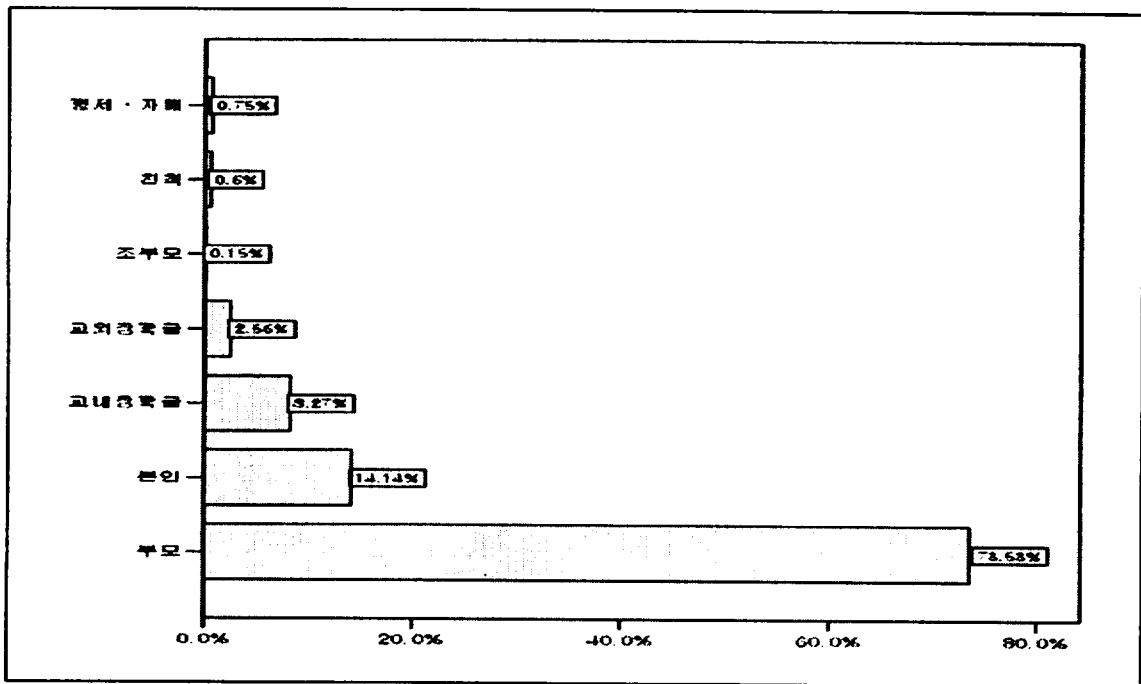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형제간 화				2 (3.3)		2 (3.6)				2 (1.3)			2 (1.3)	4 (1.1)		4 (0.6)
타인과의 비교	1 (1.0)	1 (1.4)	1 (0.8)	1 (1.6)	1 (1.9)	2 (3.6)	1 (1.2)	3 (2.9)		6 (3.8)	3 (1.8)	1 (0.5)	1 (0.6)	5 (1.4)	6 (2.0)	11 (1.7)
진로	27 (26.2)	19 (25.7)	42 (33.3)	23 (37.7)	22 (42.3)	22 (39.3)	32 (39.0)	23 (22.1)		37 (23.3)	54 (33.1)	54 (28.7)	65 (41.9)	121 (33.7)	89 (29.1)	210 (31.6)
지나친 기대	9 (8.7)	12 (16.2)	16 (12.7)	3 (4.9)	1 (1.9)	2 (3.6)	5 (6.1)	8 (7.7)		8 (5.0)	16 (9.8)	15 (8.0)	17 (11.0)	21 (5.8)	35 (11.4)	56 (8.4)
이성 친구	1 (1.0)	1 (1.4)	3 (2.4)	2 (3.3)	1 (1.9)	1 (1.8)	1 (1.2)	2 (1.9)		4 (2.5)	1 (0.6)	4 (2.1)	3 (1.9)	8 (2.2)	4 (1.3)	12 (1.8)
부모	3 (2.9)	1 (1.4)	6 (4.8)	1 (1.6)		1 (1.8)	4 (4.9)	8 (7.7)		6 (3.8)	8 (4.9)	8 (4.3)	2 (1.3)	12 (3.3)	12 (3.9)	24 (3.6)
거처불편	1 (1.0)	1 (1.4)	1 (0.8)	3 (4.9)	2 (3.8)		1 (1.2)	1 (1.0)		5 (3.1)	2 (1.2)		3 (1.9)	5 (1.4)	5 (1.6)	10 (1.5)
간섭과 통제	9 (8.7)	7 (9.5)	9 (7.1)	4 (6.6)	2 (3.8)	5 (8.9)	7 (8.5)	5 (4.8)	1 (14.3)	15 (9.4)	14 (8.6)	11 (5.9)	9 (5.8)	16 (4.5)	33 (10.8)	49 (7.4)
건강	8 (7.8)	3 (4.1)	6 (4.8)	3 (4.9)	6 (11.5)	7 (12.5)	6 (7.3)	10 (9.6)		12 (7.5)	12 (7.4)	13 (6.9)	12 (7.7)	28 (7.8)	21 (6.9)	49 (7.4)
경제적 인측면	38 (36.9)	26 (35.1)	34 (27.0)	16 (26.2)	14 (26.9)	11 (19.6)	23 (28.0)	41 (39.4)	3 (42.9)	57 (35.8)	45 (27.6)	69 (36.7)	35 (22.6)	123 (34.3)	83 (27.1)	206 (31.0)
기타	6 (5.8)	3 (4.1)	8 (6.3)	3 (4.9)	3 (5.8)	3 (5.4)	2 (2.4)	3 (2.9)	3 (42.9)	7 (4.4)	8 (4.9)	13 (6.9)	6 (3.9)	16 (4.5)	18 (5.9)	34 (5.1)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측면(34.3%)이 가장 많았고, 진로(33.7%), 건강(7.8%), 지나친 기대(5.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진로(29.1%)가 가장 많았고, 경제적 측면(27.1%), 지나친 기대(11.4%), 간섭과 통제(10.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3) 재학 중 학비(등록금) 부담자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재학 중 학비(등록금) 부담자는 [그림 3-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재학생 전체의 73.5%가 부모였고, 본인(14.1%), 교내장학금(3.3%)과 교외장학금(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재학 중 학비(등록금) 부담자

단과대학별로는 <표 3-3>에 나타난 것처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비부담이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의과대학(85.7%)이었으며, 이어서 경상대학(83.3%), 사범대학(82.0%) 등의 순이며 해양과학대학은 가장 낮은 55.4%를 나타냈다. 해양과학대학이 타 대학과의 비율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BK21 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장학금 수혜로 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의 경우가 부모부담 비율이 전체에서 가장 높았고(84.3%), 다음으로 2학년(71.8%), 3학년(69.7%), 4학년(69.0%) 등의 순으로 높았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68.5%가 부모부담이고, 여학생의 경우는 79.4%로 여학생의 학비 부모부담 비율이 남학생의 학비 부모부담 비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재학 중 학비(등록금) 부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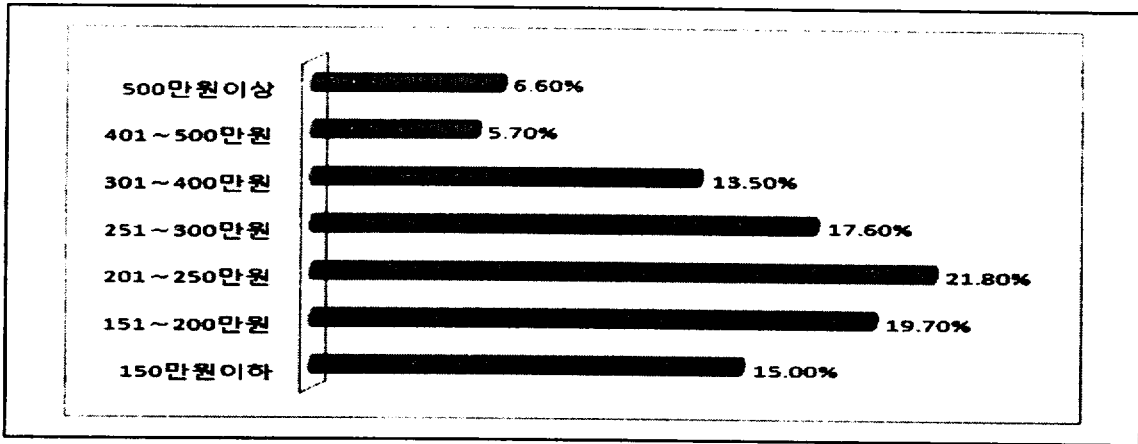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대학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형제, 매	1 (1.0)						2 (2.4)	2 (1.9)		2 (1.3)	1 (0.6)	1 (0.5)	1 (0.6)	4 (1.1)	1 (0.3)	5 (0.8)
친척				1 (1.6)		2 (3.6)	1 (1.2)				1 (0.6)		3 (1.9)	2 (0.6)	2 (0.7)	4 (0.6)
조부모			1 (0.8)									1 (0.5)		1 (0.3)		1 (0.2)
교외 장학금	2 (1.9)	4 (5.4)	3 (2.4)	2 (3.3)	1 (1.9)	3 (5.4)		2 (1.9)			5 (3.1)	7 (3.7)	5 (3.2)	9 (2.5)	8 (2.6)	17 (2.6)
교내 장학금	5 (4.9)	5 (6.8)	7 (5.6)	2 (3.3)	7 (13.5)	9 (16.1)	9 (11.0)	10 (9.6)	1 (14.3)	6 (3.8)	16 (9.8)	19 (10.1)	14 (9.0)	31 (8.6)	24 (7.8)	55 (8.3)
본인	19 (18.4)	9 (12.2)	10 (7.9)	6 (9.8)	9 (17.3)	11 (19.6)	12 (14.6)	18 (17.3)		17 (10.7)	23 (14.1)	29 (15.4)	25 (16.1)	66 (18.4)	28 (9.2)	94 (14.1)
부모	76 (73.8)	56 (75.7)	105 (83.3)	50 (82.0)	35 (67.3)	31 (55.4)	58 (70.7)	72 (69.2)	6 (85.7)	134 (84.3)	117 (71.8)	131 (69.7)	107 (69.0)	246 (68.5)	243 (79.4)	489 (73.5)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4) 가계 월평균 소득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가계 월평균 소득은 [그림 3-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4]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가계 월평균 소득은 201~250만원이 21.8%로 가장 많았고, 151~200만원(19.7%), 251~300만원(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과대학(25.0%), 법정대학(25.7%), 인문대학(28.2%)은 201~250만원 월평균 가계소득 분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상대학(23.0%)과 의과대학(42.9%)은 251~300만원 월평균 가계소득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준 반면, 생명자원과학대학(25.0%)은 150만원이하 분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4] 가계 월평균 소득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22.0%)과 4학년(27.7%)의 경우, 201~250만원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2학년은 251~300만원이 20.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3학년은 151~200만원이 21.8%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가계 월평균 소득이 151~200만원이 22.3%로 가장 많았으나, 여학생의 경우, 201~250만원에서 가장 높은 21.6%의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3-4> 가계 월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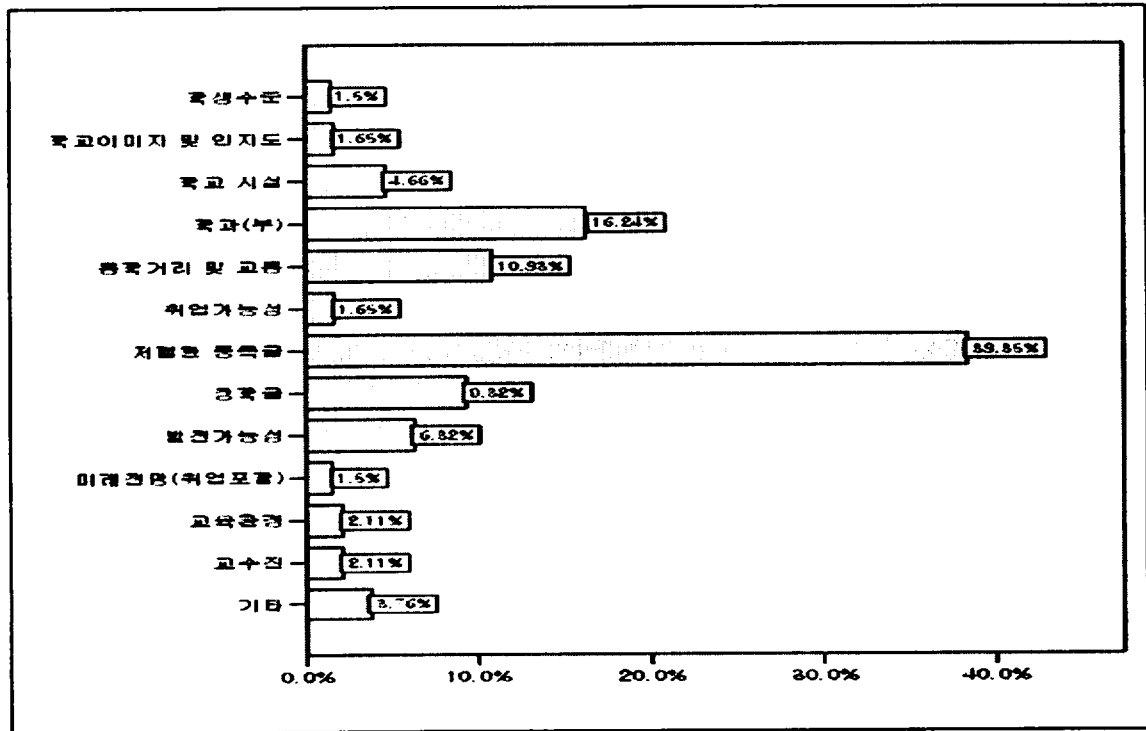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대학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500만원 이상	8 (7.8)	5 (6.8)	7 (5.6)	5 (8.2)	5 (9.6)	5 (8.9)	6 (7.3)	3 (2.9)		11 (6.9)	13 (8.0)	10 (5.3)	10 (6.5)	23 (6.4)	21 (6.9)	44 (6.6)
401~500만원	5 (4.9)	6 (8.1)	8 (6.3)	4 (6.6)	3 (5.8)	1 (1.8)	4 (4.9)	6 (5.8)	1 (14.3)	10 (6.3)	7 (4.3)	13 (6.9)	8 (5.2)	16 (4.5)	22 (7.2)	38 (5.7)
301~400만원	9 (8.7)	6 (8.1)	21 (16.7)	7 (11.5)	6 (11.5)	9 (16.1)	17 (20.7)	14 (13.5)	1 (14.3)	22 (13.8)	25 (15.3)	27 (14.4)	16 (10.3)	50 (13.9)	40 (13.1)	90 (13.5)
251~300만원	16 (15.5)	10 (13.5)	29 (23.0)	12 (19.7)	9 (17.3)	11 (19.6)	8 (9.8)	19 (18.3)	3 (42.9)	22 (13.8)	34 (20.9)	27 (14.4)	34 (21.9)	53 (14.8)	64 (20.9)	117 (17.6)
201~250만원	29 (28.2)	19 (25.7)	24 (19.0)	13 (21.3)	6 (11.5)	11 (19.6)	16 (19.5)	26 (25.0)	1 (14.3)	35 (22.0)	33 (20.2)	34 (18.1)	43 (27.7)	79 (22.0)	66 (21.6)	145 (21.8)
151~200만원	19 (18.4)	14 (18.9)	21 (16.7)	13 (21.3)	10 (19.2)	13 (23.2)	18 (22.0)	23 (22.1)		32 (20.1)	29 (17.8)	41 (21.8)	29 (18.7)	80 (22.3)	51 (16.7)	131 (19.7)
150만원 이하	17 (16.5)	14 (18.9)	16 (12.7)	7 (11.5)	13 (25.0)	6 (10.7)	13 (15.9)	13 (12.5)	1 (14.3)	27 (17.0)	22 (13.5)	36 (19.1)	15 (9.7)	58 (16.2)	42 (13.7)	100 (15.0)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2. 대학선택 및 본교 관련

1) 본교에서 가장 만족한 부분

2007학년도 본교에서 가장 만족한 부분은 [그림 3-5]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재학생 전체의 39.4%가 저렴한 등록금을 택했고, 학과(부) 16.2%, 통학거리 및 교통 11.0%, 장학금 9.3%, 발전가능성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본교에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

단과대학별로는 <표 3-5>에 나타난 것 처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상대학(51.6%), 1은 저렴한 등록금이 가장 만족한 부분으로 나타났고, 의과대학(28.6%)은 저렴한 등록금과 학과(부)에 만족하고 있으며, 해양과학대학은 장학금(30.4%)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로도 1학년(27.7%), 2학년(37.4%), 3학년(39.9%), 4학년(48.4%) 모두 본교에서 가장 만족한 부분이 저렴한 등록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33.1%)과 여학생(44.4%) 모두 저렴한 등록금이 본교에서

가장 만족한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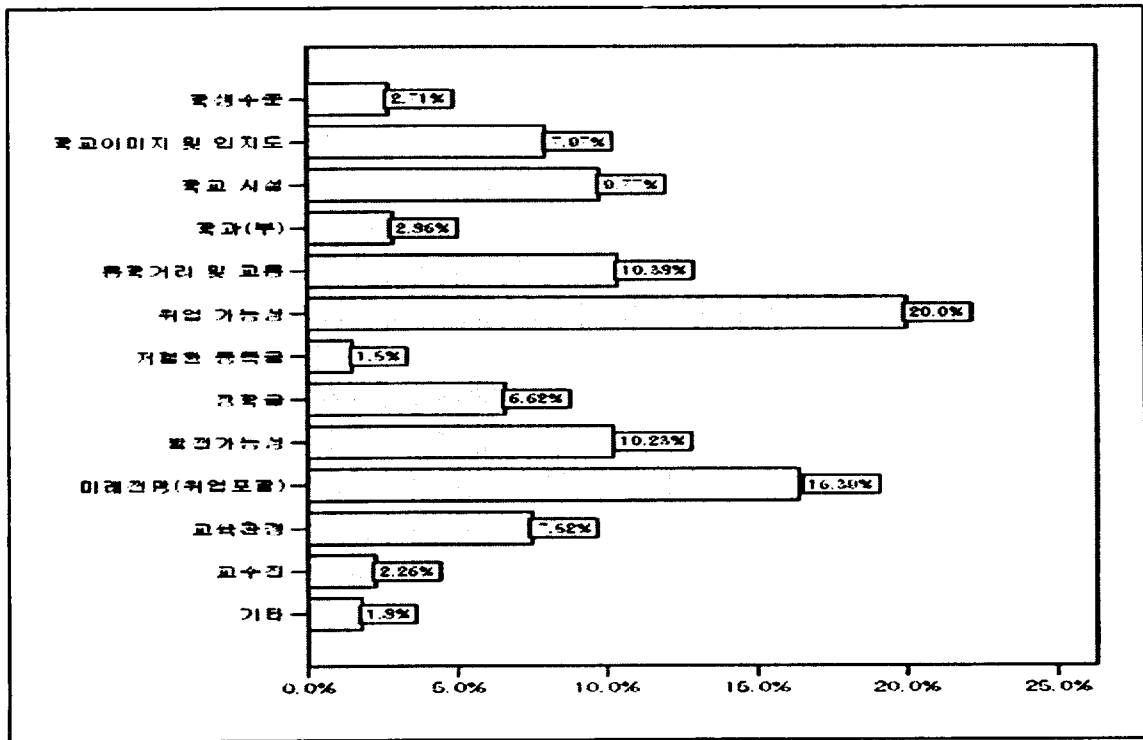
<표 3-5> 본교에서 가장 만족한 부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학 수	3 (2.9)			1 (1.6)	1 (1.9)	2 (3.6)		2 (1.9)	1 (1.4)	2 (1.3)	4 (2.5)	1 (0.5)	3 (1.9)	7 (1.9)	3 (1.0)	10 (1.5)
학교이미지 및 인지도	4 (3.9)	2 (2.7)		2 (3.3)		1 (1.8)	2 (2.4)			3 (1.9)	3 (1.8)	3 (1.6)	2 (1.3)	5 (1.4)	6 (2.0)	11 (1.7)
학 교 시 설	2 (1.9)	4 (5.4)	4 (3.2)	3 (4.9)		4 (7.1)	7 (8.5)	7 (6.7)		7 (4.4)	6 (3.7)	9 (4.8)	9 (5.8)	18 (5.0)	13 (4.2)	31 (4.7)
학 과 (부)	20 (19.4)	10 (13.5)	21 (16.7)	13 (21.3)	9 (17.3)	2 (3.6)	12 (14.6)	19 (18.3)	2 (2.8)	42 (26.4)	26 (16.0)	25 (13.3)	15 (9.7)	56 (15.6)	52 (17.0)	108 (16.2)
통학거리 및 교통	16 (15.5)	6 (8.1)	9 (7.1)	8 (13.1)	5 (9.6)	6 (10.7)	9 (11.0)	12 (11.5)	1 (1.4)	21 (13.2)	17 (10.4)	17 (9.0)	17 (11.0)	36 (10.0)	36 (11.8)	72 (10.8)
취업 가능성		3 (4.1)		2 (3.3)		2 (3.6)	1 (1.2)	2 (1.9)	1 (1.4)	2 (1.3)	3 (1.8)	3 (1.6)	3 (1.9)	9 (2.5)	2 (0.7)	11 (1.7)
저렴 한 급	41 (39.8)	36 (48.6)	65 (51.6)	25 (41.0)	17 (32.7)	7 (12.5)	29 (35.4)	33 (31.7)	2 (2.8)	44 (27.7)	61 (37.4)	75 (39.9)	75 (48.4)	119 (33.1)	136 (44.4)	255 (38.3)
장 학 금	4 (3.9)	2 (2.7)	12 (9.5)	1 (1.6)	7 (13.5)	17 (30.4)	8 (9.8)	11 (10.6)		20 (12.6)	10 (6.1)	20 (10.6)	12 (7.7)	34 (9.5)	28 (9.2)	62 (9.3)
발 가 능 성	6 (5.8)	4 (5.4)	9 (7.1)	2 (3.3)	2 (3.8)	7 (12.5)	4 (4.9)	8 (7.7)		11 (6.9)	14 (8.6)	12 (6.4)	5 (3.2)	30 (8.4)	12 (3.9)	42 (6.3)
미 래 전 망 (취업 포함)			1 (0.8)		4 (7.7)		1 (1.2)	4 (3.8)			4 (2.5)	1 (0.5)	5 (3.2)	8 (2.2)	2 (0.7)	10 (1.5)
교 육 경 환	3 (2.9)	2 (2.7)	2 (1.6)	1 (1.6)	1 (1.9)		3 (3.7)	2 (1.9)			5 (3.1)	7 (3.7)	2 (1.3)	9 (2.5)	5 (1.6)	14 (2.1)
교 수 진		2 (2.7)	1 (0.8)	2 (3.3)	1 (1.9)	6 (10.7)	2 (2.4)			3 (1.9)	4 (2.5)	5 (2.7)	2 (1.3)	12 (3.3)	2 (0.7)	14 (2.1)
기 타	4 (3.9)	3 (4.1)	2 (1.6)	1 (1.6)	5 (9.6)	2 (3.6)	4 (4.9)	4 (3.8)		4 (2.5)	6 (3.7)	10 (5.3)	5 (3.2)	16 (4.5)	9 (2.9)	25 (3.8)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2) 본교에서 불만족한 부분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본교에서 불만족한 부분은 [그림 3-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6]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취업가능성(20.0%), 미래 전망(16.4%), 통학거리 및 교통(10.4%), 발전가능성(10.2%) 학교시설(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본교에서 불만족한 부분

단과대학별로는 <표 3-6>에 의하면 재학생들의 본교에서 불만족한 부분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상대학(23.8%), 사범대학(21.3%), 인문대학(18.4%)은 미래 전망(취업 포함)을 가장 불만족한 부분으로 꼽았고, 공과대학(15.4%), 법정대학(28.4%), 생명자원과학대학(19.2%)과 자연과학대학(31.7%)은 취업가능성을 꼽았다. 의과대학(28.6%)과 해양과학대학(17.9%)은 가장 불만족한 부분을 각각 장학금과 통학거리 및 교통에서 찾고 있어, 다른 대학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년에 따라 본교에서 불만족한 부분을 살펴보면, 학년에 차이가 없이 취업가능성에 불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에 따라 본교에서 불만족한 부분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취업가능성(18.1%), 미래 전망(13.9%), 통학거리 및 교통(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취업가능성(19.3%), 발전가능성(10.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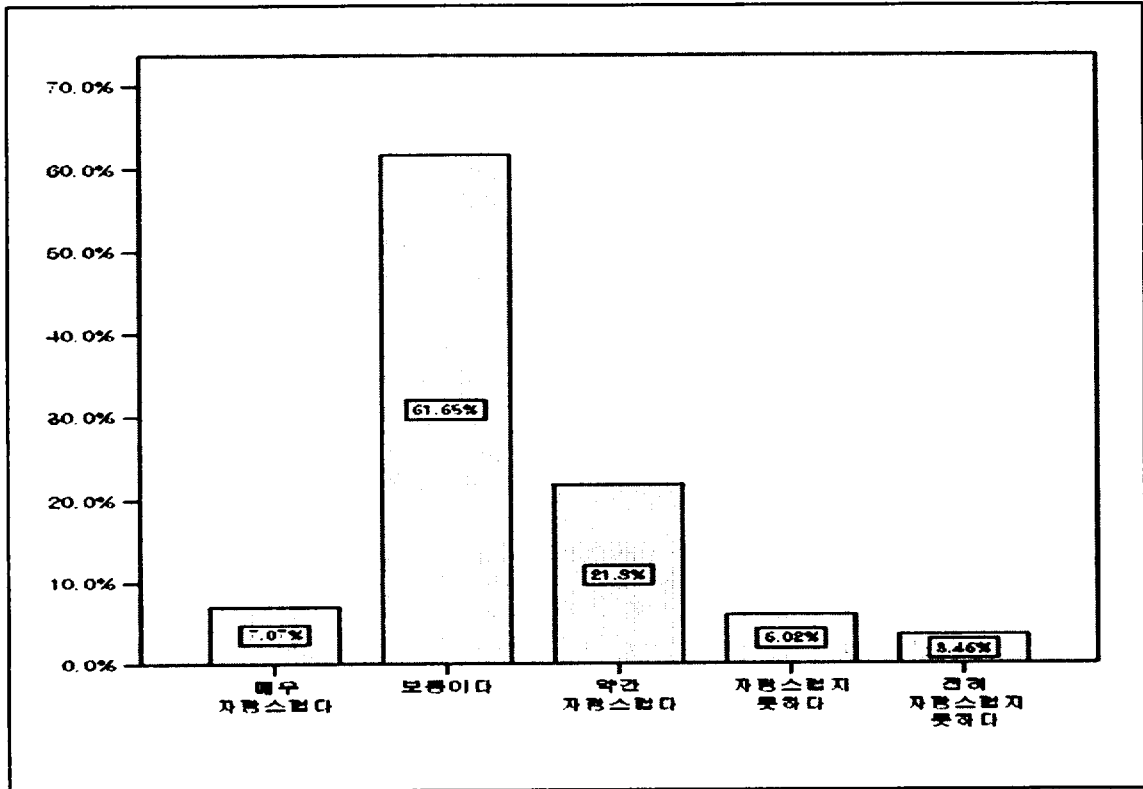
<표 3-6> 본교에서 불만족한 부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학 수	2 (1.9)	3 (4.1)	2 (1.6)	1 (1.6)	2 (3.8)		4 (4.9)	4 (3.8)		6 (3.8)	3 (1.8)	6 (3.2)	3 (1.9)	14 (3.9)	4 (1.3)	18 (2.7)
학교이미지 및 인지도	2 (1.9)	4 (5.4)	14 (11.1)	9 (14.8)	5 (9.6)	6 (10.7)	4 (4.9)	8 (7.7)	1 (14.3)	15 (9.4)	15 (9.2)	14 (7.4)	9 (5.8)	33 (9.2)	20 (6.5)	53 (8.0)
학 교 시 설	16 (15.5)	9 (12.2)	3 (2.4)	4 (6.6)	7 (13.5)	6 (10.7)	6 (7.3)	14 (13.5)		18 (11.3)	13 (8.0)	23 (12.2)	11 (7.1)	38 (10.6)	27 (8.8)	65 (9.8)
학 과 (부)	6 (5.8)	1 (1.4)	2 (1.6)	1 (1.6)	1 (1.9)	3 (5.4)	1 (1.2)	4 (3.8)		4 (2.5)	2 (1.2)	7 (3.7)	6 (3.9)	14 (3.9)	5 (1.6)	19 (2.9)
통학거리 및 교통	10 (9.7)	3 (4.1)	10 (7.9)	6 (9.8)	9 (17.3)	10 (17.9)	5 (6.1)	15 (14.4)	1 (14.3)	17 (10.7)	17 (10.4)	25 (13.3)	10 (6.5)	39 (10.9)	30 (9.8)	69 (10.4)
취업 가능성	18 (17.5)	21 (28.4)	26 (20.6)	8 (13.1)	10 (19.2)	7 (12.5)	26 (31.7)	16 (15.4)	1 (14.3)	29 (18.2)	33 (20.2)	33 (17.6)	38 (24.5)	65 (18.1)	68 (22.2)	133 (20.0)
저렴 한 숙 료	2 (1.9)	1 (1.4)	1 (0.8)				2 (2.4)	4 (3.8)		3 (1.9)	3 (1.8)	4 (2.1)		7 (1.9)	3 (1.0)	10 (1.5)
장 학 금	10 (9.7)	4 (5.4)	5 (4.0)	5 (8.2)	3 (5.8)	2 (3.6)	6 (7.3)	7 (6.7)	2 (28.6)	15 (9.4)	13 (8.0)	7 (3.7)	9 (5.8)	18 (5.0)	26 (8.5)	44 (6.6)
발 전 가 능 성	9 (8.7)	8 (10.8)	19 (15.1)	4 (6.6)	4 (7.7)	8 (14.3)	7 (8.5)	8 (7.7)	1 (14.3)	16 (10.1)	11 (6.7)	23 (12.2)	18 (11.6)	36 (10.0)	32 (10.5)	68 (10.2)
미 래 전 망 (취업 포함)	19 (18.4)	14 (18.9)	30 (23.8)	13 (21.3)	3 (5.8)	9 (16.1)	11 (13.4)	10 (9.6)		22 (13.8)	28 (17.2)	29 (15.4)	30 (19.4)	50 (13.9)	59 (19.3)	109 (16.4)
교 육 환 경	5 (4.9)	3 (4.1)	9 (7.1)	8 (13.1)	7 (13.5)	2 (3.6)	8 (9.8)	8 (7.7)		10 (6.3)	16 (9.8)	9 (4.8)	15 (9.7)	26 (7.2)	24 (7.8)	50 (7.5)
교 수 진	4 (3.9)	2 (2.7)	3 (2.4)	1 (1.6)		1 (1.8)		4 (3.8)		1 (0.6)	4 (2.5)	5 (2.7)	5 (3.2)	11 (3.1)	4 (1.3)	15 (2.3)
기 타		1 (1.4)	2 (1.6)	1 (1.6)	1 (1.9)	2 (3.6)	2 (2.4)	2 (1.9)	1 (14.3)	3 (1.9)	5 (3.1)	3 (1.6)	1 (0.6)	8 (2.2)	4 (1.3)	12 (1.8)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3) 본교에 대한 긍지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본교에 대한 긍지는 [그림 3-7]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7]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재학생 전체의 28.4%가 본교에 대해서 자랑스럽다고 했고, 9.5%가 자랑스럽지 못하다고 대답하여, 본교에 대한 긍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본교에 대한 긍지

단과대학별로 본교에 대한 긍지는 해양과학대학(42.8%), 법정대학(36.5%), 인문대학(32.0%), 의과대학(28.6%), 자연과학대학(26.8%) 등의 순으로 긍지를 느낀다고 대답했다.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 30.8%, 2학년 30.0%, 3학년 29.3%, 4학년 25.2%로 나타나 4학년이 가장 긍지를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34.6%가 자랑스럽다고 대답했으나, 여학생의

경우, 22.2%가 자랑스럽다고 대답해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긍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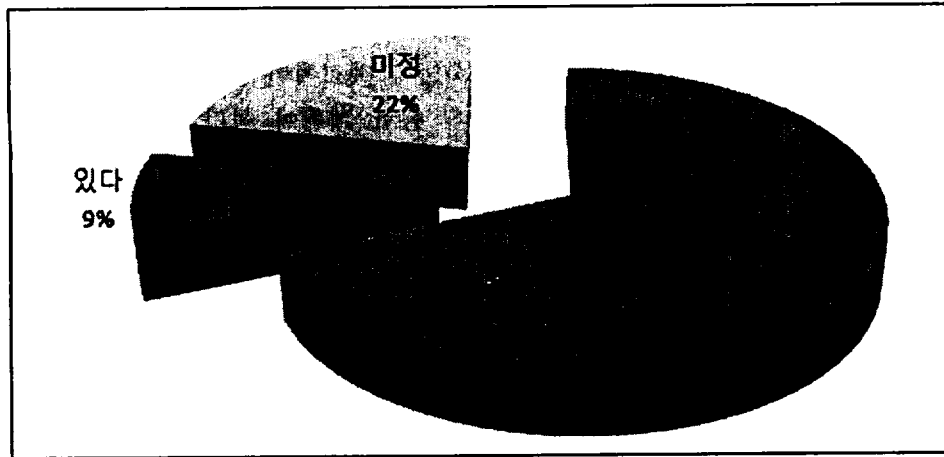
<표 3-7> 본교에 대한 긍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매 우 자랑스럽다	7 (6.8)	4 (5.4)	7 (5.6)	4 (6.6)	5 (9.6)	6 (10.7)	7 (8.5)	7 (6.7)		13 (8.2)	10 (6.1)	15 (8.0)	9 (5.8)	34 (9.5)	13 (4.2)	47 (7.1)
보 통 이 다	59 (57.3)	39 (52.7)	86 (68.3)	35 (57.4)	28 (53.8)	30 (53.6)	52 (63.4)	76 (73.1)	5 (71.4)	97 (61.0)	102 (62.6)	111 (59.0)	100 (64.5)	203 (56.5)	207 (67.6)	410 (61.7)
약 간 자랑스럽다	26 (25.2)	23 (31.1)	26 (20.6)	12 (19.7)	6 (11.5)	18 (32.1)	15 (18.3)	17 (16.3)	2 (28.6)	36 (22.6)	39 (23.9)	40 (21.3)	30 (19.4)	90 (25.1)	55 (18.0)	145 (21.8)
자랑스럽지 못 하 다	6 (5.8)	5 (6.8)	5 (4.0)	8 (13.1)	6 (11.5)	1 (1.8)	6 (7.3)	3 (2.9)		9 (5.7)	8 (4.9)	12 (6.4)	11 (7.1)	18 (5.0)	22 (7.2)	40 (6.0)
전 혀 자랑스럽지 못 하 다	5 (4.9)	3 (4.1)	2 (1.6)	2 (3.3)	7 (13.5)	1 (1.8)	2 (2.4)	1 (1.0)		4 (2.5)	4 (2.5)	10 (5.3)	5 (3.2)	14 (3.9)	9 (2.9)	23 (3.5)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4)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및 편입 계획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및 편입 계획은 [그림 3-8]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8]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응답 재학생 전체의 68.9%가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및 편입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고,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및 편입 계획이 있는 학생은 9.3%에 불과 했다. 그러나 미정인 학생이 21.8%로 나타나 재수 및 편입 계획이 있는 학생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및 편입 계획

단과대학별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및 편입 계획을 지닌 재학생은 <표 3-8>에 나타난 것 처럼 의과대학(28.6%), 법정대학(18.9%), 자연과학대학(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및 편입 계획을 살펴보면, 1학년 13.2%, 2학년 11.0%, 3학년 8.0%, 4학년 5.2% 순으로 나타나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편입 및 재수 계획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및 편입 계획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9.5%가 여학생의 경우, 9.2%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재수 및 편입 계획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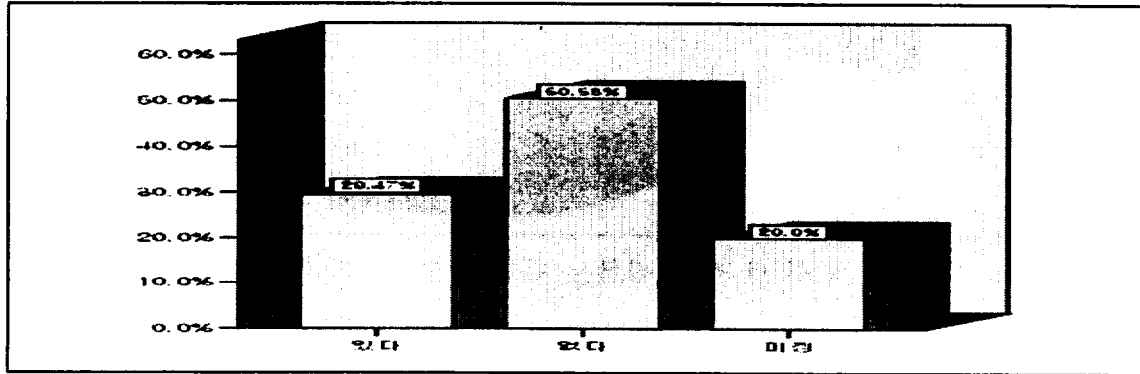
<표 3-8>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및 편입 계획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없다	82 (79.6)	43 (58.1)	92 (73.0)	45 (73.8)	34 (65.4)	41 (73.2)	42 (51.2)	74 (71.2)	5 (71.4)	97 (61.0)	109 (66.9)	139 (73.9)	113 (72.9)	259 (72.1)	199 (65.0)	458 (68.9)
있다	3 (2.9)	14 (18.9)	13 (10.3)	4 (6.6)	3 (5.8)	5 (8.9)	11 (13.4)	7 (6.7)	2 (28.6)	21 (13.2)	18 (11.0)	15 (8.0)	8 (5.2)	34 (9.5)	28 (9.2)	62 (9.3)
미정	18 (17.5)	17 (23.0)	21 (16.7)	12 (19.7)	15 (28.8)	10 (17.9)	29 (35.4)	23 (22.1)		41 (25.8)	36 (22.1)	34 (18.1)	34 (21.9)	66 (18.4)	79 (25.8)	145 (21.8)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5) 휴학 계획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휴학 계획은 [그림 3-9]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9]에 제시되어 있는 것 같이, 응답 재학생 전체의 29.5%가 휴학 계획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없음은 50.5%, 아직 정하지 않은 미정은 20.0%로 나타났다.



[그림 3-9] 휴학 계획

단과대학별로는 <표 3-9>에 의하면 응답 재학생들 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상대학(43.7%), 해양과학대학(39.3%), 법정대학(39.2%) 등의 순으로 휴학 계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과대학(85.7%), 생명자원과학대학(63.5%), 사범대학(59.0%) 등의 순으로 휴학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40.3%), 2학년(35.6%), 3학년(28.7%), 4학년(12.9%)로 나타나, 1학년이 휴학 계획이 가장 많고, 4학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33.7%가 휴학 계획이 있다고 나타났고, 여학생은 24.5%만 휴학 계획이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

<표 3-9> 휴학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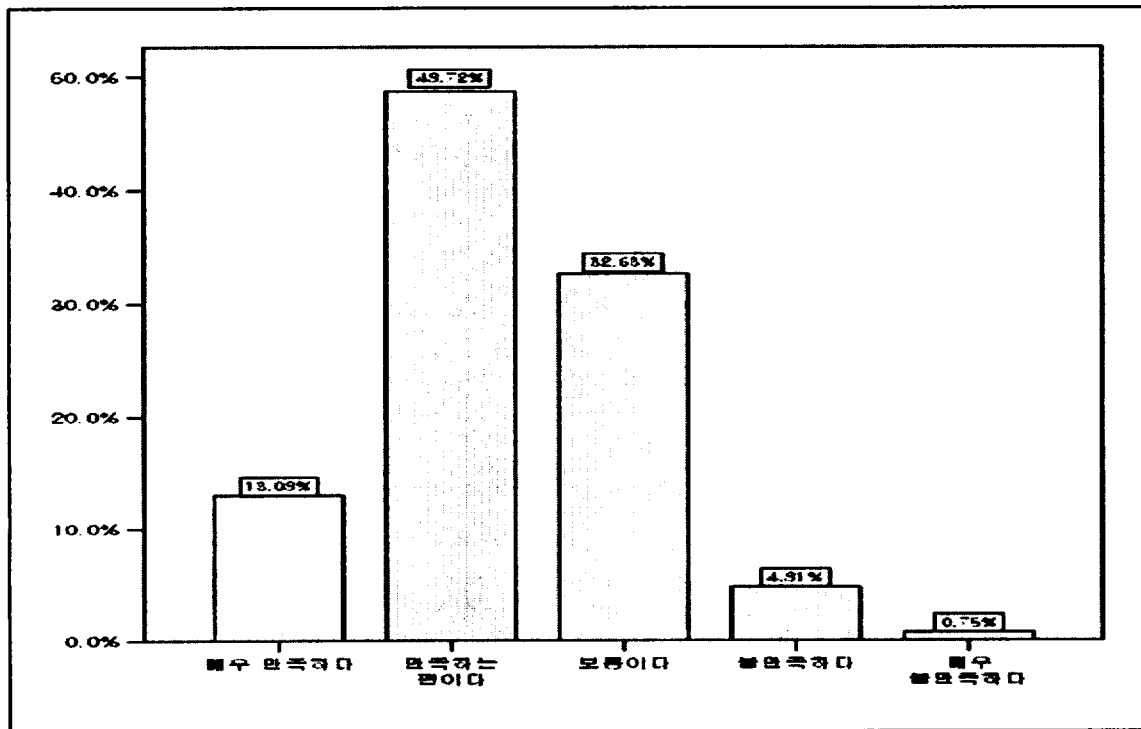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있다	25 (24.3)	29 (39.2)	55 (43.7)	11 (18.0)	5 (9.6)	22 (39.3)	19 (23.2)	29 (27.9)	1 (14.3)	64 (40.3)	58 (35.6)	54 (28.7)	20 (12.9)	121 (33.7)	75 (24.5)	196 (29.5)
없다	53 (51.5)	30 (40.5)	53 (42.1)	36 (59.0)	33 (63.5)	23 (41.1)	40 (48.8)	62 (59.6)	6 (85.7)	57 (35.8)	69 (42.3)	97 (51.6)	113 (72.9)	184 (51.3)	152 (49.7)	336 (50.5)
미정	25 (24.3)	15 (20.3)	18 (14.3)	14 (23.0)	14 (26.9)	11 (19.6)	23 (28.0)	13 (12.5)		38 (23.9)	36 (22.1)	37 (19.7)	22 (14.2)	54 (15.0)	79 (25.8)	133 (20.0)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3. 대학생활 관련

1) 학과(학부, 전공) 만족도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학과(학부, 전공) 만족도는 [그림 3-10]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0]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응답 재학생 전체의 61.8%가 학과(학부, 전공)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32.6%, 불만족 5.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학과(학부,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0] 학과(학부, 전공) 만족도

단과대학별로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10>에 나타난 것 처럼 생명자원 과학대학(78.9%), 사범대학(72.1%), 경상대학(69.0%), 공과대학(61.6%), 법정대학(59.5%), 의과대학(57.2%), 자연과학대학(53.6%), 인문대학(52.4%), 해양과학대학(51.8%) 등의 순으로 학과(학부, 전공)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62.3%), 2학년(63.2%), 3학년(59.5%), 4학년(62.6%)로 나

타나 2학년이 학과(학부, 전공)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학년별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65.7%가 학과(학부, 전공)에 만족한다고 나타났고, 여학생은 67.2%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조금 더 학과(학부, 전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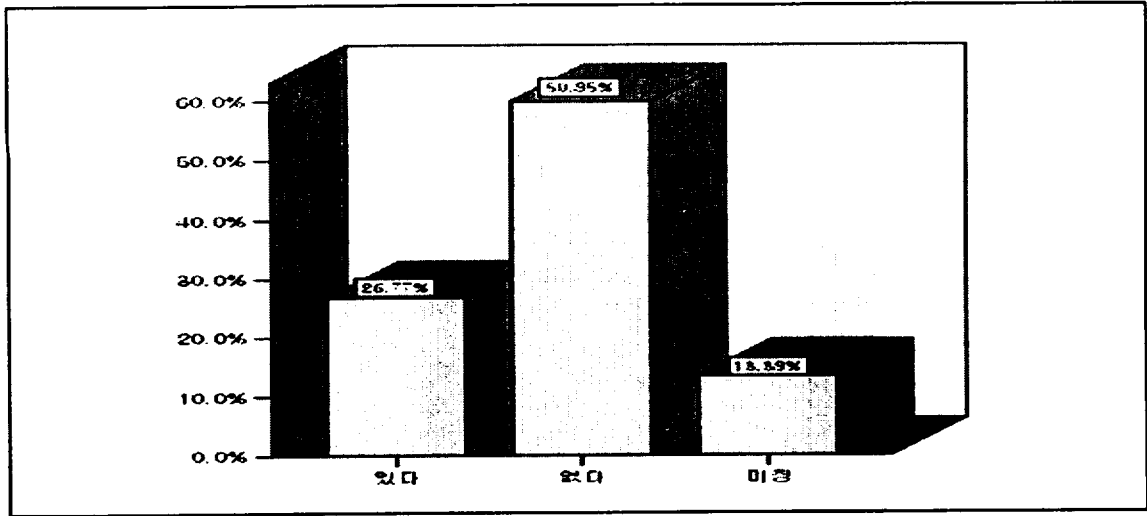
<표 3-10> 학과(학부, 전공)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매 우 만 족	13 (12.6)	6 (8.1)	12 (9.5)	8 (13.1)	11 (21.2)	10 (17.9)	12 (14.6)	14 (13.5)	1 (14.3)	27 (17.0)	17 (10.4)	23 (12.2)	20 (12.9)	55 (15.3)	32 (10.5)	87 (13.1)	
만 족	41 (39.8)	38 (51.4)	75 (59.5)	36 (59.0)	30 (57.7)	19 (33.9)	32 (39.0)	50 (48.1)	3 (42.9)	72 (45.3)	86 (52.8)	89 (47.3)	77 (49.7)	181 (50.4)	143 (46.7)	324 (48.7)	
보 통	35 (34.0)	25 (33.8)	34 (27.0)	16 (26.2)	11 (21.2)	23 (41.1)	31 (37.8)	39 (37.5)	3 (42.9)	55 (34.6)	50 (30.7)	62 (33.0)	50 (32.3)	105 (29.2)	112 (36.6)	217 (32.6)	
불 만족	11 (10.7)	5 (6.8)	5 (4.0)			3 (5.4)	7 (8.5)	1 (1.0)		4 (2.5)	10 (6.1)	11 (5.9)	7 (4.5)	15 (4.2)	17 (5.6)	32 (4.8)	
매 우 불 만족	3 (2.9)			1 (1.6)		1 (1.8)				1 (0.6)		3 (1.6)	1 (0.6)	3 (0.8)	2 (0.7)	5 (0.8)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2) 복수전공 계획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복수전공 계획은 [그림 3-1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응답 재학생 전체의 26.8%가 복수전공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없음(59.9%), 미정(13.4%)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복수전공 계획

<표 3-11>에 따르면, 단과대학별로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사범대학(47.5%), 인문대학(42.7%), 법정대학(40.5%) 순으로 복수전공 계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과대학(85.7%), 공과대학(83.7%), 생명자원과학대학(78.8%), 해양과학대학(62.5%)은 복수전공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30.8%), 2학년(30.1%), 3학년(22.3%), 4학년(24.5%)으로 나타나 1, 2학년 학생들이 복수전공 계획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20.9%가 복수전공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은 33.7%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복수전공 계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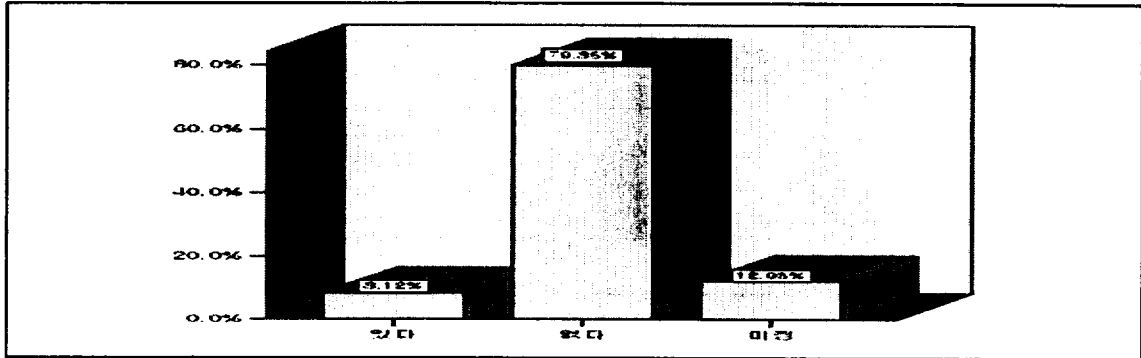
<표 3-11> 복수전공 계획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있다	44 (42.7)	30 (40.5)	35 (27.8)	29 (47.5)	3 (5.8)	6 (10.7)	22 (26.8)	8 (7.7)	1 (14.3)	49 (30.8)	49 (30.1)	42 (22.3)	38 (24.5)	75 (20.9)	103 (33.7)	178 (26.8)	
없다	43 (41.7)	41 (56.4)	72 (57.1)	30 (49.2)	41 (78.8)	35 (62.5)	43 (52.4)	87 (83.7)	6 (85.7)	64 (40.3)	88 (54.0)	136 (72.3)	110 (71.0)	237 (66.0)	161 (52.6)	398 (59.8)	
미정	16 (15.5)	3 (4.1)	19 (15.1)	2 (3.3)	8 (15.4)	15 (26.8)	17 (20.7)	9 (8.7)		46 (28.9)	26 (16.0)	10 (5.3)	7 (4.5)	47 (13.1)	42 (13.7)	89 (13.4)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3) 학과·전공영역 바꿀 계획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학과·전공영역 바꿀 계획은 [그림 3-1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응답 재학생 전체 중 8.1%만이 학과·전공영역 바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79.9%, '미정' 12%로 나타났다.



[그림 3-12] 학과·전공영역 바꿀 계획

단과대학별로는 <표 3-12>에 제시하는 바와 같이,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의과대학(28.6%), 법정대학(12.2%), 해양과학대학(10.7%) 등의 순으로 학과·전공영역 바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명자원과학대학(84.6%), 공과대학(83.7%) 등은 상대적으로 학과·전공영역 바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 13.2%, 2학년 10.4%, 3학년 2.1%, 4학년 7.7%로 나타나 1학년이 가장 높은 학과·전공영역 변경 계획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8.9%가 학과·전공영역 바꿀 계획이 있다고 나타났고, 여학생은 7.2%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학과·전공영역 바꿀 계획이 많은 것을 <표 3-12>에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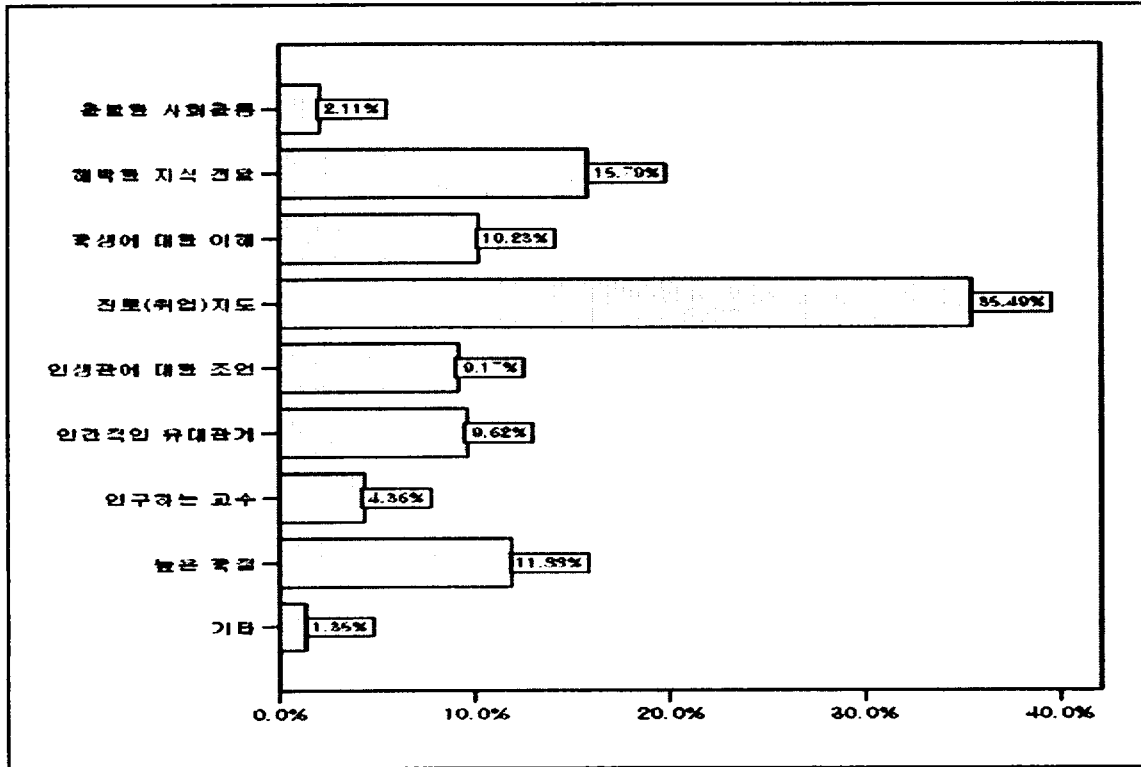
<표 3-12> 학과·전공영역 변경 계획

<단위 : 명(%)>

구분	대학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있다	7 (6.8)	9 (12.2)	10 (7.9)	4 (6.6)	4 (7.7)	6 (10.7)	4 (4.9)	8 (7.7)	2 (28.6)	21 (13.2)	17 (10.4)	4 (2.1)	12 (7.7)	32 (8.9)	22 (7.2)	54 (8.1)
없다	83 (80.6)	61 (82.4)	101 (80.2)	51 (83.6)	44 (84.6)	39 (69.6)	60 (73.2)	87 (83.7)	5 (71.4)	95 (59.7)	129 (79.1)	174 (92.6)	133 (85.8)	291 (81.1)	240 (78.4)	531 (79.8)
미정	13 (12.6)	4 (5.4)	15 (11.9)	6 (9.8)	4 (7.7)	11 (19.6)	18 (22.0)	9 (8.7)		43 (27.0)	17 (10.4)	10 (5.3)	10 (6.5)	36 (10.0)	44 (14.4)	80 (12.0)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4) 대학생활 중 교수에게 바라는 점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대학생활 중 교수에게 바라는 점은 [그림 3-1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응답 재학생의 35.5%가 진로(취업)지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박한 지식 전달(15.8%), 높은 학점(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대학생활 중 교수에게 바라는 점

단과대학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3-13 참조>). 생명자원과학대학(25.0%), 인문대학(39.8%), 자연과학대학(43.9%), 사범대학(32.8%), 해양과학대학(39.3%), 경상대학(42.1%), 공과대학(26.0%), 법정대학(31.1%)이 진로(취업)지도를 대학생활 중 교수에게 바라는 점으로 나타났고, 의과대학(42.9%)은 해박한 지식전달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30.2%), 2학년(36.8%), 3학년(34.0%), 4학년(41.3%) 모두 진로(취업지도)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33.1%가 진로(취업지도)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도 38.2%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진로(취업지도)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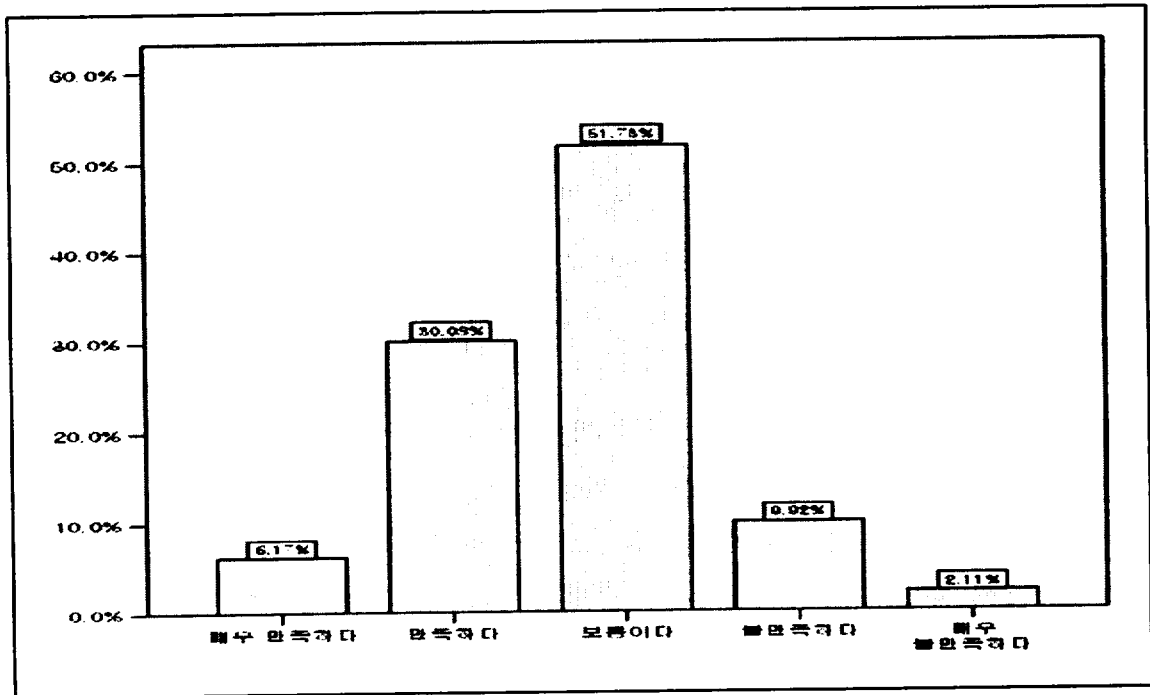
<표 3-13> 대학생활 중 교수에게 바라는 점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활 발 한 사 회 활 동	3 (2.9)	3 (4.1)	3 (2.4)	1 (1.6)	2 (3.8)		1 (1.2)	1 (1.0)		2 (1.3)	3 (1.8)	5 (2.7)	4 (2.6)	8 (2.2)	6 (2.0)	14 (2.1)
해 박 한 지 식 전 달	20 (19.4)	9 (12.2)	21 (16.7)	8 (13.1)	11 (21.2)	6 (10.7)	5 (6.1)	22 (21.2)	3 (42.9)	17 (10.7)	22 (13.5)	38 (20.2)	28 (18.1)	46 (12.8)	59 (19.3)	105 (15.8)
학 생 에 대 한 이 해	9 (8.7)	6 (8.1)	3 (2.4)	14 (23.0)	4 (7.7)	5 (8.9)	12 (14.6)	15 (14.4)		18 (11.3)	15 (9.2)	22 (11.7)	13 (8.4)	36 (10.0)	32 (10.5)	68 (10.2)
진 로(취업) 지 도	41 (39.8)	23 (31.1)	53 (42.1)	20 (32.8)	13 (25.0)	22 (39.3)	36 (43.9)	27 (26.0)	1 (14.3)	48 (30.2)	60 (36.8)	64 (34.0)	64 (41.3)	119 (33.1)	117 (38.2)	236 (35.5)
인 생 관 에 대 한 조 언	7 (6.8)	8 (10.8)	11 (8.7)	6 (9.8)	3 (5.8)	8 (14.3)	5 (6.1)	12 (11.5)	1 (14.3)	19 (11.9)	17 (10.4)	18 (9.6)	7 (4.5)	44 (12.3)	17 (5.6)	61 (9.2)
인 간 적 인 유 대 관 계	9 (8.7)	11 (14.9)	12 (9.5)	5 (8.2)	5 (9.6)	4 (7.1)	5 (6.1)	12 (11.5)	1 (14.3)	15 (9.4)	22 (13.5)	12 (6.4)	15 (9.7)	45 (12.5)	19 (6.2)	64 (9.6)
연 구 하 는 교 수	2 (1.9)	2 (2.7)	6 (4.8)	2 (3.3)	7 (13.5)	1 (1.8)	4 (4.9)	5 (4.8)		8 (5.0)	3 (1.8)	11 (5.9)	7 (4.5)	15 (4.2)	14 (4.6)	29 (4.4)
높 은 점	9 (8.7)	10 (13.5)	17 (13.5)	4 (6.6)	5 (9.6)	10 (17.9)	13 (15.9)	10 (9.6)	1 (14.3)	32 (20.1)	17 (10.4)	15 (8.0)	15 (9.7)	43 (12.0)	36 (11.8)	79 (11.9)
기 타	3 (2.9)	2 (2.7)		1 (1.6)	2 (3.8)		1 (1.2)				4 (2.5)	3 (1.6)	2 (1.3)	3 (0.8)	6 (2.0)	9 (1.4)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5) 현재 수업중인 교수에 대한 만족도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현재 수업중인 교수에 대한 만족도는 [그림 3-1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4]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36.3%의 학생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만족은 12.0%로 나타났다.



[그림 3-14] 현재 수업중인 교수에 대한 만족도

단과대학별로는 <표 3-14>와 같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범대학(50.9%), 자연과학대학(46.4%), 의과대학(42.9%), 해양과학대학(41.1%) 등의 순으로 나타나 현재 수업중인 교수에 대한 만족도는 사범대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경상대학은 22.2%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업중인 교수에 대한 만족도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 29.6%, 2학년 41.7%, 3학년 33.0%, 4학년 41.3%로 나타나 2, 4학년이 가장 만족도가 높고, 1학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39.2%, 여학생은 32.7%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만족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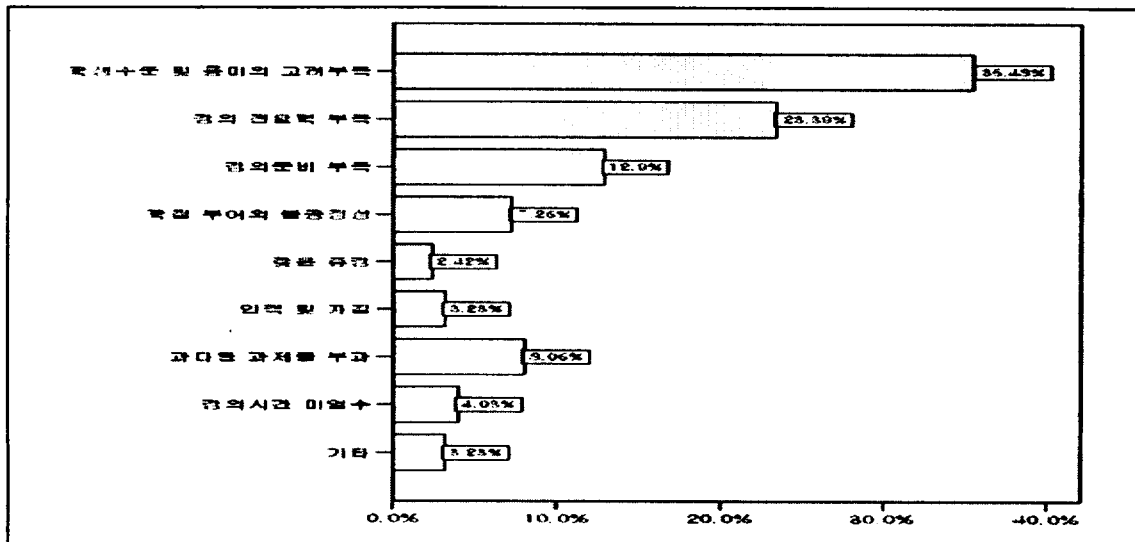
<표 3-14> 현재 수업중인 교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대학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매우족	8 (7.8)	3 (4.1)	1 (0.8)	4 (6.6)	4 (7.7)	6 (10.7)	8 (9.8)	7 (6.7)		10 (6.3)	11 (6.7)	13 (6.9)	7 (4.5)	26 (7.2)	15 (4.9)	41 (6.2)
만족	28 (27.2)	22 (29.7)	27 (21.4)	27 (44.3)	15 (28.8)	17 (30.4)	30 (36.6)	31 (29.8)	3 (4.9)	37 (23.3)	57 (35.0)	49 (26.1)	57 (36.8)	115 (32.0)	85 (27.8)	200 (30.1)
보통	52 (50.5)	40 (54.1)	83 (65.9)	26 (42.6)	27 (51.9)	24 (42.9)	38 (46.3)	50 (48.1)	4 (5.7)	88 (55.3)	75 (46.0)	104 (55.3)	77 (49.7)	172 (47.9)	172 (56.2)	344 (51.7)
불만족	14 (13.6)	8 (10.8)	12 (9.5)	3 (4.9)	4 (7.7)	7 (12.5)	4 (4.9)	14 (13.5)		20 (12.6)	15 (9.2)	18 (9.6)	13 (8.4)	35 (9.7)	31 (10.1)	66 (9.9)
매우불만족	1 (1.0)	1 (1.4)	3 (2.4)	1 (1.6)	2 (3.8)	2 (3.6)	2 (2.4)	2 (1.9)		4 (2.5)	5 (3.1)	4 (2.1)	1 (0.6)	11 (3.1)	3 (1.0)	14 (2.1)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6) 현재 수업중인 교수에 대한 불만족 이유(5번의 불만족 응답자만)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현재 수업중인 교수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그림 3-15]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학생수준 및 흥미의 고려 부족(35.5%), 강의 전달력 부족(23.39%), 강의준비 부족(12.1%) 등의 순으로 불만족 이유가 나타났다.



[그림 3-15] 현재 수업중인 교수에 대한 불만족 이유

단과대학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상대학(43.5%), 공과대학(48.0%), 해양과학대학(40.0%)은 학생수준 및 흥미의 고려 부족을 가장 불만족한 이유로 꼽았으나, 사범대학(33.3%), 인문대학(38.9%)은 강의 전달력 부족을, 생명자원과학대학(50.0%)은 강의준비 부족을 불만족 이유로 들었다. 한편 자연과학대학(30.0%)과 법정대학(28.6%)은 학생 수준 및 흥미의 고려 부족과 강의 전달력 부족 두 가지로 나타났다.

현재 수업중인 교수에 대한 불만족 이유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41.2%), 2학년(35.7%), 4학년(29.6%)은 학생수준 및 흥미의 고려 부족을, 3학년(40.0%)은 강의 전달력 부족을 가장 큰 불만족 이유로 꼽았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학생수준 및 흥미의 고려 부족(39.2%)을, 여학생의 경우 강의 전달력 부족(34.0%)을 가장 큰 불만족 이유로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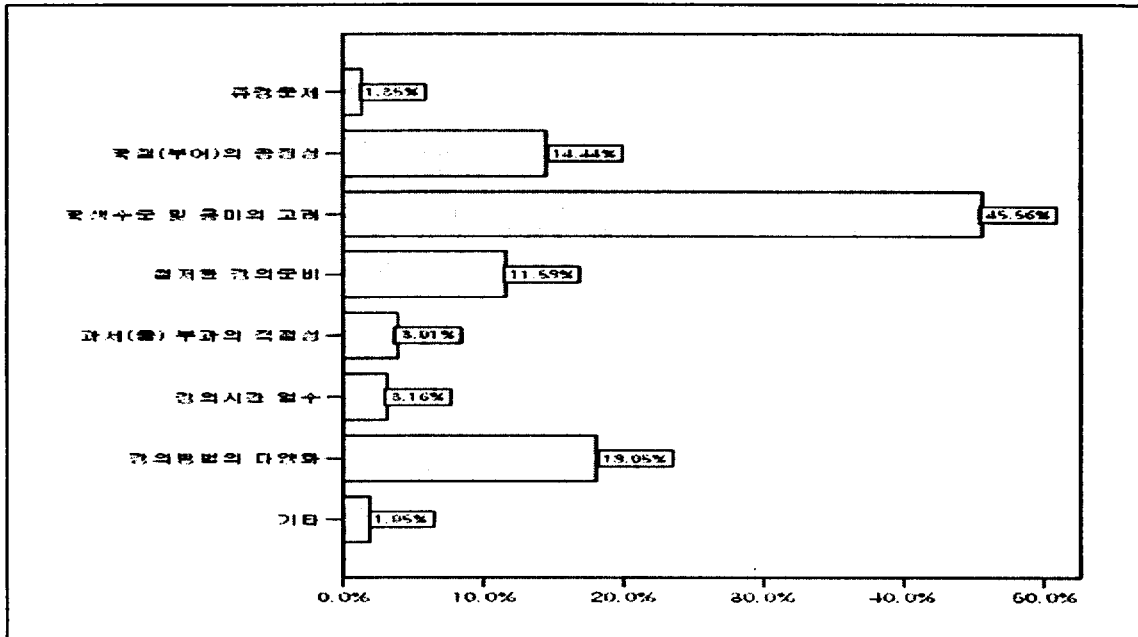
<표 3-15> 현재 수업중인 교수에 대한 불만족 이유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1	2	3	4	남	여	
학생수준 및 흥미 고려 부족	5 (27.8)	4 (28.6)	10 (43.5)	2 (22.2)	2 (20.0)	6 (40.0)	3 (30.0)	12 (48.0)	14 (41.2)	10 (35.7)	12 (34.3)	8 (29.6)	29 (39.2)	15 (30.0)	44 (35.5)
강의전달력 부족	7 (38.9)	4 (28.6)	8 (34.8)	3 (33.3)		1 (6.7)	3 (30.0)	3 (12.0)	4 (11.8)	6 (21.4)	14 (40.0)	5 (18.5)	12 (16.2)	17 (34.0)	29 (23.4)
강의준비 부족	3 (16.7)	3 (21.4)	1 (4.3)	1 (11.1)	5 (50.0)		1 (10.0)	2 (8.0)	2 (5.9)	3 (10.7)	5 (14.3)	6 (22.2)	10 (13.5)	6 (12.0)	16 (12.9)
학점부여의 불공정성	1 (5.6)	1 (7.1)	1 (4.3)	1 (11.1)		3 (20.0)		2 (8.0)	4 (11.8)	1 (3.6)	1 (2.9)	3 (11.1)	5 (6.8)	4 (8.0)	9 (7.3)
잡은 휴강		1 (7.1)			1 (10.0)			1 (4.0)	1 (2.9)	2 (7.1)			3 (4.1)		3 (2.4)
인격 및 자 질			2 (8.7)			1 (6.7)	1 (10.0)		2 (5.9)			2 (7.4)	2 (2.7)	2 (4.0)	4 (3.2)
과 다 한 과 제 물 부 과	1 (5.6)		1 (4.3)	1 (11.1)		3 (20.0)	2 (20.0)	2 (8.0)	4 (11.8)	4 (14.3)		2 (7.4)	8 (10.8)	2 (4.0)	10 (8.1)
강의시간 미 업 수	1 (5.6)					1 (6.7)		3 (12.0)	2 (5.9)	2 (7.1)		1 (3.7)	3 (4.1)	2 (4.0)	5 (4.0)
기 타		1 (7.1)		1 (11.1)	2 (20.0)				1 (2.9)		3 (8.6)		2 (2.7)	2 (4.0)	4 (3.2)
계	18 (100)	14 (100)	23 (100)	9 (100)	10 (100)	15 (100)	10 (100)	25 (100)	34 (100)	28 (100)	35 (100)	27 (100)	74 (100)	50 (100)	124 (100)

7) 대학수업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2007학년도 대학수업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그림 3-1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6]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학생수준 및 흥미의 고려 부족(45.6%), 강의방법 다양화(18.1%), 학점(부여)의 공정성(14.4%), 철저한 강의준비(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 수업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표 3-16> 처럼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과대학(43.3%), 경상대학(50.8%), 자연과학대학(47.6%), 생명자원과학대학(40.4%), 법정대학(44.6%), 인문대학(51.5%), 사범대학(39.3%), 해양과학대학(39.3%)에서는 우선적으로 학생수준 및 흥미의 고려 부족을 대학수업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꼽았고, 의과대학만 강의방법의 다양화(42.9%)로 나타났다.

대학수업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47.8%), 2학년(52.8%), 3학년(40.4%), 4학년(41.9%) 모두 대학수업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우선적으로 학생수준 및 흥미의 고려 부족으로 꼽았다.

대학수업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47.6%)과 여학생(43.1%) 모두 학생수준 및 흥미의 고려 부족으로 꼽고 있다.

<표 3-16> 수업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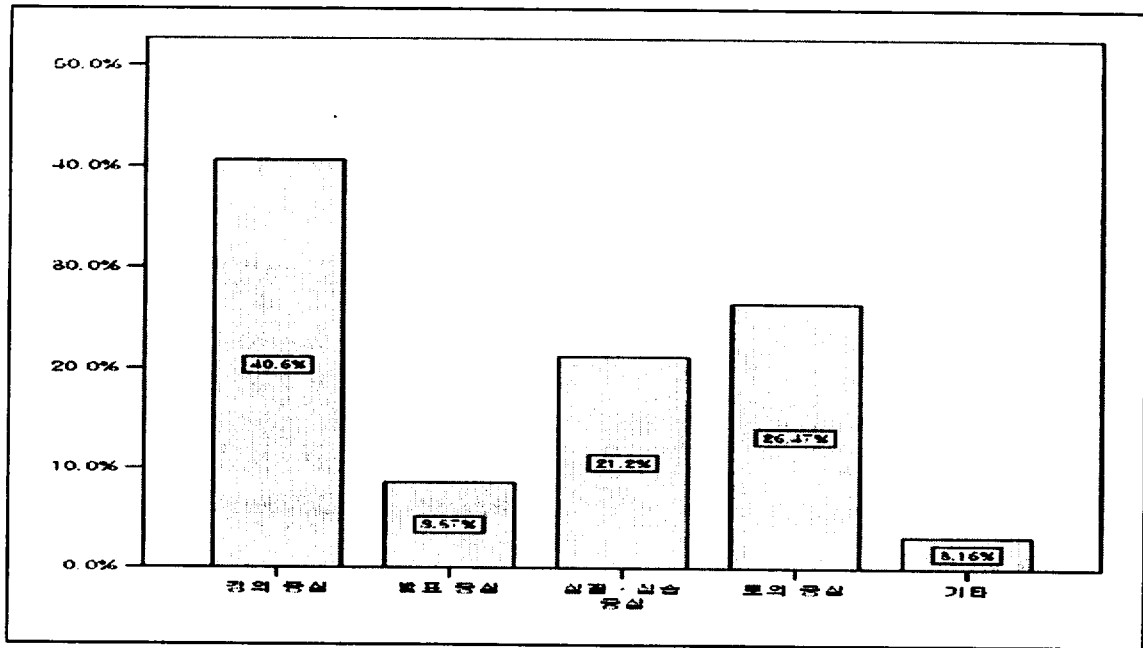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휴문 강제	1 (1.0)	1 (1.4)			3 (5.8)	2 (3.6)	2 (2.4)			6 (3.8)		2 (1.1)	1 (0.6)	7 (1.9)	2 (0.7)	9 (1.4)
학(부)점(여)의의성	16 (15.5)	9 (12.2)	17 (13.5)	7 (11.5)	7 (13.5)	15 (26.8)	17 (20.7)	8 (7.7)		23 (14.5)	22 (13.5)	30 (16.0)	21 (13.5)	44 (12.3)	52 (17.0)	96 (14.4)
학생수준의미	53 (51.5)	33 (44.6)	64 (50.8)	24 (39.3)	21 (40.4)	22 (39.3)	39 (47.6)	45 (43.3)	2 (28.6)	76 (47.8)	86 (52.8)	76 (40.4)	65 (41.9)	171 (47.6)	132 (43.1)	303 (45.6)
철저한 강의준비	11 (10.7)	9 (12.2)	14 (11.1)	9 (14.8)	8 (15.4)	3 (5.4)	5 (6.1)	17 (16.3)	1 (14.3)	15 (9.4)	13 (8.0)	23 (12.2)	26 (16.8)	42 (11.7)	35 (11.4)	77 (11.6)
과제(물)부과의적절성	6 (5.8)	3 (4.1)		3 (4.9)	2 (3.8)	4 (7.1)	3 (3.7)	5 (4.8)		11 (6.9)	4 (2.5)	7 (3.7)	4 (2.6)	15 (4.2)	11 (3.6)	26 (3.9)
강의시간수		1 (1.4)	3 (2.4)	2 (3.3)	1 (1.9)	4 (7.1)	2 (2.4)	7 (6.7)	1 (14.3)	7 (4.4)	6 (3.7)	4 (2.1)	4 (2.6)	16 (4.5)	5 (1.6)	21 (3.2)
강의방법다양화	15 (14.6)	18 (24.3)	26 (20.6)	13 (21.3)	8 (15.4)	6 (10.7)	12 (14.6)	19 (18.3)	3 (42.9)	19 (11.9)	26 (16.0)	42 (22.3)	33 (21.3)	59 (16.4)	61 (19.9)	120 (18.0)
기 타	1 (1.0)		2 (1.6)	3 (4.9)	2 (3.8)		2 (2.4)	3 (2.9)		2 (1.3)	6 (3.7)	4 (2.1)	1 (0.6)	5 (1.4)	8 (2.6)	13 (2.0)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8) 원하는 강의형태

2007학년도 재학생들이 원하는 강의형태는 [그림 3-17]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7]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강의중심 강의(40.6%), 토의중심 강의(26.47%), 실험·실습 중심 강의(21.2%), 발표중심 강의(8.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이 원하는 강의형태는 <표 3-17>에 나타난 것 처럼 단과대학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의과대학(42.9%), 자연과학대학(45.1%), 생명자원과학대학(34.6%), 사범대학(55.7%), 경상대학(45.2%), 인문대학(43.7%), 해양과학대학(33.9%) 등은 강의중심 강의를 선호하며, 공과대학(37.5%)은 실험·실습중심의 강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정대학(37.8%)는 토의중심 강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이 원하는 강의형태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44.0%), 2학년(39.3%), 3학년(45.7%), 4학년(32.3%) 모두 강의중심 강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 원하는 강의형태

재학생들이 원하는 강의형태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37.0%)과 여학생(44.8%) 모두 강의중심 강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원하는 강의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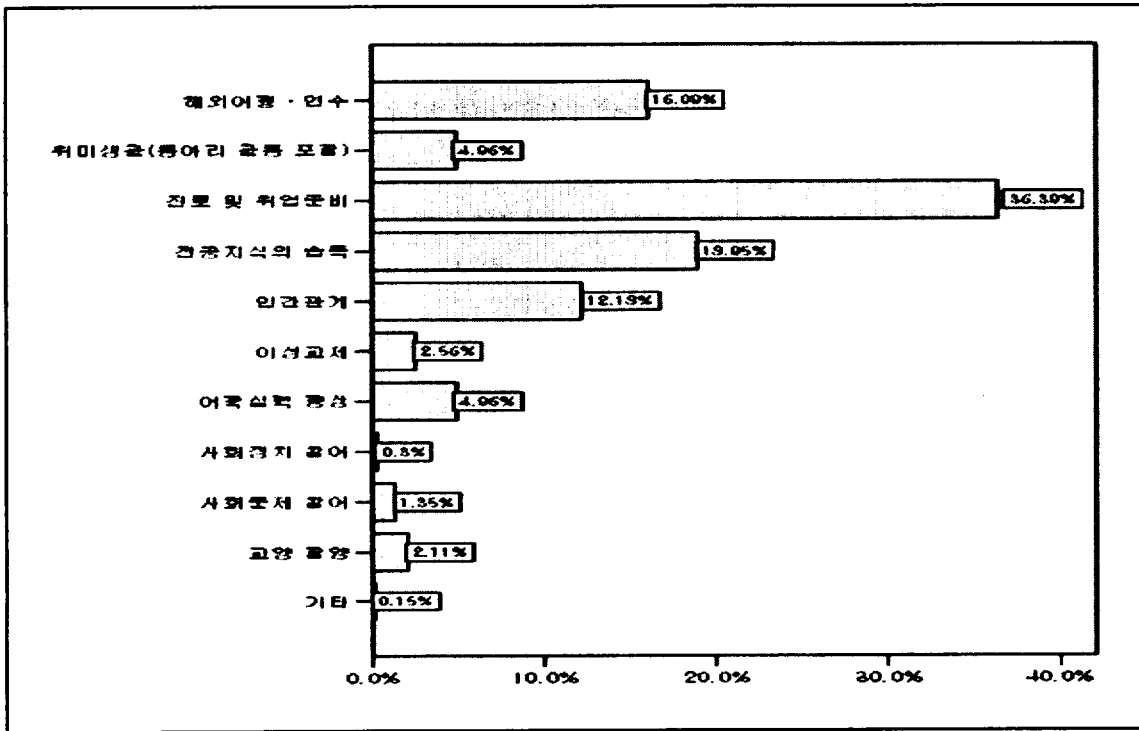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대학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강의 중심	45 (43.7)	27 (36.5)	57 (45.2)	34 (55.7)	18 (34.6)	19 (33.9)	37 (45.1)	30 (28.8)	3 (42.9)	70 (44.0)	64 (39.3)	86 (45.7)	50 (32.3)	133 (37.0)	137 (44.8)	270 (40.6)
발표 중심	10 (9.7)	8 (10.8)	16 (12.7)	3 (4.9)	4 (7.7)	7 (12.5)	2 (2.4)	7 (6.7)		11 (6.9)	11 (6.7)	13 (6.9)	22 (14.2)	31 (8.6)	26 (8.5)	57 (8.6)
실험·실습 중심	18 (17.5)	10 (13.5)	14 (11.1)	3 (4.9)	14 (26.9)	16 (28.6)	26 (31.7)	39 (37.5)	1 (14.3)	39 (24.5)	31 (19.0)	36 (19.1)	35 (22.6)	74 (20.6)	67 (21.9)	141 (21.2)
토의 중심	23 (22.3)	28 (37.8)	38 (30.2)	18 (29.5)	14 (26.9)	13 (23.2)	15 (18.3)	26 (25.0)	1 (14.3)	36 (22.6)	50 (30.7)	48 (25.5)	42 (27.1)	111 (30.9)	65 (21.2)	176 (26.5)
기타	7 (6.8)	1 (1.4)	1 (0.8)	3 (4.9)	2 (3.8)	1 (1.8)	2 (2.4)	2 (1.9)	2 (28.6)	3 (1.9)	7 (4.3)	5 (2.7)	6 (3.9)	10 (2.8)	11 (3.6)	21 (3.2)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4. 개인생활·가치관 관련

1)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2007학년도 재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그림 3-18]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8]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진로 및 취업준비(36.4%), 전공지식의 습득(19%), 해외여행·연수(16.1%), 인간관계(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8]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2007학년도 단과대학별로 재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살펴보면 <표 3-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범대학(39.3%), 인문대학(33.0%), 경상대학(36.5%), 공과대학(33.7%), 법정대학(47.3%), 해양과학대학(37.5%), 자연과학대학(42.7%), 생명자원과학대학(23.1%) 모두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진로 및 취업준비라고 하였고, 의과대학만이 어학실력 향상(28.6%), 전공지식의 습득(28.6%), 해외여행·연수(28.6%)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37.1%), 2학년(35.0%), 3학년(35.6%), 4학년(38.1%) 모두 진로 및 취업준비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35.4%)과 여학생(37.6%) 모두 비슷하게 진로 및 취업준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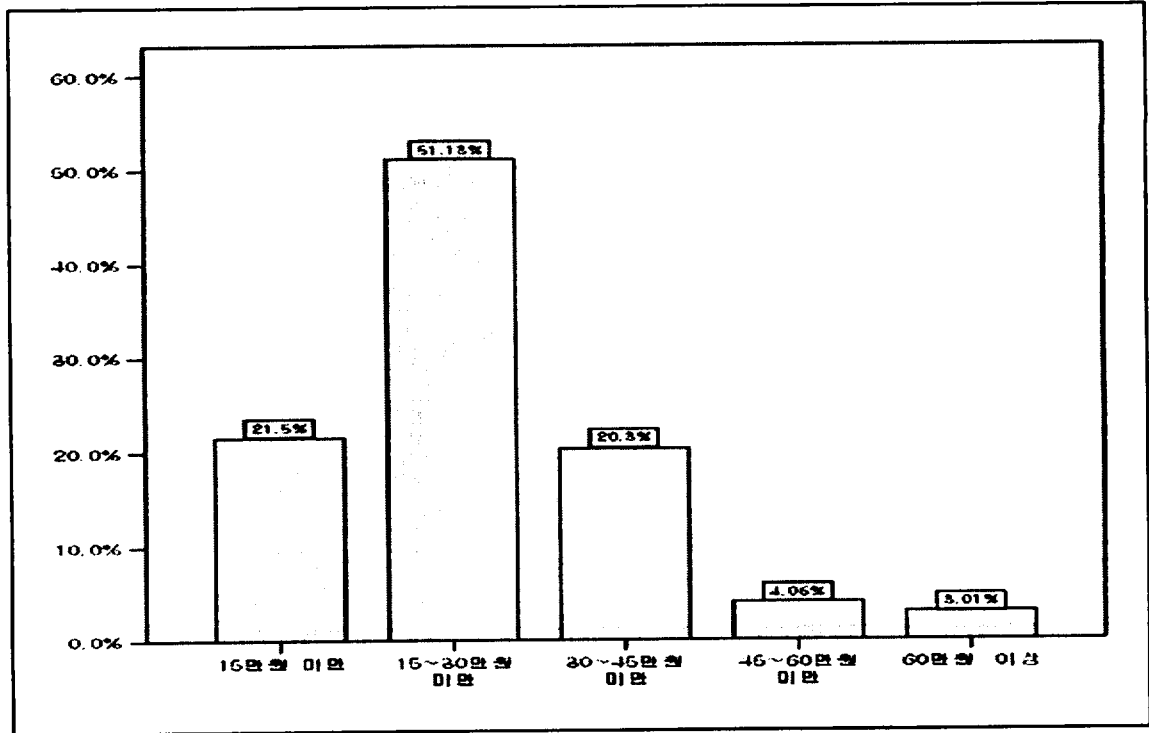
<표 3-18> 대학생활에서 가장하고 싶은 일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해외여행·연 수	24 (23.3)	12 (16.2)	23 (18.3)	10 (16.4)	7 (13.5)	4 (7.1)	12 (14.6)	13 (12.5)	2 (28.6)	22 (13.8)	27 (16.6)	35 (18.6)	23 (14.8)	41 (11.4)	66 (21.6)	107 (16.1)
취미생활 (동아리 활동 포함)	3 (2.9)		8 (6.3)	1 (1.6)	2 (3.8)	7 (12.5)	6 (7.3)	6 (5.8)		11 (6.9)	4 (2.5)	10 (5.3)	8 (5.2)	22 (6.1)	11 (3.6)	33 (5.0)
진로 및 취업준비	34 (33.0)	35 (47.3)	46 (36.5)	24 (39.3)	12 (23.1)	21 (37.5)	35 (42.7)	35 (33.7)		59 (37.1)	57 (35.0)	67 (35.6)	59 (38.1)	127 (35.4)	115 (37.6)	242 (36.4)
전공 지식 의 습득	16 (15.5)	10 (13.5)	20 (15.9)	9 (14.8)	10 (19.2)	10 (17.9)	15 (18.3)	34 (32.7)	2 (28.6)	32 (20.1)	27 (16.6)	39 (20.7)	28 (18.1)	77 (21.4)	49 (16.0)	126 (18.9)
인간관계	13 (12.6)	9 (12.2)	15 (11.9)	8 (13.1)	10 (19.2)	6 (10.7)	10 (12.2)	9 (8.7)	1 (14.3)	22 (13.8)	20 (12.3)	24 (12.8)	15 (9.7)	47 (13.1)	34 (11.1)	81 (12.2)
이성교제	3 (2.9)	1 (1.4)	6 (4.8)	3 (4.9)	1 (1.9)	1 (1.8)	1 (1.2)	1 (1.0)		4 (2.5)	5 (3.1)	2 (1.1)	6 (3.9)	12 (3.3)	5 (1.6)	17 (2.6)
어학실력 향 상	3 (2.9)	3 (4.1)	8 (6.3)	2 (3.3)	7 (13.5)	4 (7.1)	3 (3.7)	1 (1.0)	2 (28.6)	4 (2.5)	14 (8.6)	6 (3.2)	9 (5.8)	19 (5.3)	14 (4.6)	33 (5.0)
사회정치 참 여								2 (1.9)		1 (0.6)		1 (0.5)		2 (0.6)		2 (0.3)
사회문제 참 여	4 (3.9)	1 (1.4)		1 (1.6)		2 (3.6)		1 (1.0)		2 (1.3)	4 (2.5)		3 (1.9)	6 (1.7)	3 (1.0)	9 (1.4)
교 양 함 양	3 (2.9)	3 (4.1)		3 (4.9)	2 (3.8)	1 (1.8)		2 (1.9)		2 (1.3)	5 (3.1)	3 (1.6)	4 (2.6)	6 (1.7)	8 (2.6)	14 (2.1)
기 타					1 (1.9)							1 (0.5)			1 (0.3)	1 (0.2)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2) 한달 용돈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한달 용돈은 [그림 3-19]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9]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응답 재학생의 15만원~30만원미만(51.1%), 15만원미만(21.5%), 30만원~45만원미만(2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9] 한달 용돈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한달 용돈을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표 3-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정대학(62.2%), 의과대학(57.1%), 해양과학대학(53.6%), 공과대학(51.9%), 인문대학(51.5%), 사범대학(50.8%), 자연과학대학(50.0%), 경상대학(47.6%), 생명자원과학대학(40.4%)의 순으로 15만원~30만원미만의 용돈을 받는다고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한달 용돈을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45.9%), 2학년(51.5%), 3학년(52.1%), 4학년(54.8%) 모두 15만원~30만원미만의 용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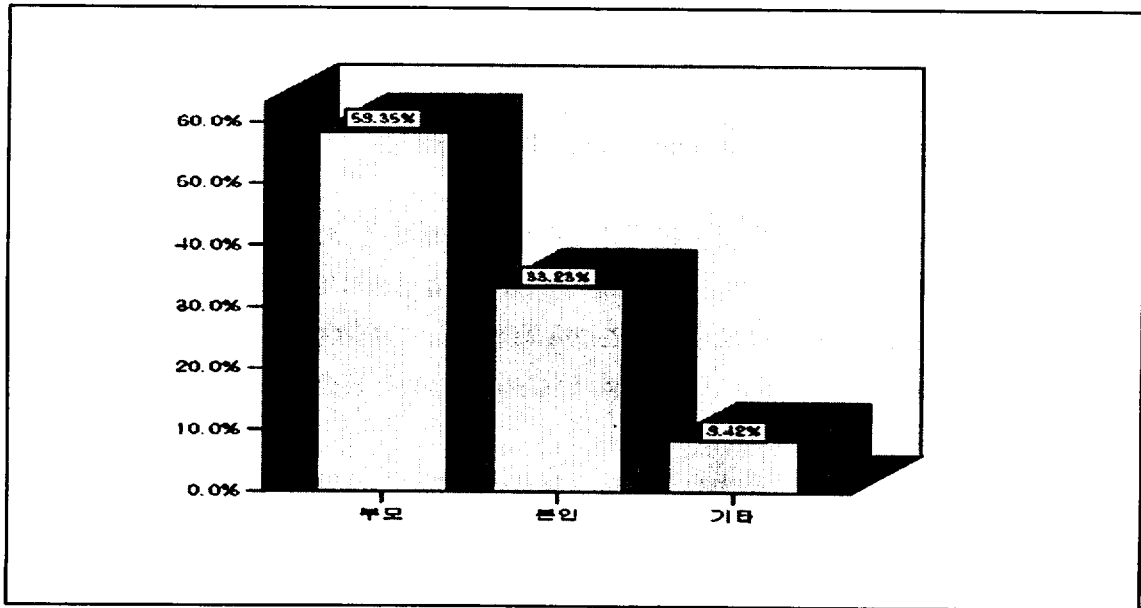
재학생들이 한달 용돈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49.0%)과 여학생(53.6%)가 모두 15만원~30만원미만의 용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한달 용돈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15만원 미 만	29 (28.2)	16 (21.6)	19 (15.1)	10 (16.4)	10 (19.2)	13 (23.2)	19 (23.2)	27 (26.0)		46 (28.9)	36 (22.1)	37 (19.7)	24 (15.5)	77 (21.4)	66 (21.6)	143 (21.5)
15~30만원 미 만	53 (51.5)	46 (62.2)	60 (47.6)	31 (50.8)	21 (40.4)	30 (53.6)	41 (50.0)	54 (51.9)	4 (57.1)	73 (45.9)	84 (51.5)	98 (52.1)	85 (54.8)	176 (49.0)	164 (53.6)	340 (51.1)
30~45만원 미 만	15 (14.6)	8 (10.8)	37 (29.4)	12 (19.7)	13 (25.0)	7 (12.5)	20 (24.4)	20 (19.2)	3 (42.9)	32 (20.1)	30 (18.4)	39 (20.7)	34 (21.9)	73 (20.3)	62 (20.3)	135 (20.3)
45~60만원 미 만	5 (4.9)	2 (2.7)	6 (4.8)	5 (8.2)	5 (9.6)	2 (3.6)	1 (1.2)	1 (1.0)		2 (1.3)	9 (5.5)	9 (4.8)	7 (4.5)	20 (5.6)	7 (2.3)	27 (4.1)
60만원 이 상	1 (1.0)	2 (2.7)	4 (3.2)	3 (4.9)	3 (5.8)	4 (7.1)	1 (1.2)	2 (1.9)		6 (3.8)	4 (2.5)	5 (2.7)	5 (3.2)	13 (3.6)	7 (2.3)	20 (3.0)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3) 용돈 출처



[그림 3-20] 용돈 출처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용돈 출처는 [그림 3-20]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20]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응답 재학생 전체 중 용돈 출처는 부모(58.4%), 본인(3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0>에 의하면,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용돈 출처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의과대학(57.1%), 경상대학(68.3%), 해양과학대학(55.4%), 공과대학(55.8%), 생명자원과학대학(57.7%), 자연과학대학(62.2%), 법정대학(58.1%), 사범대학(50.8%), 인문대학(52.4%)은 모두 부모님에게 용돈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대학이 부모에게 용돈 의존도가 가장 높고, 사범대학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용돈 출처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62.3%), 2학년(60.7%), 3학년(57.4%), 4학년(52.9%) 모두 부모에게 용돈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56.3%)과 여학생(60.8%) 모두 부모에게 용돈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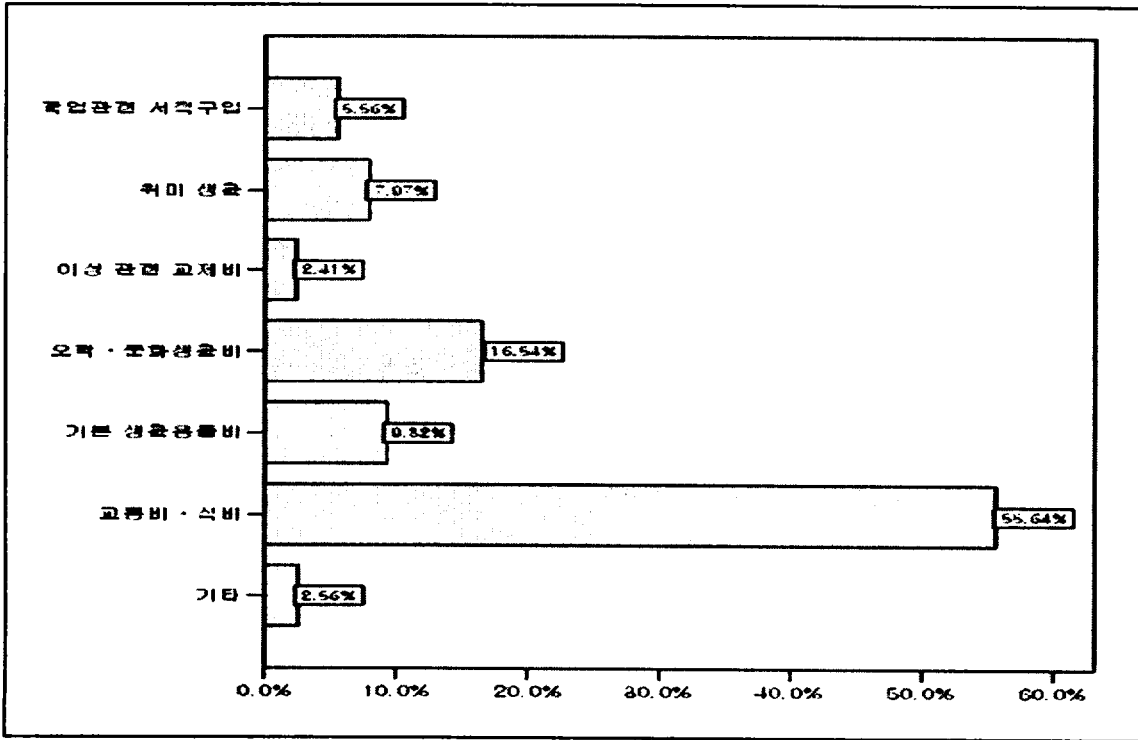
<표 3-20> 용돈 출처

<단위 : 명(%)>

구분	대학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부모	54 (52.4)	43 (58.1)	86 (68.3)	31 (50.8)	30 (57.7)	31 (55.4)	51 (62.2)	58 (55.8)	4 (57.1)	99 (62.3)	99 (60.7)	108 (57.4)	82 (52.9)	202 (56.3)	186 (60.8)	388 (58.3)
본인	39 (37.9)	27 (36.5)	32 (25.4)	22 (36.1)	15 (28.8)	20 (35.7)	25 (30.5)	40 (38.5)	1 (14.3)	50 (31.4)	51 (31.3)	63 (33.5)	57 (36.8)	132 (36.8)	89 (29.1)	221 (33.2)
기타	10 (9.7)	4 (5.4)	8 (6.3)	8 (13.1)	7 (13.5)	5 (8.9)	6 (7.3)	6 (5.8)	2 (28.6)	10 (6.3)	13 (8.0)	17 (9.0)	16 (10.3)	25 (7.0)	31 (10.1)	56 (8.4)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4) 용돈 주사용처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용돈 주사용처는 [그림 3-2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2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교통비·식비(55.6%), 오락·문화생활비(16.5%), 기본 생활용품비(9.32%), 취미생활(7.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 용돈 주사용처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용돈 주사용처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표 3-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의과대학(57.1%), 자연과학대학(53.7%), 사범대학(55.7%), 법정대학(56.8%), 경상대학(56.3%), 인문대학(64.1%), 공과대학(51.9%), 해양과학대학(32.1%), 생명자원과학대학(71.2%)은 용돈의 주사용처를 교통비 및 식비로 사용한다고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용돈 주사용처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53.5%), 2학년(53.4%), 3학년(60.6%), 4학년(54.2%) 모두 교통비 및 식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49.3%)과 여학생(63.1%) 모두 교통비 및 식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용돈 주사용처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학업관련 서적구입	3 (2.9)	5 (6.8)	5 (4.0)	1 (1.6)	2 (3.8)	7 (12.5)	2 (2.4)	12 (11.5)		4 (2.5)	11 (6.7)	10 (5.3)	12 (7.7)	24 (6.7)	13 (4.2)	37 (5.6)
취미 생활	8 (7.8)	4 (5.4)	12 (9.5)	3 (4.9)	3 (5.8)	7 (12.5)	6 (7.3)	10 (9.6)		15 (9.4)	14 (8.6)	9 (4.8)	15 (9.7)	38 (10.6)	15 (4.9)	53 (8.0)
이성관련 교제비	1 (1.0)		4 (3.2)	1 (1.6)	1 (1.9)	5 (8.9)	1 (1.2)	3 (2.9)		5 (3.1)	3 (1.8)	6 (3.2)	2 (1.3)	14 (3.9)	2 (0.7)	16 (2.4)
오락 및 문화생활비	10 (9.7)	11 (14.9)	24 (19.0)	13 (21.3)	4 (7.7)	16 (28.6)	18 (22.0)	12 (11.5)	2 (28.6)	35 (22.0)	24 (14.7)	23 (12.2)	28 (18.1)	64 (17.8)	46 (15.0)	110 (16.5)
기본생활 용품비	13 (12.6)	9 (12.2)	4 (3.2)	7 (11.5)	4 (7.7)	3 (5.4)	11 (13.4)	10 (9.6)	1 (14.3)	13 (8.2)	20 (12.3)	19 (10.1)	10 (6.5)	34 (9.5)	28 (9.2)	62 (9.3)
교통비 및 식비	66 (64.1)	42 (56.8)	71 (56.3)	34 (55.7)	37 (71.2)	18 (32.1)	44 (53.7)	54 (51.9)	4 (57.1)	85 (53.5)	87 (53.4)	114 (60.6)	84 (54.2)	177 (49.3)	193 (63.1)	370 (55.6)
기 타	2 (1.9)	3 (4.1)	6 (4.8)	2 (3.3)	1 (1.9)			3 (2.9)		2 (1.3)	4 (2.5)	7 (3.7)	4 (2.6)	8 (2.2)	9 (2.9)	17 (2.6)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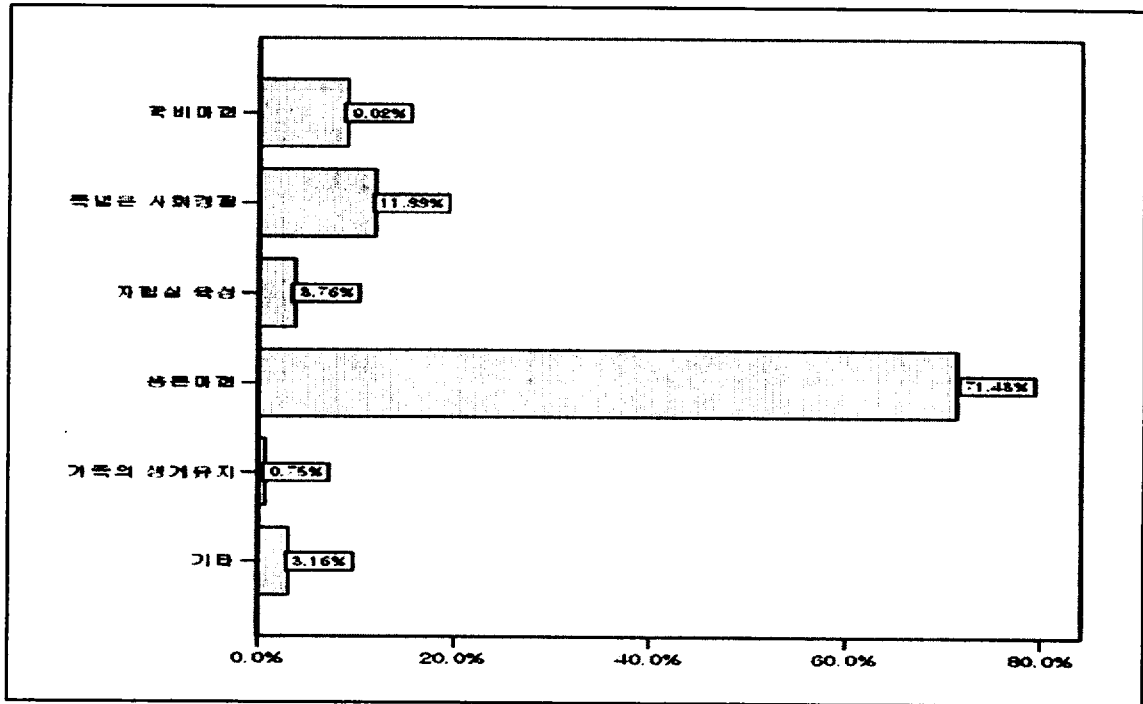
5) 아르바이트 목적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목적은 [그림 3-2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용돈 마련(71.43%), 폭넓은 사회경험(11.88%), 학비 마련(9.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목적을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응답 재학생 중 사범대학(73.8%), 의과대학(85.7%), 인문대학(81.6%), 자연과학대학(74.4%), 법정대학(78.4%), 공과대학(61.5%), 경상대학(73.0%), 해양과학대학(62.5%), 생명자원과학대학(57.7%)가 용돈 마련을 위해 일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의과대학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재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목적을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거의 비슷하게 1학년(71.1%), 2학년(76.1%), 3학년(69.1%), 4학년(69.7%) 모두 용돈 마련을 위해 일을 한다고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목적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66.9%)과 여학생(76.8%) 모두 용돈 마련을 위해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2] 아르바이트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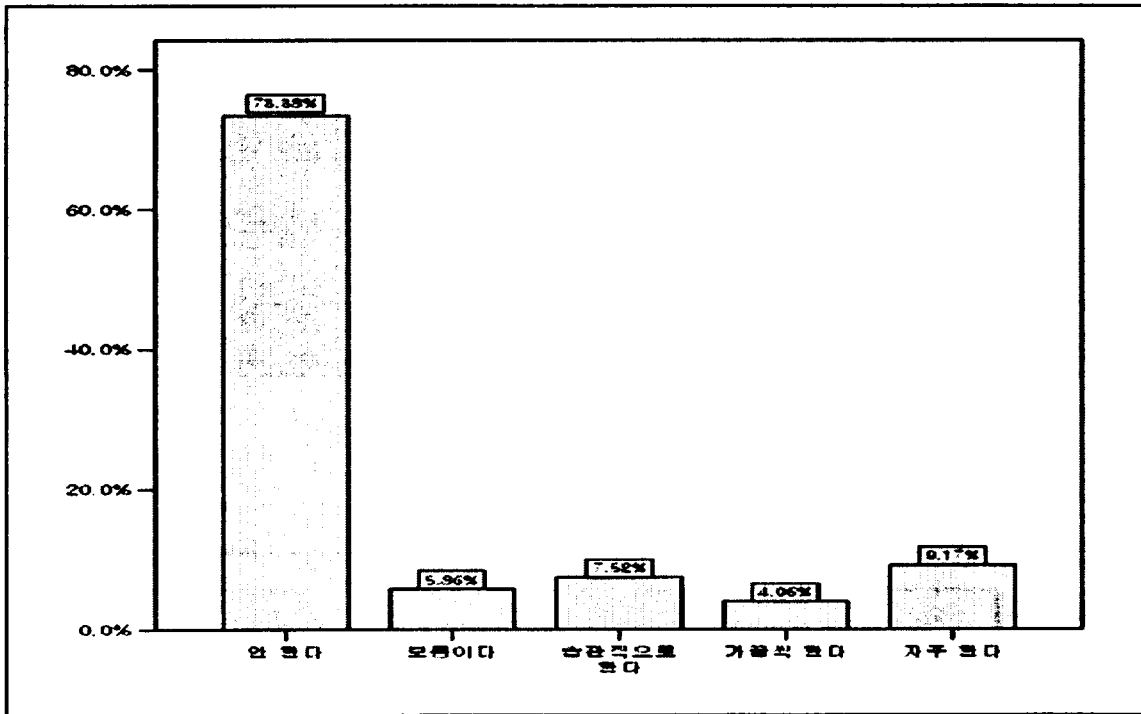
<표 3-22> 아르바이트 목적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학 비 련	7 (6.8)	5 (6.8)	8 (6.3)	5 (8.2)	4 (7.7)	9 (16.1)	6 (7.3)	16 (15.4)		14 (8.8)	10 (6.1)	19 (10.1)	17 (11.0)	45 (12.5)	15 (4.9)	60 (9.0)
폭 넓은 사회경험	10 (9.7)	6 (8.1)	16 (12.7)	5 (8.2)	8 (15.4)	9 (16.1)	9 (11.0)	15 (14.4)	1 (14.3)	18 (11.3)	17 (10.4)	26 (13.8)	18 (11.6)	43 (12.0)	36 (11.8)	79 (11.9)
자 립 심 육 성	2 (1.9)	2 (2.7)	5 (4.0)	3 (4.9)	4 (7.7)	1 (1.8)	2 (2.4)	6 (5.8)		8 (5.0)	6 (3.7)	2 (1.1)	9 (5.8)	16 (4.5)	9 (2.9)	25 (3.8)
용 돈 마 련	84 (81.6)	58 (78.4)	92 (73.0)	45 (73.8)	30 (57.7)	35 (62.5)	61 (74.4)	64 (61.5)	6 (85.7)	113 (71.1)	124 (76.1)	130 (69.1)	108 (69.7)	240 (66.9)	235 (76.8)	475 (71.4)
가 족 의 생 계 유 지		1 (1.4)		2 (3.3)	2 (3.8)					1 (0.6)	1 (0.6)	1 (0.5)	2 (1.3)	3 (0.8)	2 (0.7)	5 (0.8)
기 타		2 (2.7)	5 (4.0)	1 (1.6)	4 (7.7)	2 (3.6)	4 (4.9)	3 (2.9)		5 (3.1)	5 (3.1)	10 (5.3)	1 (0.6)	12 (3.3)	9 (2.9)	21 (3.2)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6) 흡연 여부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흡연 여부는 [그림 3-2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안한다’가 73.4%로 가장 많았고, 자주한다(9.2%), 습관적으로 한다(7.5%), 보통이다(5.9%)가끔씩 한다(4.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3] 흡연 여부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흡연 여부를 <표 3-23>에서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응답 재학생 중 사범대학(80.3%), 의과대학(85.7%), 인문대학(81.6%), 자연과학대학(80.5%), 법정대학(78.4%), 생명자원과학대학(78.8%), 공과대학(60.6%), 경상대학(70.6%), 해양과학대학(57.1%)은 흡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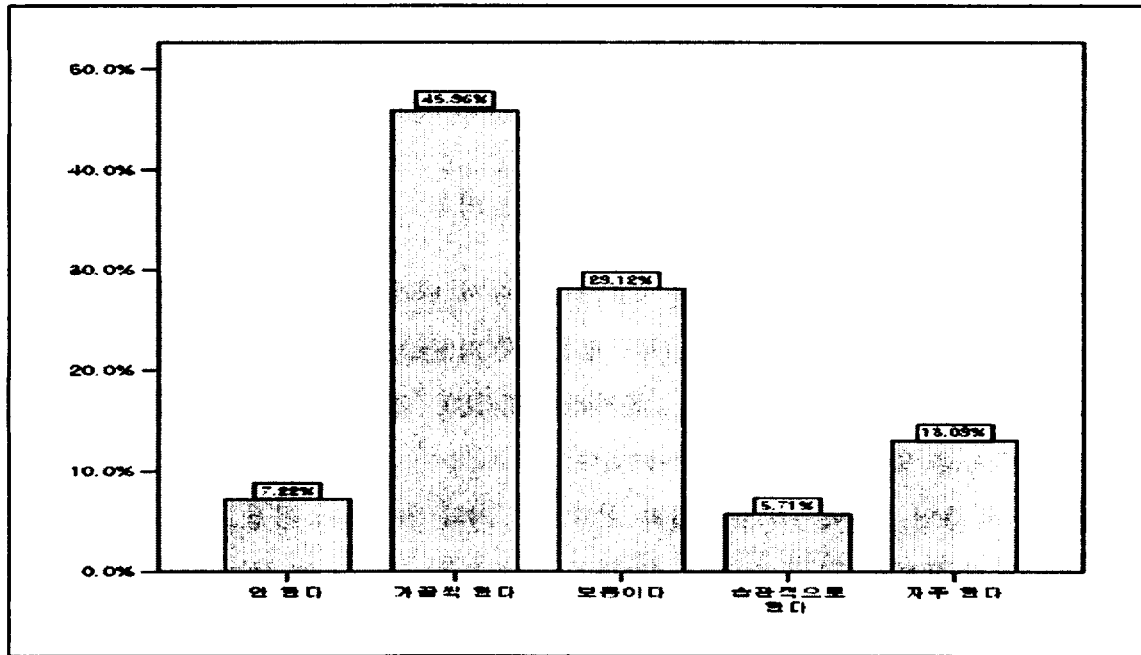
재학생들의 흡연 여부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거의 비슷하게 응답 재학생 중 1학년(75.5%), 2학년(71.8%), 3학년(78.2%), 4학년(67.1%) 모두 흡연을 안 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흡연을 안 하는 학생이 남학생(53.8%) 보다 여학생(96.4%)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흡연 여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안 함	84 (81.6)	58 (78.4)	89 (70.6)	49 (80.3)	41 (78.8)	32 (57.1)	66 (80.5)	63 (60.6)	6 (85.7)	120 (75.5)	117 (71.8)	147 (78.2)	104 (67.1)	193 (53.8)	295 (96.4)	488 (73.4)
보 통	5 (4.9)	3 (4.1)	6 (4.8)	3 (4.9)	4 (7.7)	5 (8.9)	6 (7.3)	7 (6.7)		8 (5.0)	10 (6.1)	9 (4.8)	12 (7.7)	35 (9.7)	4 (1.3)	39 (5.9)
습 관 적 으 로 합	3 (2.9)	3 (4.1)	11 (8.7)	4 (6.6)	6 (11.5)	7 (12.5)	3 (3.7)	13 (12.5)		8 (5.0)	13 (8.0)	14 (7.4)	15 (9.7)	48 (13.4)	2 (0.7)	50 (7.5)
가 끄 께 합	2 (1.9)	4 (5.4)	8 (6.3)	3 (4.9)		2 (3.6)	1 (1.2)	7 (6.7)		11 (6.9)	9 (5.5)	3 (1.6)	4 (2.6)	23 (6.4)	4 (1.3)	27 (4.1)
자 주 합	9 (8.7)	6 (8.1)	12 (9.5)	2 (3.3)	1 (1.9)	10 (17.9)	6 (7.3)	14 (13.5)	1 (14.3)	12 (7.5)	14 (8.6)	15 (8.0)	20 (12.9)	60 (16.7)	1 (0.3)	61 (9.2)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7) 음주 여부



[그림 3-24] 음주 여부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음주 여부는 [그림 3-24]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응답 재학생 중 가끔씩 한다(45.9%), 보통이다(28.1%), 자주한다(13.1%), 안한다(7.2%), 습관적으로 한다(5.7%)의 순이었다. 음주하는 학생이 92.8%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이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음주 여부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응답 재학생 중 법정대학(97.3%), 경상대학(93.7%), 공과대학(92.3%), 자연과학대학(89.0%), 해양과학대학(91.1%), 사범대학(93.4%), 의과대학(85.7%), 생명자원과학대학(96.2%), 인문대학(91.3%)은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재학생 중 법정대학 학생들의 음주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음주 여부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거의 비슷하게 4학년(94.8%), 1학년(93.1%), 2학년(92.6%), 3학년(91.0%) 순으로 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음주 여부를 성별에 따라 보면 남학생(94.2%)이 여학생(91.2%) 보다 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음주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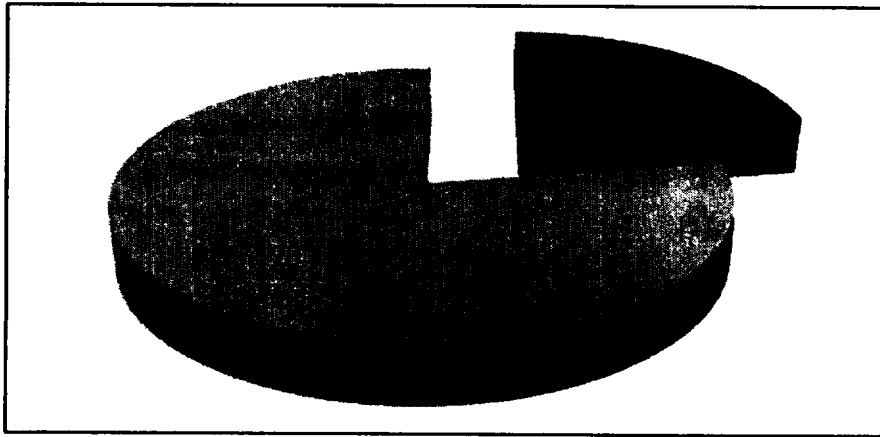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안 함	9 (8.7)	2 (2.7)	8 (6.3)	4 (6.6)	2 (3.8)	5 (8.9)	9 (11.0)	8 (7.7)	1 (14.3)	11 (6.9)	12 (7.4)	17 (9.0)	8 (5.2)	21 (5.8)	27 (8.8)	48 (7.2)
가 끔 씩 함	51 (49.5)	35 (47.3)	60 (47.6)	34 (55.7)	19 (36.5)	19 (33.9)	36 (43.9)	49 (47.1)	2 (28.6)	73 (45.9)	73 (44.8)	85 (45.2)	74 (47.7)	144 (40.1)	161 (52.6)	305 (45.9)
보 통 이 다	29 (28.2)	25 (33.8)	38 (30.2)	14 (23.0)	19 (36.5)	13 (23.2)	24 (29.3)	22 (21.2)	3 (42.9)	48 (30.2)	49 (30.1)	47 (25.0)	43 (27.7)	98 (27.3)	89 (29.1)	187 (28.1)
습 관 적 으 로 함	3 (2.9)		7 (5.6)	6 (9.8)	4 (7.7)	6 (10.7)	3 (3.7)	9 (8.7)		8 (5.0)	11 (6.7)	11 (5.9)	8 (5.2)	34 (9.5)	4 (1.3)	38 (5.7)
자 주 함	11 (10.7)	12 (16.2)	13 (10.3)	3 (4.9)	8 (15.4)	13 (23.2)	10 (12.2)	16 (15.4)	1 (14.3)	19 (11.9)	18 (11.0)	28 (14.9)	22 (14.2)	62 (17.3)	25 (8.2)	87 (13.1)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8) 이성교제 경험 유무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이성교제 경험 유무는 [그림 3-25]와 같이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이 77.6%,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학생이 22.4%로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이성교제 경험 유무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응답 재학생 중 법정대학(83.8%), 경상대학(86.5%), 공과대학(81.7%), 인문대학(72.8%), 생명자원과학대학(71.2%), 자연과학대학(76.8%), 의과대학(85.7%), 사범대학(65.6%), 해양과학대학(69.6%)이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5] 이성교제 경험 유무

재학생들의 이성교제 경험 유무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4학년(83.9%), 3학년(80.3%), 2학년(77.3%), 1학년(68.6%) 순으로 나타나 고학년일수록 이성교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78.0%)과 여학생(77.1%) 모두 높은 비율로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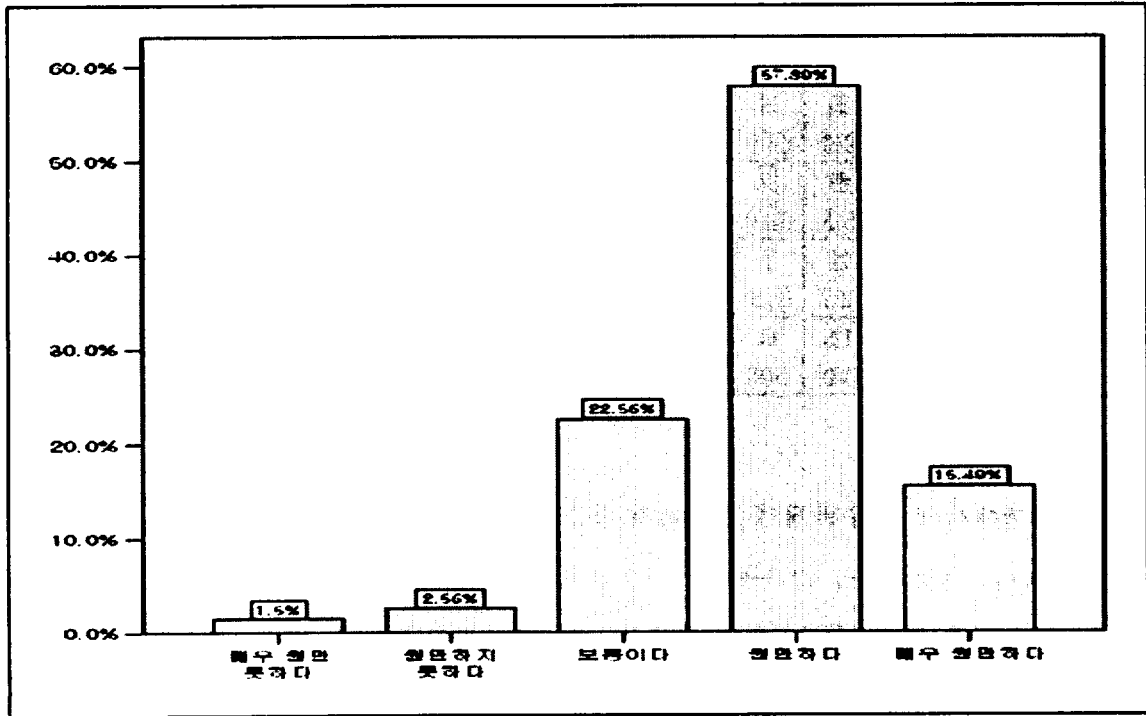
<표 3-25> 이성교제 경험 유무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없다	28 (27.2)	12 (16.2)	17 (13.5)	21 (34.4)	15 (28.8)	17 (30.4)	19 (23.2)	19 (18.3)	1 (14.3)	50 (31.4)	37 (22.7)	37 (19.7)	25 (16.1)	79 (22.0)	70 (22.9)	149 (22.4)
있다	75 (72.8)	62 (83.8)	109 (86.5)	40 (65.6)	37 (71.2)	39 (69.6)	63 (76.8)	85 (81.7)	6 (85.7)	109 (68.6)	126 (77.3)	151 (80.3)	130 (83.9)	280 (78.0)	236 (77.1)	516 (77.6)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9) 대학에서의 교우관계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대학에서의 교우관계는 [그림 3-26]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원만하다(57.9%), 보통이다(22.5%), 매우 원만하다(15.5%), 원만하지 못하다(2.6%), 매우 원만하지 못하다(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6] 대학에서의 교우관계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대학에서의 교우관계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응답 재학생 중 경상대학(54.8%), 법정대학(58.1%), 생명자원과학대학(53.8%), 의과대학(71.4%), 사범대학(60.7%), 해양과학대학(60.7%), 자연과학대학(61.0%), 공과대학(64.4%), 인문대학(50.5%)은 교우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대학에서의 교우관계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응답 재학생 중 1학년(49.7%), 2학년(58.3%), 3학년(55.9%), 4학년(68.4%)은 교우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54.6%)과 여학생(61.8%)이 교우관계가 원만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26> 대학에서의 교우관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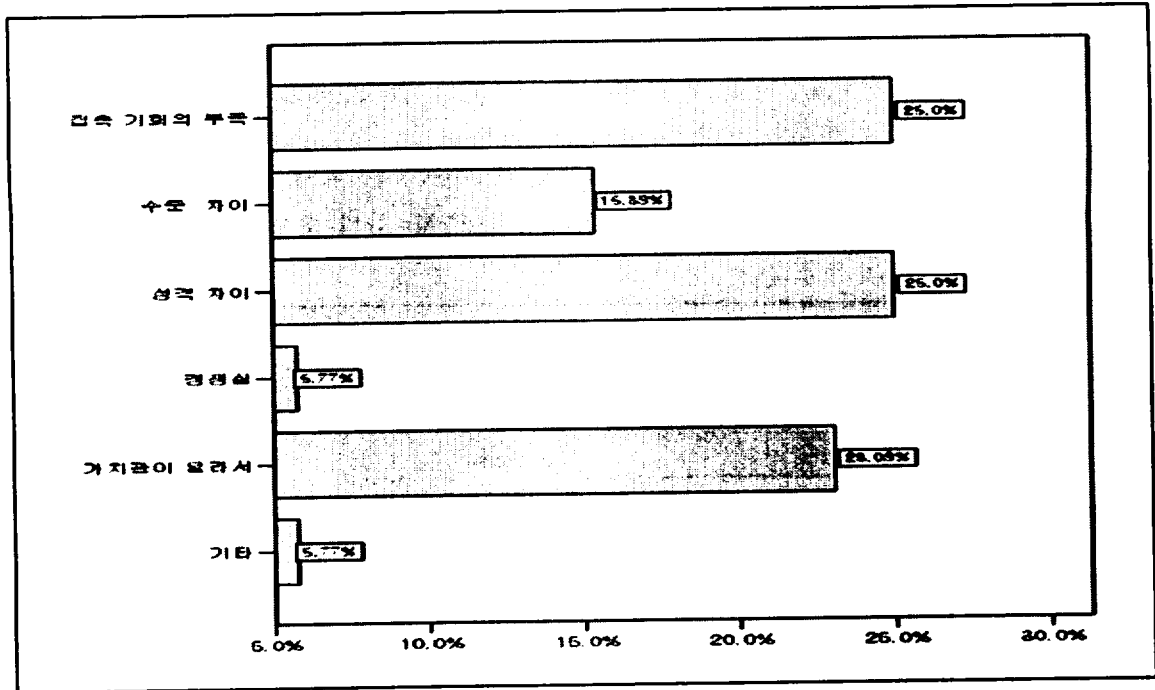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매우 원만 못 함	2 (1.9)		3 (2.4)	1 (1.6)	1 (1.9)	2 (3.6)	1 (1.2)			3 (1.9)	3 (1.8)	1 (0.5)	3 (1.9)	8 (2.2)	2 (0.7)	10 (1.5)
원만하지 못 함	2 (1.9)	3 (4.1)	4 (3.2)	3 (4.9)		1 (1.8)	3 (3.7)	1 (1.0)		7 (4.4)	1 (0.6)	7 (3.7)	2 (1.3)	12 (3.3)	5 (1.6)	17 (2.6)
보 통	27 (26.2)	18 (24.3)	29 (23.0)	13 (21.3)	11 (21.2)	12 (21.4)	22 (26.8)	16 (15.4)	2 (28.6)	42 (26.4)	41 (25.2)	43 (22.9)	24 (15.5)	79 (22.0)	71 (23.2)	150 (22.6)
원 만	52 (50.5)	43 (58.1)	69 (54.8)	37 (60.7)	28 (53.8)	34 (60.7)	50 (61.0)	67 (64.4)	5 (71.4)	79 (49.7)	95 (58.3)	105 (55.9)	106 (68.4)	196 (54.6)	189 (61.8)	385 (57.9)
매 우 원 만	20 (19.4)	10 (13.5)	21 (16.7)	7 (11.5)	12 (23.1)	7 (12.5)	6 (7.3)	20 (19.2)		28 (17.6)	23 (14.1)	32 (17.0)	20 (12.9)	64 (17.8)	39 (12.7)	103 (15.5)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10) 대학에서의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9번의 ①,② 응답자만)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대학에서의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는 [그림 3-27]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접촉기회의 부족(25.0%), 성격차이(25.0%), 가치관이 달라서(23.08%), 수준차이(15.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대학에서의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표 3-27>에 나타난 것 처럼, 응답 재학생 중 경상대학(50.0%), 공과대학(100.0%)은 접촉기회의 부족을 들었고, 법정대학(57.1%)은 가치관이 달라서를 꼽았고, 생명자원과대학은 경쟁심(50.0%)를 들었고, 해양과학대학(66.7%)은 수준차이를 들었다.

재학생들의 대학에서의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응답 재학생 중 1학년은 접촉기회의 부족(38.5%)을, 2학년은 성격차이(36.4%)를, 3학년은 가치관이 달라서(29.4%)와 접촉기회의 부족(29.4%)을, 4학년은 가치관이 달라서(27.3%)와 수준차이(27.3%)를 많이 들고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은 가치관이 달라서(28.1%)와 접촉기회의 부족(28.1%)을, 여학생은 성격차이(40.0%)를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이유로 들었다.



[그림 3-27] 대학에서의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

<표 3-27> 대학에서의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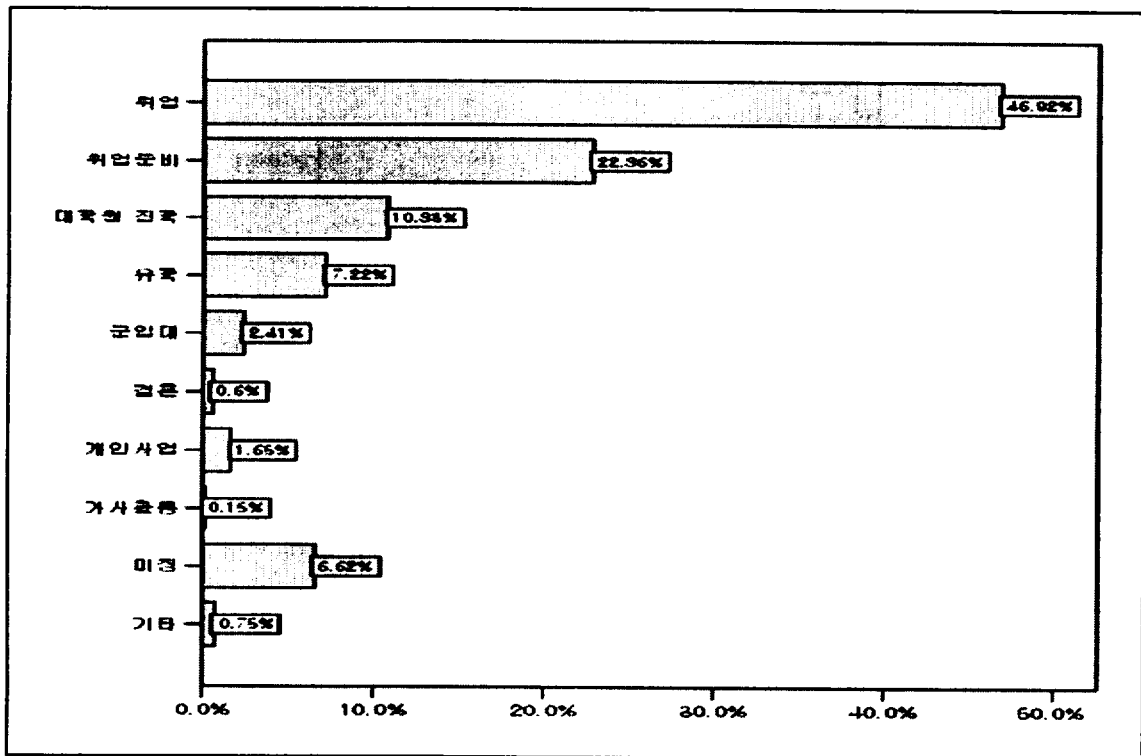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1	2	3	4	남	여	
접기회의 부족			6 (50.0)	2 (28.6)			2 (40.0)	3 (100)	5 (38.5)	2 (18.2)	5 (29.4)	1 (9.1)	9 (28.1)	4 (20.0)	13 (25.0)
수준차이	1 (12.5)		1 (8.3)		1 (25.0)	4 (66.7)	1 (20.0)		1 (7.7)	3 (27.3)	1 (5.9)	3 (27.3)	7 (21.9)	1 (5.0)	8 (15.4)
성격차이	3 (37.5)	3 (42.9)	1 (8.3)	2 (28.6)		2 (33.3)	2 (40.0)		3 (23.1)	4 (36.4)	4 (23.5)	2 (18.2)	5 (15.6)	8 (40.0)	13 (25.0)
경쟁심	1 (12.5)				2 (50.0)				1 (7.7)		1 (5.9)	1 (9.1)	1 (3.1)	2 (10.0)	3 (5.8)
가치관이 달라서	3 (37.5)	4 (57.1)	3 (25.0)	2 (28.6)					2 (15.4)	2 (18.2)	5 (29.4)	3 (27.3)	9 (28.1)	3 (15.0)	12 (23.1)
기 타			1 (8.3)	1 (14.3)	1 (25.0)				1 (7.7)		1 (5.9)	1 (9.1)	1 (3.1)	2 (10.0)	3 (5.8)
계	8 (100)	7 (100)	12 (100)	7 (100)	4 (100)	6 (100)	5 (100)	3 (100)	13 (100)	11 (100)	17 (100)	11 (100)	32 (100)	20 (100)	52 (100)

5. 취업 관련

1) 졸업 후 진로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그림 3-28]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취업 (46.9%), 취업준비(22.9%), 대학원 진학(10.8%), 유학(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8] 졸업 후 진로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응답 재학생 중 의과대학(100.0%), 사범대학(59.0%), 경상대학(54.0%), 공과대학(53.8%), 법정대학(52.7%), 생명자원과학대학(38.5%), 인문대학(37.9%), 해양과학대학(37.5%), 자연과학대학(31.7%) 등 순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걸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44.0%), 2학년(54.0%), 3학년(48.9%), 4학년(40.0%)로 취업을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성별에 따라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남학생(46.5%)과 여학생(47.4%) 모두 취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 3-28> 졸업 후 진로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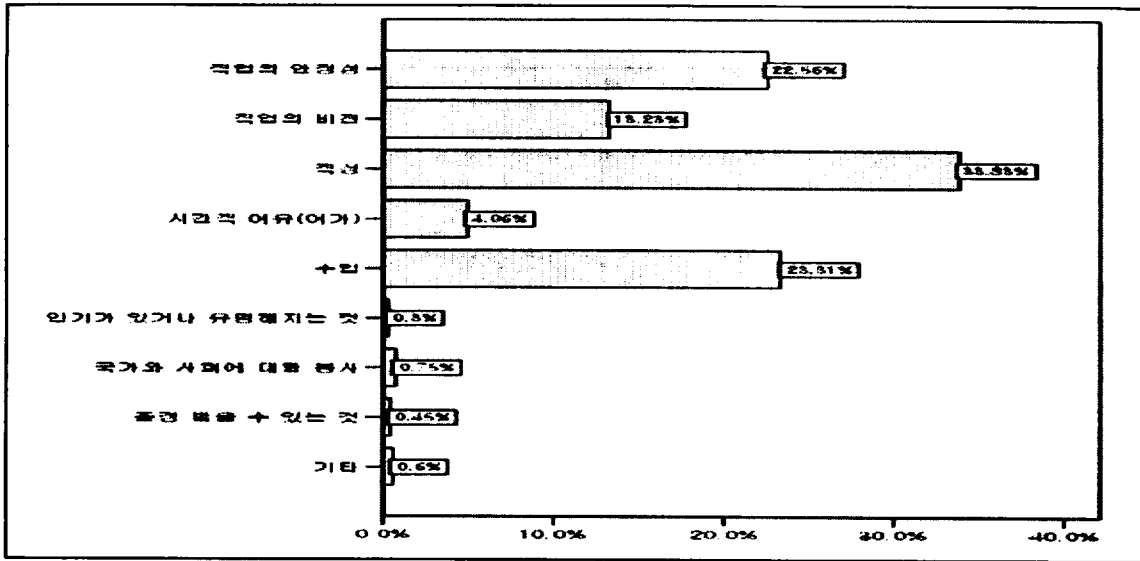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취업	39 (37.9)	39 (52.7)	68 (54.0)	36 (59.0)	20 (38.5)	21 (37.5)	26 (31.7)	56 (53.8)	7 (100)	70 (44.0)	88 (54.0)	92 (48.9)	62 (40.0)	167 (46.5)	145 (47.4)	312 (46.9)
취업준비	35 (34.0)	21 (28.4)	25 (19.8)	11 (18.0)	7 (13.5)	11 (19.6)	26 (31.7)	16 (15.4)		29 (18.2)	28 (17.2)	44 (23.4)	51 (32.9)	79 (22.0)	73 (23.9)	152 (22.9)
대학원진학	15 (14.6)	5 (6.8)	8 (6.3)	4 (6.6)	12 (23.1)	9 (16.1)	9 (11.0)	10 (9.6)		15 (9.4)	17 (10.4)	21 (11.2)	19 (12.3)	33 (9.2)	39 (12.7)	72 (10.8)
유학	3 (2.9)	5 (6.8)	11 (8.7)	3 (4.9)	1 (1.9)	11 (19.6)	4 (4.9)	10 (9.6)		19 (11.9)	10 (6.1)	12 (6.4)	7 (4.5)	31 (8.6)	17 (5.6)	48 (7.2)
군입대	2 (1.9)	1 (1.4)	2 (1.6)		5 (9.6)	1 (1.8)	3 (3.7)	2 (1.9)		7 (4.4)	5 (3.1)	2 (1.1)	2 (1.3)	16 (4.5)		16 (2.4)
결혼	1 (1.0)	1 (1.4)				1 (1.8)	1 (1.2)			2 (1.3)	1 (0.6)		1 (0.6)	3 (0.8)	1 (0.3)	4 (0.6)
개인사업	1 (1.0)	1 (1.4)	4 (3.2)		2 (3.8)		1 (1.2)	2 (1.9)		6 (3.8)	2 (1.2)	2 (1.1)	1 (0.6)	8 (2.2)	3 (1.0)	11 (1.7)
가사활동	1 (1.0)										1 (0.6)				1 (0.3)	1 (0.2)
미정	6 (5.8)		7 (5.6)	4 (6.6)	5 (9.6)	2 (3.6)	12 (14.6)	8 (7.7)		11 (6.9)	11 (6.7)	13 (6.9)	9 (5.8)	20 (5.6)	24 (7.8)	44 (6.6)
기타		1 (1.4)	1 (0.8)	3 (4.9)								2 (1.1)	3 (1.9)	2 (0.6)	3 (1.0)	5 (0.8)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2) 직업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은 [그림 3-29]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적성(33.8%), 수입(23.3%), 직업의 안정성(22.6%), 직업의 비전(13.2%)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을 <표 3-30>에서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응답 재학생 중 사범대학(39.3%), 자연과학대학(37.8%), 공과대학(32.7%), 경상대학(34.1%), 생명자원과학대학(36.5%), 인문대학(35.9%)은 적성을 꼽았고, 법정대학(28.4%)은 직업의 안정성을, 해양과학대학(42.9%)은 수입을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과대학의 경우 수입(28.6%), 직업의 안정성(28.6%), 적성(28.6%)을 들고 있다.

재학생들의 직업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을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32.7%), 2학년(41.1%), 3학년(30.9%), 4학년(31.0%) 모두 적성을 가장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9] 직업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

<표 3-29> 직업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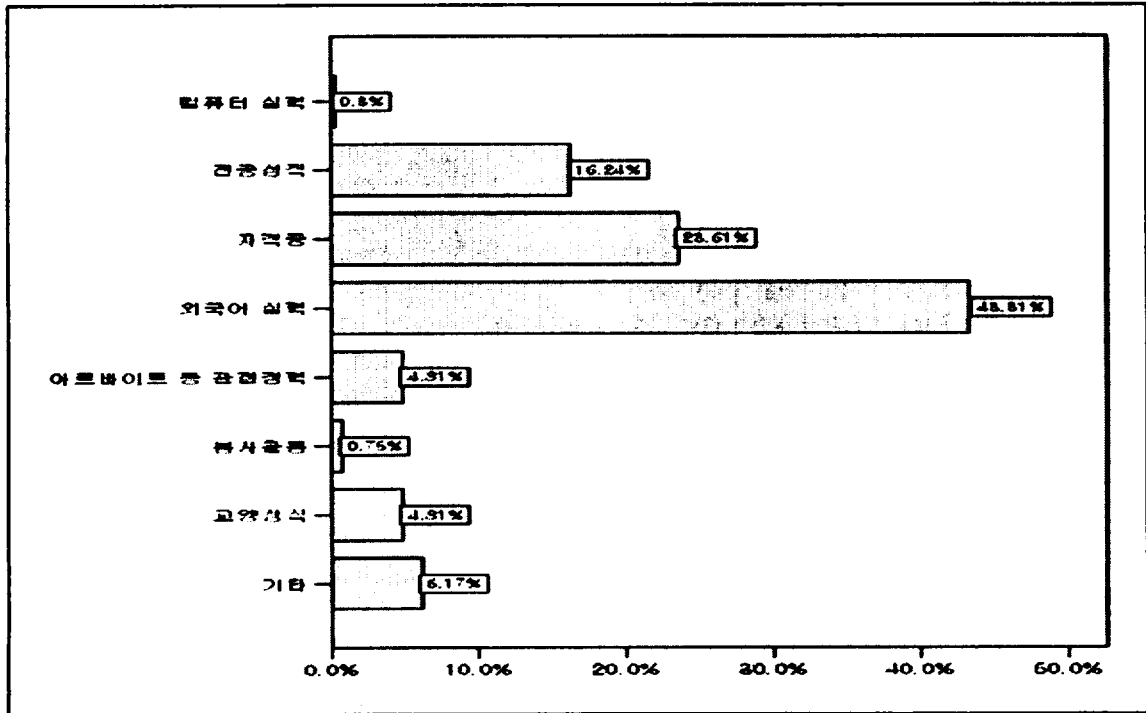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직업의 안정성	32 (31.1)	21 (28.4)	18 (14.3)	22 (36.1)	8 (15.4)	6 (10.7)	19 (23.2)	22 (21.2)	2 (28.6)	28 (17.6)	32 (19.6)	51 (27.1)	39 (25.2)	66 (18.4)	84 (27.5)	150 (22.6)
직업의 비전	9 (8.7)	13 (17.6)	23 (18.3)	4 (6.6)	9 (17.3)	1 (1.8)	13 (15.9)	15 (14.4)	1 (14.3)	22 (13.8)	13 (8.0)	33 (17.6)	20 (12.9)	43 (12.0)	45 (14.7)	88 (13.2)
적 성	37 (35.9)	19 (25.7)	43 (34.1)	24 (39.3)	19 (36.5)	16 (28.6)	31 (37.8)	34 (32.7)	2 (28.6)	52 (32.7)	67 (41.1)	58 (30.9)	48 (31.0)	120 (33.4)	105 (34.3)	225 (33.8)
시간적 여유(여가)	7 (6.8)	1 (1.4)	6 (4.8)	6 (9.8)	1 (1.9)	4 (7.1)	3 (3.7)	5 (4.8)		7 (4.4)	10 (6.1)	9 (4.8)	7 (4.5)	22 (6.1)	11 (3.6)	33 (5.0)
수입	17 (16.5)	17 (23.0)	35 (27.8)	5 (8.2)	12 (23.1)	24 (42.9)	15 (18.3)	28 (26.9)	2 (28.6)	46 (28.9)	39 (23.9)	30 (16.0)	40 (25.8)	101 (28.1)	54 (17.6)	155 (23.3)
인기가 있거나 유명해지는 것			1 (0.8)			1 (1.8)				1 (0.6)			1 (0.6)	1 (0.3)	1 (0.3)	2 (0.3)
국가와 사회에 대한 봉사	1 (1.0)				1 (1.9)	3 (5.4)				1 (0.6)	1 (0.6)	3 (1.6)		4 (1.1)	1 (0.3)	5 (0.8)
존경받을 수 있는 것		2 (2.7)				1 (1.8)						3 (1.6)		2 (0.6)	1 (0.3)	3 (0.5)
기타		1 (1.4)			2 (3.8)		1 (1.2)			2 (1.3)	1 (0.6)	1 (0.5)			4 (1.3)	4 (0.6)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재학생들의 직업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을 성별에 따라 보면, 남학생(33.4%)과 여학생(34.3%) 모두 적성을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취업준비에 가장 중요한 사항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준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그림 3-30]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외국어 실력(43.31%), 자격증(23.61%), 전공 성적(16.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30] 취업준비에 가장 중요한 사항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준비에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응답 재학생 중 경상대학(56.3%), 인문대학(45.6%), 법정대학(55.4%), 공과대학(32.7%), 생명자원과학대학(46.2%), 해양과학대학(41.1%)은 외국어 실력을, 사범대학(34.4%)과 의과대학(71.4%)은 전공 성적을, 자연과학대학(35.4%)은 자격증을 들고 있다.

재학생들의 취업준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을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39.6%), 2학년(41.7%), 3학년(47.9%), 4학년(43.2%)은 모두 외국어 실력을 들고 있다.

재학생들의 취업준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을 성별에 따라 보면, 남학생(40.4%)과 여학생(46.7%) 모두 외국어 실력으로 보고 있다.

<표 3-30> 취업준비에 가장 중요한 사항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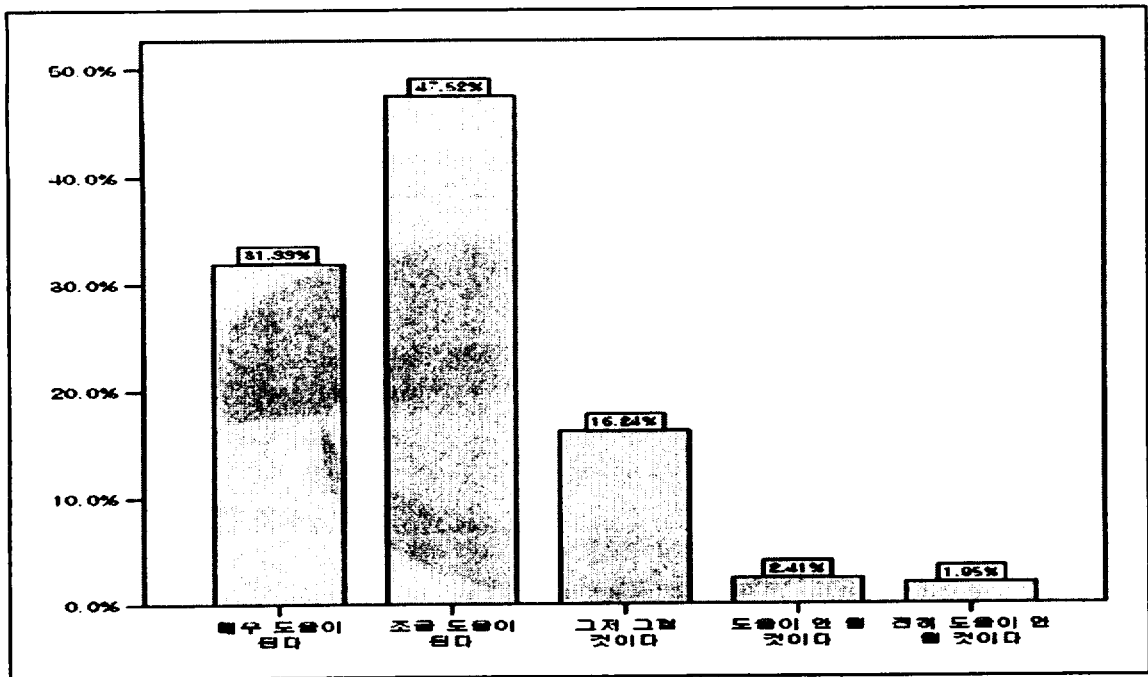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컴퓨터 실력				1 (1.6)				1 (1.0)		1 (0.6)		1 (0.5)		2 (0.6)		2 (0.3)
전공 적성	11 (10.7)	7 (9.5)	12 (9.5)	21 (34.4)	7 (13.5)	8 (14.3)	13 (15.9)	24 (23.1)	5 (71.4)	33 (20.8)	30 (18.4)	22 (11.7)	23 (14.8)	61 (17.0)	47 (15.4)	108 (16.2)
자격증	24 (23.3)	16 (21.6)	26 (20.6)	4 (6.6)	13 (25.0)	14 (25.0)	29 (35.4)	31 (29.8)		42 (26.4)	33 (20.2)	46 (24.5)	36 (23.2)	92 (25.6)	65 (21.2)	157 (23.6)
외국어 실력	47 (45.6)	41 (55.4)	71 (56.3)	19 (31.1)	24 (46.2)	23 (41.1)	27 (32.9)	34 (32.7)	2 (28.6)	63 (39.6)	68 (41.7)	90 (47.9)	67 (43.2)	145 (40.4)	143 (46.7)	288 (43.3)
아르바이트 등 관련경력	6 (5.8)		7 (5.6)	4 (6.6)	3 (5.8)	5 (8.9)	3 (3.7)	4 (3.8)		10 (6.3)	6 (3.7)	6 (3.2)	10 (6.5)	18 (5.0)	14 (4.6)	32 (4.8)
봉사 활동		1 (1.4)	1 (0.8)		1 (1.9)	1 (1.8)		1 (1.0)		2 (1.3)		3 (1.6)		4 (1.1)	1 (0.3)	5 (0.8)
교양 식	9 (8.7)	3 (4.1)	2 (1.6)	5 (8.2)	2 (3.8)	5 (8.9)	5 (6.1)	1 (1.0)		5 (3.1)	13 (8.0)	8 (4.3)	6 (3.9)	17 (4.7)	15 (4.9)	32 (4.8)
기 타	6 (5.8)	6 (8.1)	7 (5.6)	7 (11.5)	2 (3.8)		5 (6.1)	8 (7.7)		3 (1.9)	13 (8.0)	12 (6.4)	13 (8.4)	20 (5.6)	21 (6.9)	41 (6.2)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4) 장래 직업선택시 현재 전공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장래 직업선택시 현재 전공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그림 3-3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조금이 된다' 47.5%, '매우 도움이 된다' 31.9%, '그저 그럴 것이다' 16.2% 등의 순으로 나타나 현재 전공이 직업선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장래 직업선택시 현재 전공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응답 재학생 중 의과대학(100.0%), 자연과학대학(80.5%), 사범대학(95.1%), 법정대학(81.1%), 생명자원과학대학(84.6%), 경상대학(77.7%), 공과대학(85.6%), 인문대학(66.0%), 해양과학대학(67.9%)은 도움이 된다고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장래 직업선택시 현재 전공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응답 재학생 중 1학년(76.1%), 2학년(80.4%), 3학년(80.4%), 4학년(80.6%)은 도움이 된다고 나타났다.



[그림 3-31] 장래 직업선택시 현재 전공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

재학생들의 장래 직업선택시 현재 전공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성별에 따라 보면, 응답 재학생 중 남학생(79.7%)과 여학생(79.1%) 모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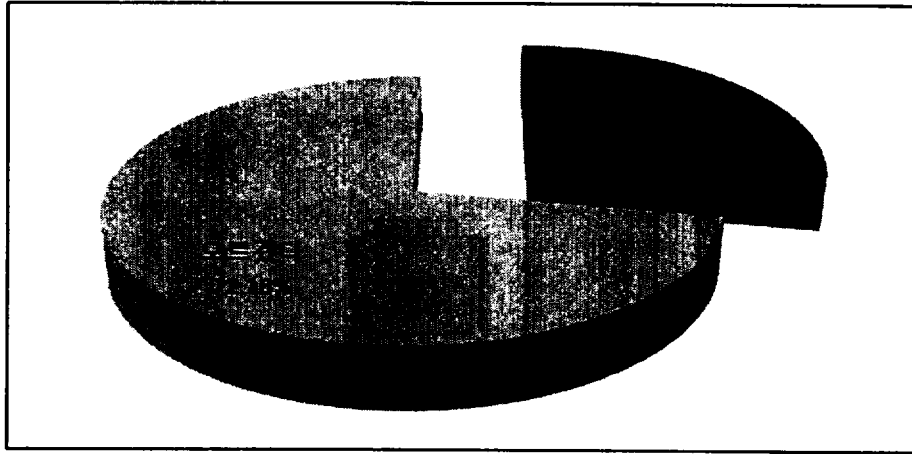
<표 3-31> 장래 직업선택시 현재 전공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매우 도움이 된다	19 (18.4)	14 (18.9)	27 (21.4)	36 (59.0)	28 (53.8)	15 (26.8)	24 (29.3)	44 (42.3)	5 (71.4)	54 (34.0)	58 (35.6)	58 (30.9)	42 (27.1)	118 (32.9)	94 (30.7)	212 (31.9)
조금 도움이 된다	49 (47.6)	46 (62.2)	71 (56.3)	22 (36.1)	16 (30.8)	23 (41.1)	42 (51.2)	45 (43.3)	2 (28.6)	67 (42.1)	73 (44.8)	93 (49.5)	83 (53.5)	168 (46.8)	148 (48.4)	316 (47.5)
그저 그럴 것이다	27 (26.2)	10 (13.5)	24 (19.0)	2 (3.3)	6 (11.5)	15 (26.8)	12 (14.6)	12 (11.5)		32 (20.1)	25 (15.3)	28 (14.9)	23 (14.8)	55 (15.3)	53 (17.3)	108 (16.2)
도움이 안 될 것이다	5 (4.9)	3 (4.1)	3 (2.4)			1 (1.8)	3 (3.7)	1 (1.0)		5 (3.1)	5 (3.1)	3 (1.6)	3 (1.9)	10 (2.8)	6 (2.0)	16 (2.4)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3 (2.9)	1 (1.4)	1 (0.8)	1 (1.6)	2 (3.8)	2 (3.6)	1 (1.2)	2 (1.9)		1 (0.6)	2 (1.2)	6 (3.2)	4 (2.6)	8 (2.2)	5 (1.6)	13 (2.0)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5) 직업능력개발원 인지 여부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 인지 여부는 [그림 3-3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알고 있다' 72.2%와 '모르겠다' 27.8%로 나타났다.



[그림 3-32] 직업능력개발원 인지 여부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 인지 여부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표 3-32>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 재학생 중 경상대학(79.4%), 법정대학(79.7%), 자연과학대학(67.1%), 인문대학(74.8%), 의과대학(71.4%), 사범대학(68.9%), 공과대학(63.5%), 생명자원과학대학(63.5%), 해양과학대학(76.8%)로 나타나 인지도 면에서 비교적 법정대학과 경상대학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 인지 여부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4학년(83.9%), 3학년(76.6%), 2학년(72.4%), 1학년(55.3%) 순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 보면, 남학생(64.3%) 보다 여학생(81.4%)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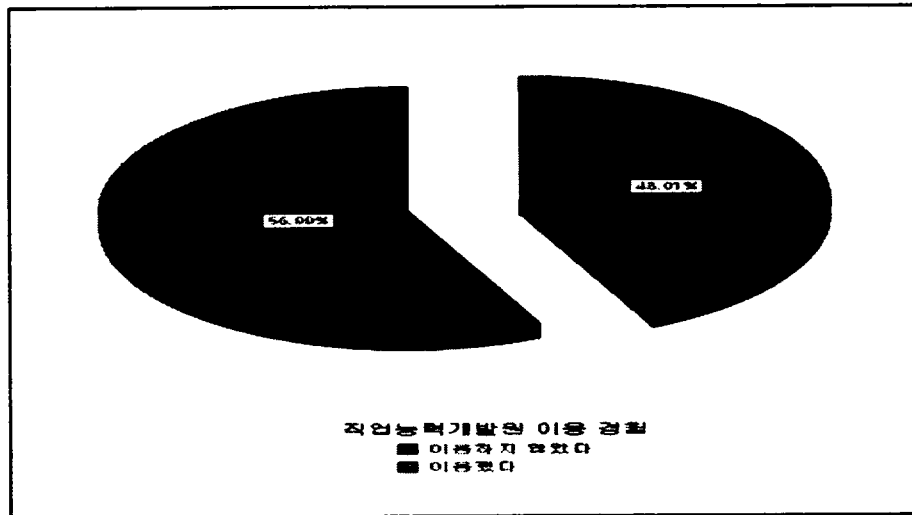
<표 3-32> 직업능력개발원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대학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알고 있다	77 (74.8)	59 (79.7)	100 (79.4)	42 (68.9)	33 (63.5)	43 (76.8)	55 (67.1)	66 (63.5)	5 (71.4)	88 (55.3)	118 (72.4)	144 (76.6)	130 (83.9)	231 (64.3)	249 (81.4)	480 (72.2)
모르겠다	26 (25.2)	15 (20.3)	26 (20.6)	19 (31.1)	19 (36.5)	13 (23.2)	27 (32.9)	38 (36.5)	2 (28.6)	71 (44.7)	45 (27.6)	44 (23.4)	25 (16.1)	128 (35.7)	57 (18.6)	185 (27.8)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6) 직업능력개발원 이용 경험 (5번의 ① ‘알고 있다’ 응답한 경우)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을 알고 있는 학생 중 직업능력개발원 이용 경험은 [그림 3-3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용했다’ 48%와 ‘이용하지 않았다’ 56%로 나타났다.



[그림 3-33] 직업능력개발원 이용 경험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 이용 경험을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응답 재학생 중 법정대학(52.5%), 생명자원과학대학(48.5%), 경상대학(41.8%), 공과대학(33.3%), 사범대학(27.9%), 해양과학대학(51.2%) 의과대학(80.0%), 자연과학대학(49.1%), 인문대학(40.3%), 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과대학, 법정대학, 해양과학대학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 이용 경험을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응답 재학생 중 1학년(37.5%), 2학년(37.3%), 3학년(47.2%), 4학년(47.3%)가 이용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저학년일수록 그 이용 경험이 낮아 직업능력개발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 이용 경험을 성별에 따라 보면, 남학생(39.8%) 보다 여학생(46.0%)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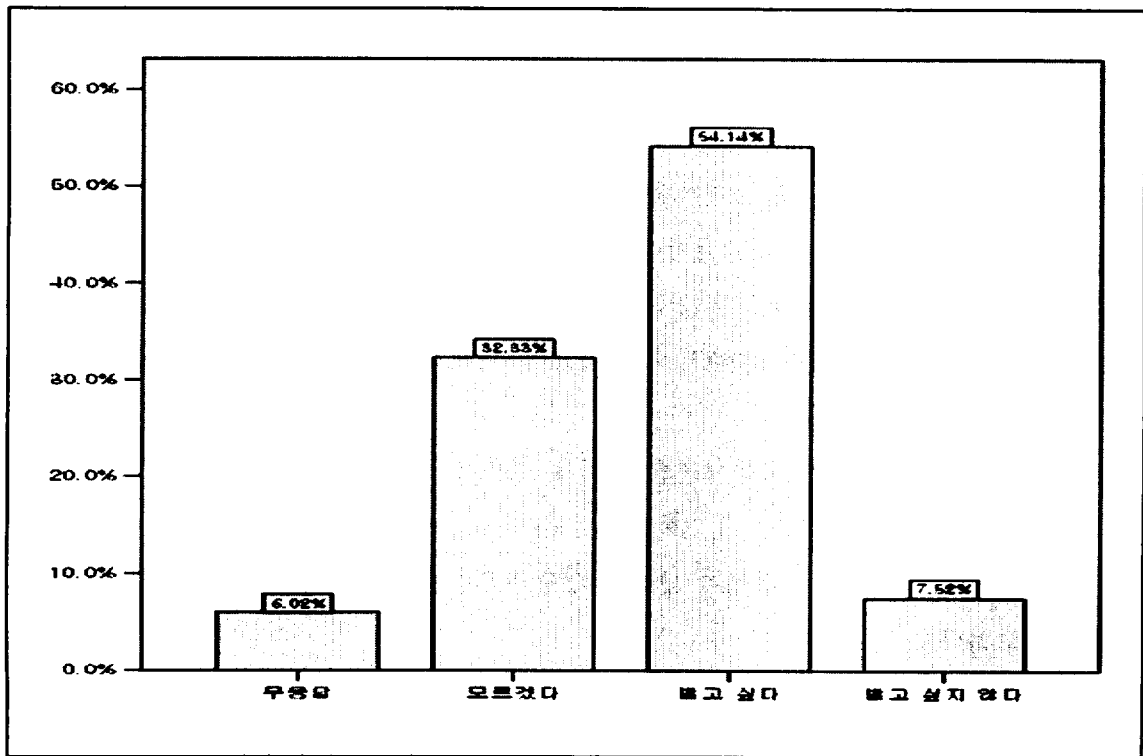
<표 3-33> 직업능력개발원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이용했다	31 (40.3)	31 (52.5)	41 (41.8)	12 (27.9)	16 (48.5)	22 (51.2)	27 (49.1)	22 (33.3)	4 (80.0)	33 (37.5)	44 (37.3)	68 (47.2)	61 (47.3)	92 (39.8)	114 (46.0)	206 (43.0)
이용하지 않았다	46 (59.7)	28 (47.5)	57 (58.2)	31 (72.1)	17 (51.5)	21 (48.8)	28 (50.9)	44 (66.7)	1 (20.0)	55 (62.5)	74 (62.7)	76 (52.8)	68 (52.7)	139 (60.2)	134 (54.0)	273 (57.0)
계	77 (100)	59 (100)	98 (100)	43 (100)	33 (100)	43 (100)	55 (100)	66 (100)	5 (100)	88 (100)	118 (100)	144 (100)	129 (100)	231 (100)	248 (100)	479 (100)

7)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상담 선호도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상담 선호도는 [그림 3-34]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받고 싶다' 54.14%, '모르겠다' 32.33%, '받고 싶지 않다' 7.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34]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상담 선호도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상담 선호도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응답 재학생 중 자연과학대학(53.7%), 법정대학(70.3%), 경상대학(45.2%), 인문대학(65.0%), 공과대학(53.8%), 해양과학대학(44.6%), 사범대학(52.5%), 의과대학(57.1%), 생명자원과학대학(44.2%)이 '받고 싶다'고 하였으며, 법정대학, 인문대학, 의과대학 등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상담 선호도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3학년(61.2%), 4학년(54.2%), 2학년(54.0%), 1학년(45.9%) 순으로 받고 싶다고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상담 선호도를 성별에 따라 보면, 남학생(46.8%) 보다 여학생(62.7%)이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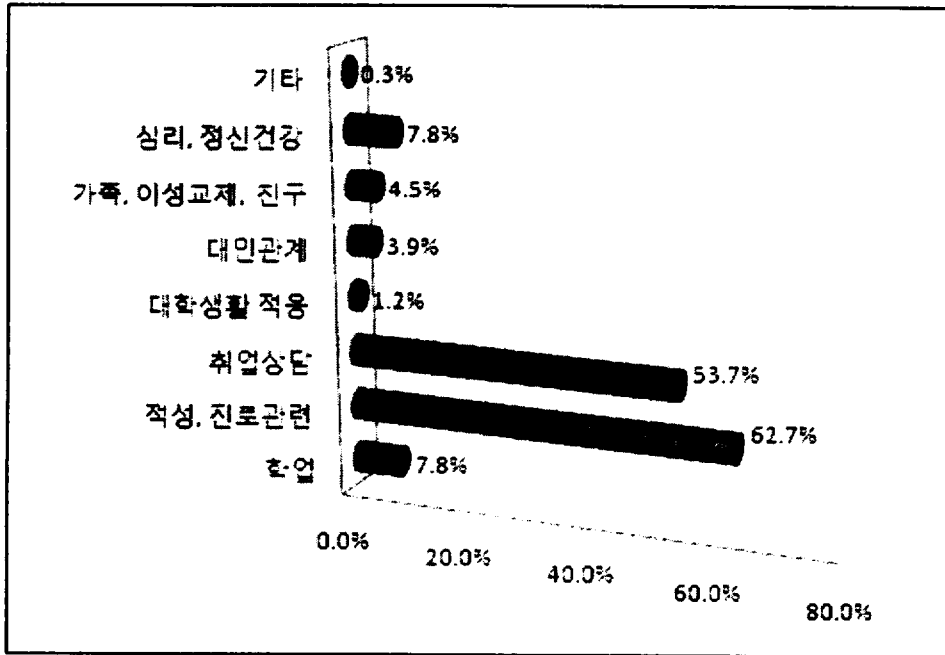
<표 3-34>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상담 선호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무 응답	5 (4.9)	2 (2.7)	8 (6.3)	3 (4.9)	3 (5.8)	6 (10.7)	8 (9.8)	5 (4.8)		10 (6.3)	6 (3.7)	15 (8.0)	9 (5.8)	29 (8.1)	11 (3.6)	40 (6.0)
모 쥔 다	25 (24.3)	18 (24.3)	52 (41.3)	21 (34.4)	21 (40.4)	19 (33.9)	22 (26.8)	34 (32.7)	3 (42.9)	66 (41.5)	59 (36.2)	40 (21.3)	50 (32.3)	128 (35.7)	87 (28.4)	215 (32.3)
받 고 싶 다	67 (65.0)	52 (70.3)	57 (45.2)	32 (52.5)	23 (44.2)	25 (44.6)	44 (53.7)	56 (53.8)	4 (57.1)	73 (45.9)	88 (54.0)	115 (61.2)	84 (54.2)	168 (46.8)	192 (62.7)	360 (54.1)
받 고 싶 지 않 다	6 (5.8)	2 (2.7)	9 (7.1)	5 (8.2)	5 (9.6)	6 (10.7)	8 (9.8)	9 (8.7)		10 (6.3)	10 (6.1)	18 (9.6)	12 (7.7)	34 (9.5)	16 (5.2)	50 (7.5)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8)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상담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받고 싶은 상담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는 [그림 3-3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응답 재학생 중 적성, 진로 관련이 6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상담 53.7%, 심리, 정신건강과 학업이 각각 7.8%를 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3-35]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받고 싶은 상담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상담을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응답 재학생 중 경상대학(49.1%), 법정대학(43.0%), 자연과학대학(42.4%), 인문대학(46.6%), 공과대학(43.4%), 사범대학(40.7%), 의과대학(54.5%), 생명자원과학대학(44.0%)은 적성, 진로관련 상담을 가장 받고 싶어 하며, 해양과학대학(41.9%)은 취업상담을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상담을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응답 재학생 중 1학년(48.3%), 2학년(44.6%) 4학년(43.9%)은 주로 적성, 진로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 하였고, 3학년의 경우 44.2%가 취업상담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상담을 성별에 따라 보면, 남학생(45.3%)과 여학생(45.1%) 모두 적성, 진로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5>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상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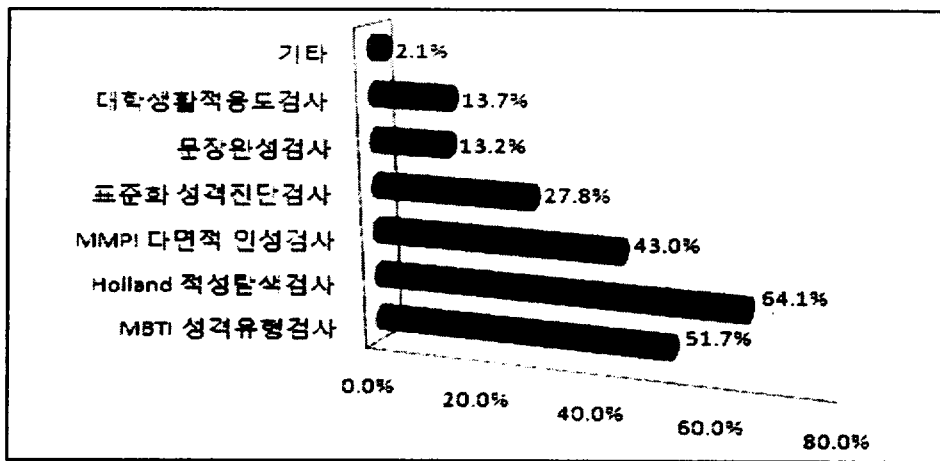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기타 상담			1 (0.6)		1 (1.3)							1 (0.4)	1 (0.5)	2 (0.2)	1 (0.2)	3 (0.2)
심리, 정신 건강	10 (6.8)	5 (4.7)	3 (1.7)	8 (9.3)	7 (9.3)	4 (5.4)	9 (7.2)	5 (3.4)	1 (9.1)	11 (4.7)	17 (7.4)	12 (4.5)	12 (5.7)	52 (5.6)	29 (6.6)	81 (5.9)
가족, 이성 교제, 친구	3 (2.0)	2 (1.9)	5 (2.9)	6 (7.0)	4 (5.3)	3 (4.1)	3 (2.4)	2 (1.4)	2 (18.2)	13 (5.6)	4 (1.7)	6 (2.2)	7 (3.3)	30 (3.3)	14 (3.2)	44 (3.2)
대인관계	3 (2.0)	4 (3.7)	3 (1.7)	4 (4.7)	5 (6.7)	2 (2.7)	1 (0.8)	4 (2.8)		4 (1.7)	6 (2.6)	10 (3.7)	6 (2.8)	26 (2.8)	9 (2.0)	35 (2.6)
대학생활 적응			2 (1.2)	1 (1.2)		2 (2.7)	2 (1.6)	1 (0.7)		4 (1.7)	2 (0.9)	1 (0.4)	1 (0.5)	8 (0.9)	1 (0.2)	9 (0.7)
취업상담	59 (39.9)	44 (41.1)	67 (38.7)	22 (25.6)	23 (30.7)	31 (41.9)	51 (40.8)	58 (40.0)	2 (18.2)	73 (31.2)	83 (35.9)	118 (44.2)	83 (39.2)	357 (38.8)	165 (37.4)	522 (38.2)
적성, 진로 관	69 (46.6)	46 (43.0)	85 (49.1)	35 (40.7)	33 (44.0)	27 (36.5)	53 (42.4)	63 (43.4)	6 (54.5)	113 (48.3)	108 (44.6)	108 (40.4)	93 (43.9)	417 (45.3)	199 (45.1)	616 (45.2)
학 업	4 (2.7)	6 (5.6)	7 (4.0)	10 (11.6)	2 (2.7)	5 (6.8)	6 (4.8)	12 (8.3)		16 (6.8)	16 (6.9)	11 (4.1)	9 (4.2)	29 (3.1)	23 (5.2)	52 (3.8)
계	148 (100)	107 (100)	173 (100)	86 (100)	75 (100)	74 (100)	125 (100)	145 (100)	11 (100)	234 (100)	231 (100)	267 (100)	212 (100)	921 (100)	441 (100)	1362 (100)

9)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심리검사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심리검사를 받고 싶은 항목은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조사한 결과 [그림 3-36]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Holland 적성탐색검사가 6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MBTI 성격유형검사 51.7%, MMIP 다면적 인성검사 43.0%, 표준화 성격진단검사 27.8%, 대학생활 적응도검사 13.7%, 문장완성검사 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심리검사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응답 재학생 중 인문대학(31.6%), 공과대학(28.9%), 경상대학(33.1%), 법정대학(26.8%), 자연과학대학(31.3%), 생명자원과학대학(26.1%), 사범대학(30.3%)은 HOLLAND 적성탐색검사를, 의과대학은 HOLLAND 적성탐색검사(28.6%)와 표준화 성격진단검사(28.6%)를, 해양과학대학의 경우 MBTI 성격유형검사(25.8%)를 받고 싶다고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심리검사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응답 재학생 중 1학년(30.4%), 2학년(28.7%), 3학년(27.7%) 4학년(32.6%) 모두 HOLLAND 적성탐색검사를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6]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심리검사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심리검사를 성별에 따라 보면, 남학생(27.1%)과 여학생(32.8%) 모두 HOLLAND 적성탐색검사를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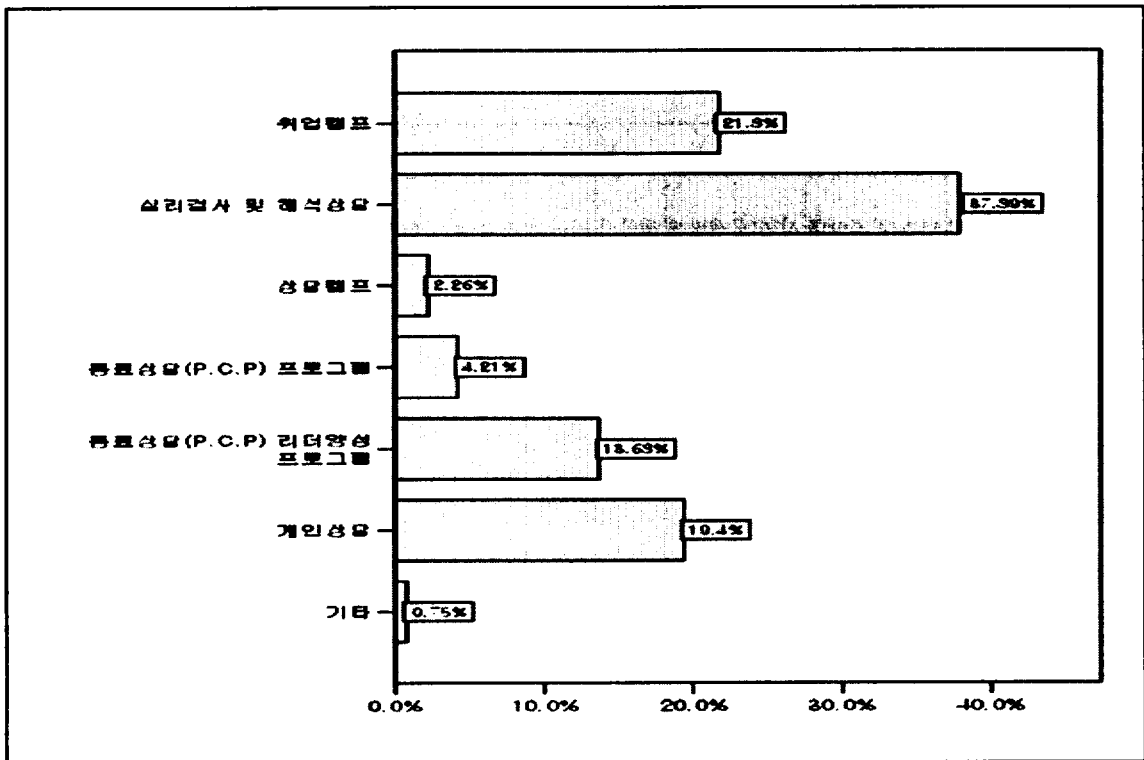
<표 3-36>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고 싶은 심리검사

<단위 : 명(%)>

구분	대학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기타	1 (0.4)	2 (1.3)	3 (1.1)	2 (1.7)	2 (1.7)		3 (1.6)	1 (0.5)		3 (0.8)	3 (0.8)	7 (1.8)	1 (0.3)	12 (1.6)	2 (0.3)	14 (1.0)
대학생활 적응도검사	17 (7.2)	9 (5.9)	17 (6.3)	8 (6.7)	6 (5.2)	9 (7.3)	12 (6.6)	12 (5.5)	1 (7.1)	33 (8.9)	26 (7.2)	22 (5.6)	10 (3.2)	46 (6.0)	45 (6.8)	91 (6.3)
문장완성 검사	14 (5.9)	6 (3.9)	17 (6.3)	10 (8.4)	10 (8.7)	7 (5.6)	8 (4.4)	16 (7.3)		25 (6.8)	25 (7.0)	26 (6.6)	12 (3.8)	51 (6.6)	37 (5.6)	88 (6.1)
표준화 성격검사	24 (10.1)	25 (16.3)	32 (11.8)	10 (8.4)	15 (13.0)	21 (16.9)	22 (12.1)	32 (14.7)	4 (28.6)	43 (11.7)	46 (12.8)	51 (13.0)	45 (14.4)	108 (14.0)	77 (11.6)	185 (13.0)
MMPI 다면적 인성검사	49 (20.7)	32 (20.9)	51 (18.8)	23 (19.3)	24 (20.9)	25 (20.2)	36 (19.8)	43 (19.7)	3 (21.4)	70 (19.0)	71 (19.8)	77 (19.6)	68 (21.7)	157 (20.3)	129 (19.5)	286 (20.0)
HOLLAND 적성탐색	75 (31.6)	41 (26.8)	90 (33.1)	36 (30.3)	30 (26.1)	30 (24.2)	57 (31.3)	63 (28.9)	4 (28.6)	112 (30.4)	103 (28.7)	109 (27.7)	102 (32.6)	209 (27.1)	217 (32.8)	426 (30.0)
MBTI 성격 유형검사	57 (24.1)	38 (24.8)	62 (22.8)	30 (25.2)	28 (24.3)	32 (25.8)	44 (24.2)	51 (23.4)	2 (14.3)	83 (22.5)	85 (23.7)	101 (25.7)	75 (24.0)	189 (24.5)	155 (23.4)	344 (24.0)
계	237 (100)	153 (100)	272 (100)	119 (100)	115 (100)	124 (100)	182 (100)	218 (100)	14 (100)	369 (100)	359 (100)	393 (100)	313 (100)	772 (100)	662 (100)	1434 (100)

10)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신청하고 싶은 프로그램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신청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그림 3-37]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37.89%), 취업캠프(21.8%), 개인상담(19.4%), 동료상담(P.C.P) 리더 양성프로그램(13.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37]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신청하고 싶은 프로그램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신청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학(54.4%), 경상대학(34.1%), 공과대학(37.5%), 사범대학(36.1%), 해양과학대학(39.3%), 자연과학대학(36.6%), 생명자원과학대학(40.4%)은 가장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을, 법정대학(23.0%)은 개인상담을, 의과대학은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42.9%)과 동료상담(P.C.P) 리더 양성프로그램(42.9%)을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신청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35.8%), 2학년(40.5%), 3학년(38.8%), 4학년(36.1%) 모두 심리검사 및 해석

상담을 제일 많이 신청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신청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성별에 따라 보면, 남학생(32.3%), 여학생(44.4%) 모두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을 제일 많이 신청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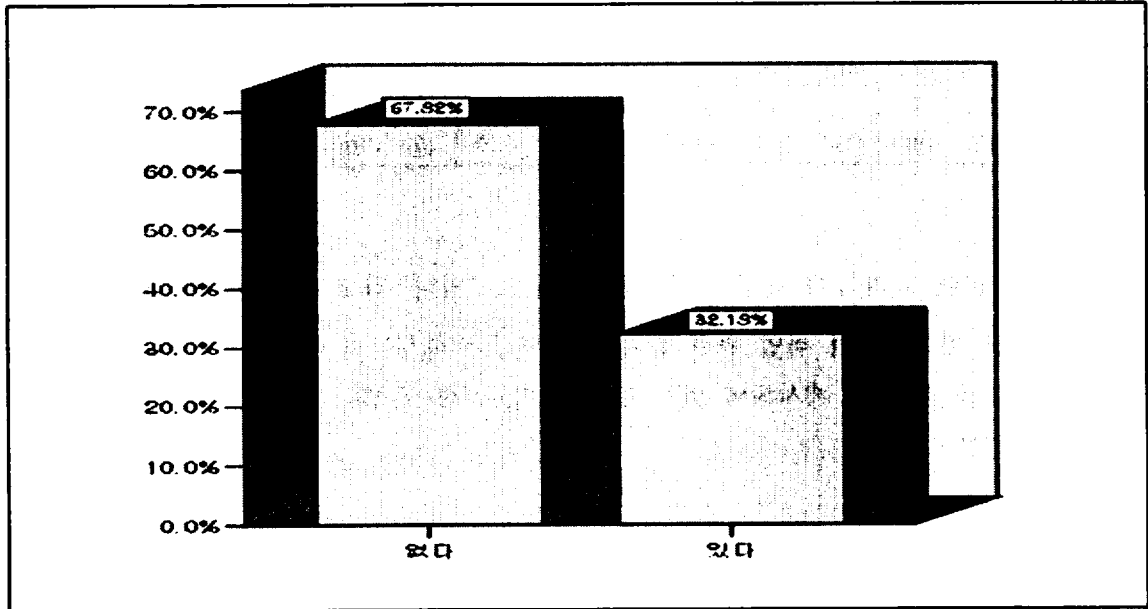
<표 3-37>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신청하고 싶은 프로그램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취업캠프	15 (14.6)	15 (20.3)	37 (29.4)	15 (24.6)	11 (21.2)	13 (23.2)	16 (19.5)	22 (21.2)	1 (14.3)	30 (18.9)	42 (25.8)	40 (21.3)	33 (21.3)	90 (25.1)	55 (18.0)	145 (21.8)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56 (54.4)	16 (21.6)	43 (34.1)	22 (36.1)	21 (40.4)	22 (39.3)	30 (36.6)	39 (37.5)	3 (42.9)	57 (35.8)	66 (40.5)	73 (38.8)	56 (36.1)	116 (32.3)	136 (44.4)	252 (37.9)
상담캠프	3 (2.9)	4 (5.4)	1 (0.8)	1 (1.6)	1 (1.9)	1 (1.8)	3 (3.7)	1 (1.0)		5 (3.1)	1 (0.6)	6 (3.2)	3 (1.9)	9 (2.5)	6 (2.0)	15 (2.3)
동료상담 (P.C.P)	2 (1.9)	6 (8.1)	2 (1.6)	5 (8.2)	3 (5.8)	2 (3.6)	2 (2.4)	6 (5.8)		11 (6.9)	6 (3.7)	7 (3.7)	4 (2.6)	17 (4.7)	11 (3.6)	28 (4.2)
동료상담 (PCP) 라인생	11 (10.7)	16 (21.6)	15 (11.9)	8 (13.1)	8 (15.4)	5 (8.9)	14 (17.1)	11 (10.6)	3 (42.9)	21 (13.2)	18 (11.0)	22 (11.7)	30 (19.4)	44 (12.3)	47 (15.4)	91 (13.7)
개인상담	16 (15.5)	17 (23.0)	25 (19.8)	10 (16.4)	6 (11.5)	13 (23.2)	17 (20.7)	25 (24.0)		35 (22.0)	29 (17.8)	37 (19.7)	28 (18.1)	79 (22.0)	50 (16.3)	129 (19.4)
기 타			3 (2.4)		2 (3.8)						1 (0.6)	3 (1.6)	1 (0.6)	4 (1.1)	1 (0.3)	5 (0.8)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11)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 여부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 여부는 [그림 3-38]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있다' 32.2%, '없다' 67.8%로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취업 관련 교과목 수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8]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 여부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 여부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응답 재학생 중 해양과학대학(55.4%), 경상대학(44.4%), 인문대학(35.9%), 법정대학(35.1%), 자연과학대학(31.7%), 공과대학(26.0%) 순으로 수강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한편, 의과대학(100%), 생명자원과학대학(90.4%), 사범대학(90.2%)은 수강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 여부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4학년(42.6%), 3학년(42.0%), 2학년(26.4%), 1학년(16.4%) 순으로 취업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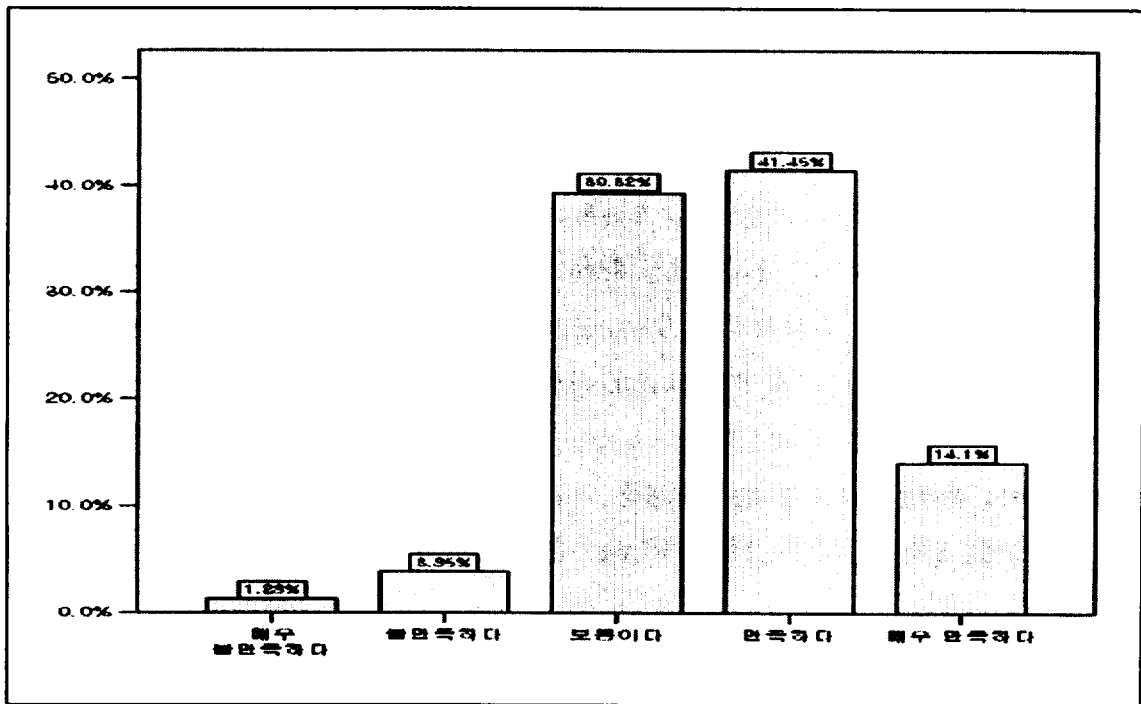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 여부를 성별에 따라 보면, 남학생(29.5%)과 여학생(35.3%)은 취업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8>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 여부

구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없다	66 (64.1)	48 (64.9)	70 (55.6)	55 (90.2)	47 (90.4)	25 (44.6)	56 (68.3)	77 (74.0)	7 (100)	133 (83.6)	120 (73.6)	109 (58.0)	89 (57.4)	253 (70.5)	198 (64.7)	451 (67.8)
있다	37 (35.9)	26 (35.1)	56 (44.4)	6 (9.8)	5 (9.6)	31 (55.4)	26 (31.7)	27 (26.0)		26 (16.4)	43 (26.4)	79 (42.0)	66 (42.6)	106 (29.5)	108 (35.3)	214 (32.2)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12) 취업 관련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11번의 ② '있다' 라고 응답한 경우)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취업 관련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는 [그림 3-39]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만족 55.5%, 보통 39.3%, 불만족 5.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39] 취업 관련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취업 관련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법정대학(60.0%), 해양과학대학(59.4%), 경상대학(55.2%), 공과대학(55.2%), 자연과학대학(55.1%), 인문대학(55.0%), 생명자원과학대학(50.0%), 사범대학(44.4%) 순으로 만족한다고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취업 관련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4학년(58.6%), 3학년(56.1%), 2학년(53.3%), 1학년(36.4%) 순으로 고학년일수록 취업 관련 교과목에 대해 만족한다고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한 학생들의 취업 관련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성별에 따라 보면, 여학생(53.0%)과 남학생(58.1%)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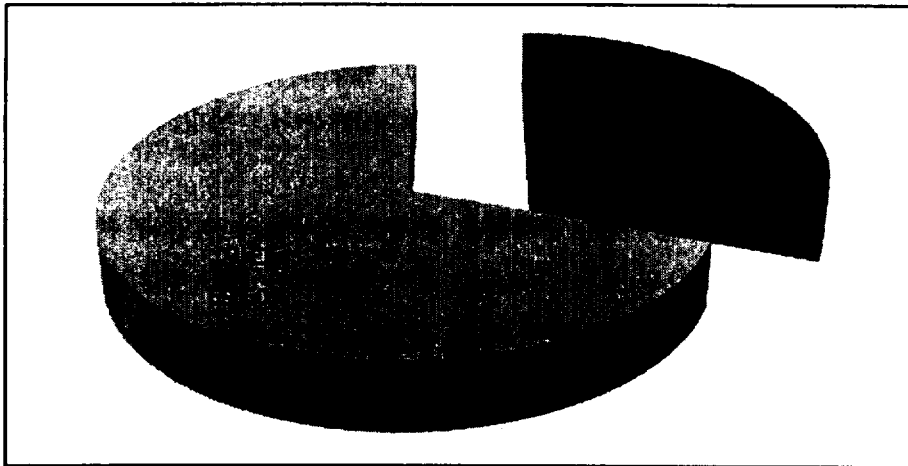
<표 3-39> 취업 관련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매우 만족	2 (5.0)			1 (11.1)									3 (4.3)	3 (2.6)		3 (1.3)
불만족	2 (5.0)	1 (3.3)	3 (5.2)			1 (3.1)	2 (6.9)			2 (6.1)	1 (2.0)	2 (2.4)	4 (5.7)	6 (5.1)	3 (2.6)	9 (3.8)
보통	14 (35.0)	11 (36.7)	23 (39.7)	4 (44.4)	3 (50.0)	12 (37.5)	11 (37.9)	13 (44.8)	1 (100)	19 (57.6)	17 (34.7)	34 (41.5)	22 (31.4)	40 (34.2)	52 (44.4)	92 (39.3)
만족	16 (40.0)	16 (53.3)	25 (43.1)	3 (33.3)	2 (33.3)	12 (37.5)	13 (44.8)	10 (34.5)		7 (21.2)	22 (44.9)	36 (43.9)	32 (45.7)	46 (39.3)	51 (43.6)	97 (41.5)
매우만족	6 (15.0)	2 (6.7)	7 (12.1)	1 (11.1)	1 (16.7)	7 (21.9)	3 (10.3)	6 (20.7)		5 (15.2)	9 (18.4)	10 (12.2)	9 (12.9)	22 (18.8)	11 (9.4)	33 (14.1)
계	40 (100)	30 (100)	58 (100)	9 (100)	6 (100)	32 (100)	29 (100)	29 (100)	1 (100)	33 (100)	49 (100)	82 (100)	70 (100)	117 (100)	117 (100)	234 (100)

13) 향후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 의사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향후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 의사는 [그림 3-40]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있다' 69.6%, '없다' 30.4%로 많은 학생들이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을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0] 향후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 의사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향후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 의사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자연과학대학(77.5%), 해양과학대학(76.5%), 법정대학(76.4%), 공과대학(75.3%), 인문대학(71.8%), 경상대학(69.7%), 사범대학(52.5%), 생명자원과학대학(51.0%), 의과대학(20.6%) 순으로 수강 의사가 있다고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향후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 의사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82.3%), 2학년(74.7%), 3학년(67.8%), 4학년(52.7%) 순으로 수강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년일수록 향후 취업 관련 강좌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향후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 의사를 성별에 따라 보면, 남학생(66.9%)과 여학생(72.7%) 모두 수강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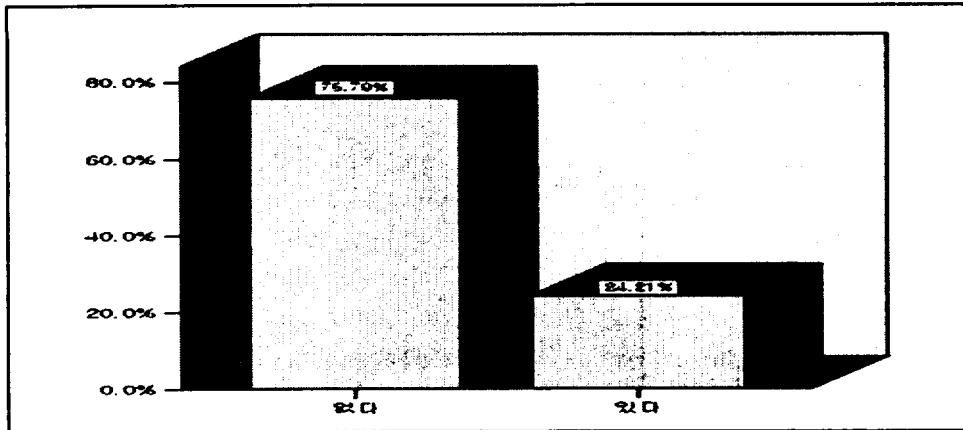
<표 3-40> 향후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 의사

<단위 : 명(%)>

구분	대학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없다	29 (28.2)	17 (23.6)	37 (30.3)	29 (47.5)	25 (49.0)	12 (23.5)	18 (22.5)	24 (24.7)	5 (71.4)	28 (17.7)	40 (25.3)	58 (32.2)	70 (47.3)	114 (33.1)	82 (27.3)	196 (30.4)
있다	74 (71.8)	55 (76.4)	85 (69.7)	32 (52.5)	26 (51.0)	39 (76.5)	62 (77.5)	73 (75.3)	2 (28.6)	130 (82.3)	118 (74.7)	122 (67.8)	78 (52.7)	230 (66.9)	218 (72.7)	448 (69.6)
계	103 (100)	72 (100)	122 (100)	61 (100)	51 (100)	51 (100)	80 (100)	97 (100)	7 (100)	158 (100)	158 (100)	180 (100)	148 (100)	344 (100)	300 (100)	644 (100)

14)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여부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여부는 [그림 3-4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응답 재학생 중 '없다' 75.8%, '있다' 24.2%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1]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여부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여부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해양과학대학(42.9%), 경상대학(29.4%), 법정대학(28.4%), 자연과학대학(24.4%), 생명자원과학대학(21.2%), 인문대학(20.4%), 사범대학(16.4%), 공과대학(16.3%), 의과대학(0%) 순으로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여부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4학년(36.1%), 3학년(27.1%), 2학년(22.7%), 1학년(10.7%) 등의 순으로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여부를 성별에 따라 보면, 남학생(24.8%)과 여학생(23.5%)이 비슷하게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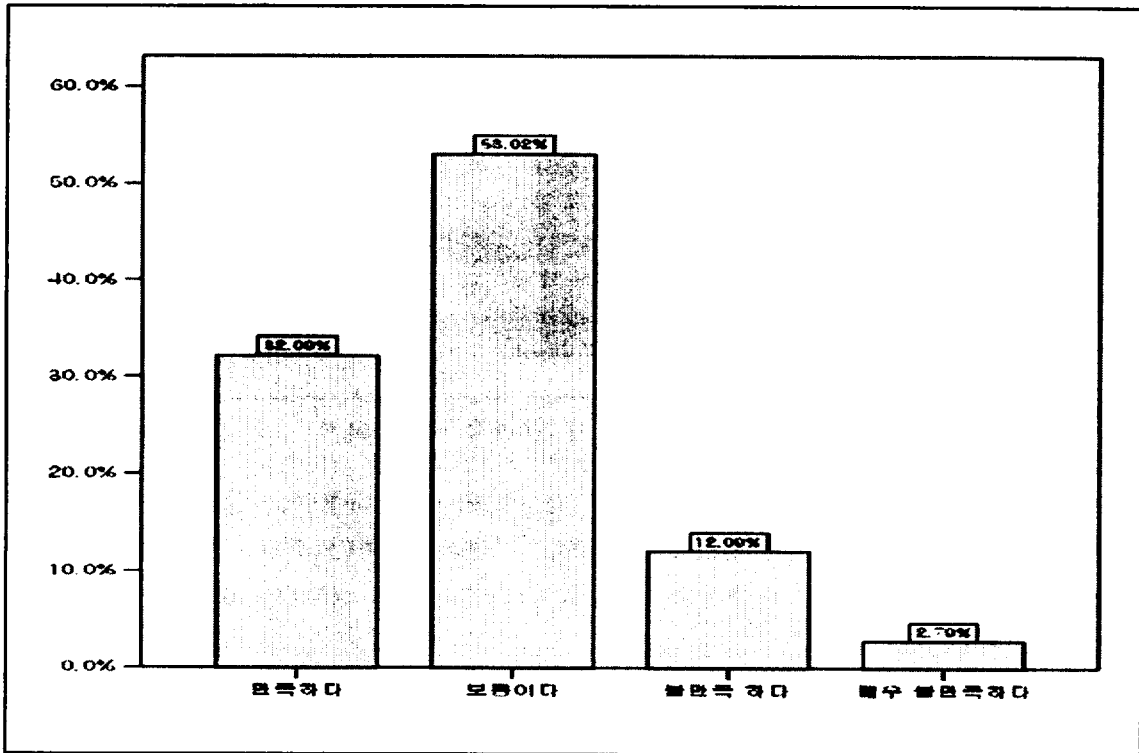
<표 3-41>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여부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없다	82 (79.6)	53 (71.6)	89 (70.6)	51 (83.6)	41 (78.8)	32 (57.1)	62 (75.6)	87 (83.7)	7 (100)	142 (89.3)	126 (77.3)	137 (72.9)	99 (63.9)	270 (75.2)	234 (76.5)	504 (75.8)
있다	21 (20.4)	21 (28.4)	37 (29.4)	10 (16.4)	11 (21.2)	24 (42.9)	20 (24.4)	17 (16.3)		17 (10.7)	37 (22.7)	51 (27.1)	56 (36.1)	89 (24.8)	72 (23.5)	161 (24.2)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15)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14번의 ② '있다' 라고 응답한 경우)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는 [그림 3-4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만족' 32.1%로 나타났으며, '불만족' 14.9%로 나타나서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불만족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2]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자연과학대학(48.0%), 법정대학(36.0%), 사범대학(35.3%), 해양과학대학(29.6%) 등의 순으로 만족한다고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3학년(42.4%), 4학년(32.4%), 2학년(23.5%), 1학년(23.3%) 등의 순으로 만족한다고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성별에 따라 보면 '만족'한다가 남학생(31.6%)과 여학생(32.7%)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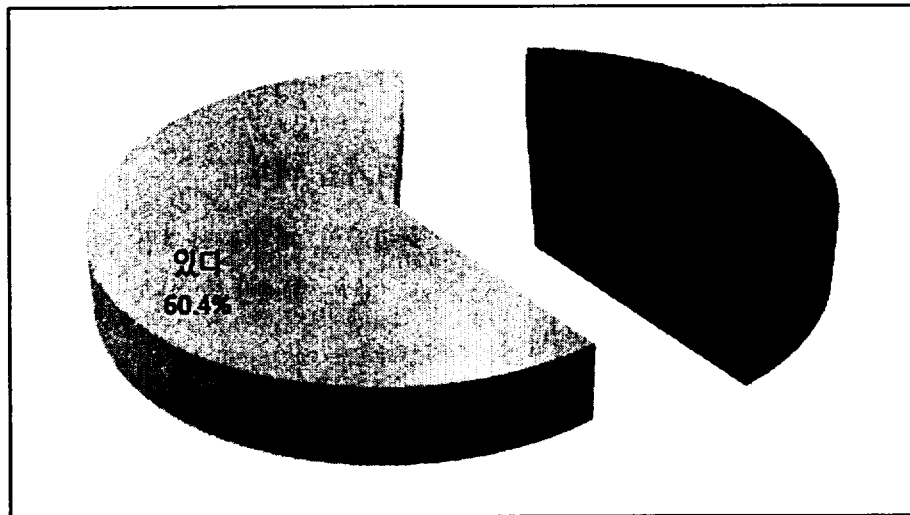
<표 3-42>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1	2	3	4	남	여	
만 족	8 (25.8)	9 (36.0)	14 (29.2)	6 (35.3)	4 (28.6)	8 (29.6)	12 (48.0)	8 (28.6)	7 (23.3)	12 (23.5)	28 (42.4)	22 (32.4)	37 (31.6)	32 (32.7)	69 (32.1)
보 통	17 (54.8)	15 (60.0)	26 (54.2)	9 (52.9)	9 (64.3)	8 (29.6)	11 (44.0)	19 (67.9)	19 (63.3)	29 (56.9)	33 (50.0)	33 (48.5)	60 (51.3)	54 (55.1)	114 (53.0)
불 만 족	5 (16.1)	1 (4.0)	6 (12.5)	2 (11.8)	1 (7.1)	8 (29.6)	2 (8.0)	1 (3.6)	3 (10.0)	9 (17.6)	5 (7.6)	9 (13.2)	16 (13.7)	10 (10.2)	26 (12.1)
매 우 불 만 족	1 (3.2)		2 (4.2)			3 (11.1)			1 (3.3)	1 (2.0)		4 (5.9)	4 (3.4)	2 (2.0)	6 (2.8)
계	31 (100)	25 (100)	48 (100)	17 (100)	14 (100)	27 (100)	25 (100)	28 (100)	30 (100)	51 (100)	66 (100)	68 (100)	117 (100)	98 (100)	215 (100)

16) 향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의사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향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의사는 [그림 3-4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있다' 60.4%, '없다' 39.6%로 많은 학생들이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3] 향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의사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향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의사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법정대학(72.9%), 경상대학(62.7%), 해양과학대학(62.3%), 인문대학(62.1%), 공과대학(61.0%), 자연과학대학(60.3%), 사범대학(50.0%), 생명자원과학대학(47.9%), 의과대학(28.6%) 등의 순으로 향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향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의사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2학년(67.1%), 1학년(66.2%), 3학년(59.0%), 4학년(49.0%) 등의 순으로 수강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향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의사를 성별에 따라 보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남학생(58.9%)과 여학생(62.2%) 모두 높은 비율로 수강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3> 향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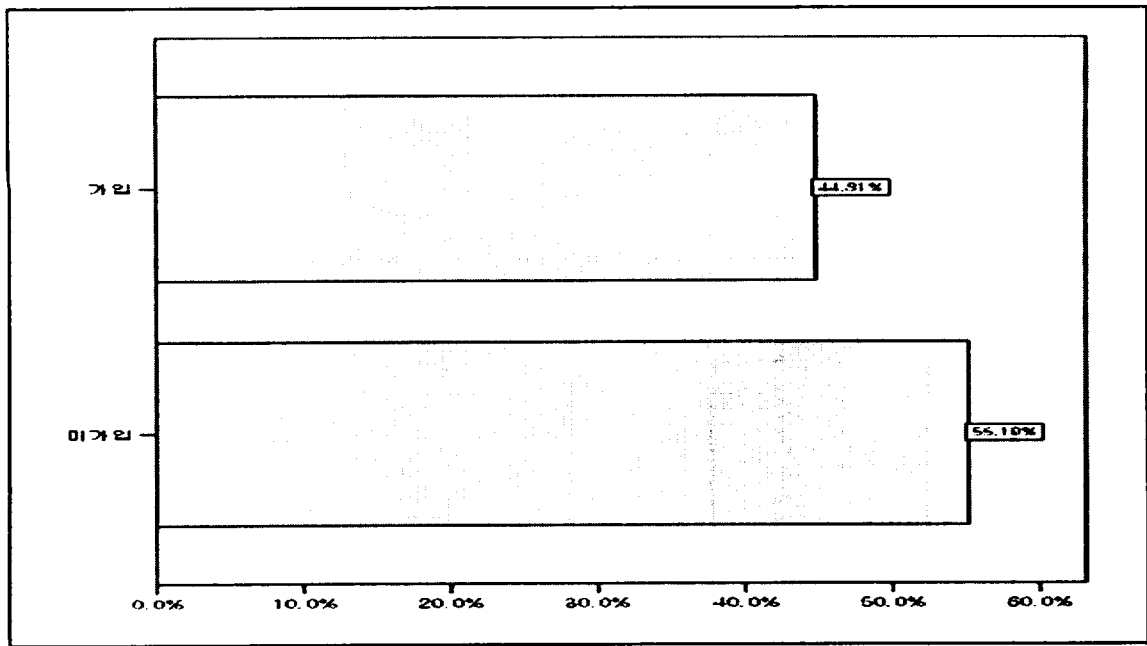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대학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없다	39 (37.9)	19 (27.1)	44 (37.3)	30 (50.0)	25 (52.1)	20 (37.7)	31 (39.7)	39 (39.0)	5 (71.4)	52 (33.8)	52 (32.9)	73 (41.0)	75 (51.0)	141 (41.1)	111 (37.8)	252 (39.6)
있다	64 (62.1)	51 (72.9)	74 (62.7)	30 (50.0)	23 (47.9)	33 (62.3)	47 (60.3)	61 (61.0)	2 (28.6)	102 (66.2)	106 (67.1)	105 (59.0)	72 (49.0)	202 (58.9)	183 (62.2)	385 (60.4)
계	103 (100)	70 (100)	118 (100)	60 (100)	48 (100)	53 (100)	78 (100)	100 (100)	7 (100)	154 (100)	158 (100)	178 (100)	147 (100)	343 (100)	294 (100)	637 (100)

17) 직업능력개발원의 취업종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여부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종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여부는 [그림 3-44]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가입이 44.8%, 미가입이 55.2%로 많은 학생들이 아직 취업종합정보시스템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종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여부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경상대학(54.0%), 인문대학(57.3%), 공과대학(37.5%), 자연과학대학(42.7%), 해양과학대학(50.0%), 생명자원과학대학(38.5%), 사범대학(21.3%), 법정대학(47.3%), 의과대학(14.3%)이 취업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4] 직업능력개발원의 취업종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여부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종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여부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3학년(53.7%), 4학년(50.3%), 2학년(46.0%), 1학년(27.7%) 순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종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여부를 성별에 따라 보면, 남학생(38.7%)이 여학생(52.0%) 보다 적게 회원가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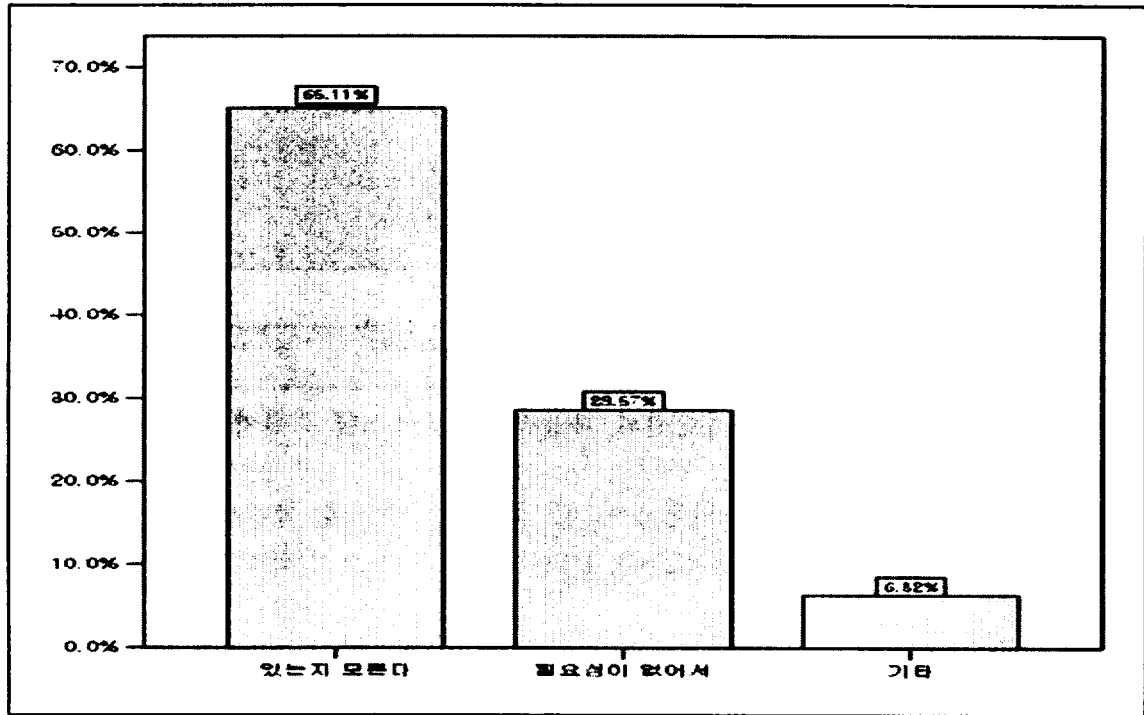
<표 3-44> 직업능력개발원의 취업종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여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가 입	59 (57.3)	35 (47.3)	68 (54.0)	13 (21.3)	20 (38.5)	28 (50.0)	35 (42.7)	39 (37.5)	1 (14.3)	44 (27.7)	75 (46.0)	101 (53.7)	78 (50.3)	139 (38.7)	159 (52.0)	298 (44.8)
미가입	44 (42.7)	39 (52.7)	58 (46.0)	48 (78.7)	32 (61.5)	28 (50.0)	47 (57.3)	65 (62.5)	6 (85.7)	115 (72.3)	88 (54.0)	87 (46.3)	77 (49.7)	220 (61.3)	147 (48.0)	367 (55.2)
계	103 (100)	74 (100)	126 (100)	61 (100)	52 (100)	56 (100)	82 (100)	104 (100)	7 (100)	159 (100)	163 (100)	188 (100)	155 (100)	359 (100)	306 (100)	665 (100)

18)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17번의 ② 응답자만)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림 3-4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있는지 모른다가 65.1%, 필요성이 없어서 2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45]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경상대학(53.4%), 공과대학(71.9%), 자연과학대학(66.0%), 해양과학대학(60.7%), 인문대학(79.1%), 생명자원과학대학(53.1%), 사범대학(66.0%), 법정대학(66.7%), 의과대학(66.7%)이 있는지 모른다고 답하여,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72.2%), 3학년(66.3%), 2학년(64.8%), 4학년(53.3%) 순으로 '있는지 모른다'고 답하였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성별에 따라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남학생(66.2%)과 여학생(63.4%)이 '있는지 모른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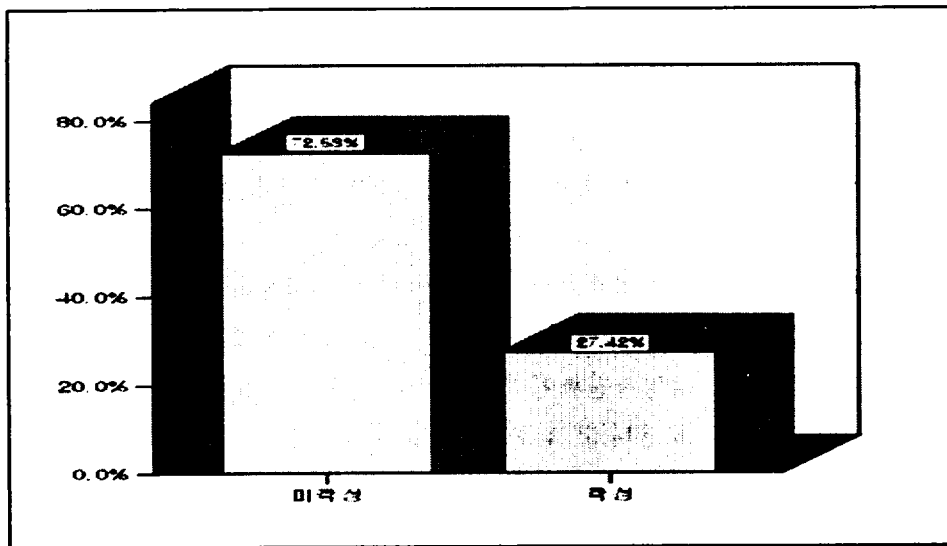
<표 3-45>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대학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있는지 모른다	34 (79.1)	26 (66.7)	31 (53.4)	31 (66.0)	17 (53.1)	17 (60.7)	31 (66.0)	46 (71.9)	4 (66.7)	83 (72.2)	57 (64.8)	57 (66.3)	40 (53.3)	145 (66.2)	92 (63.4)	237 (65.1)
필요성이 없어서	8 (18.6)	6 (15.4)	22 (37.9)	14 (29.8)	13 (40.6)	10 (35.7)	13 (27.7)	16 (25.0)	2 (33.3)	28 (24.3)	23 (26.1)	24 (27.9)	29 (38.7)	65 (29.7)	39 (26.9)	104 (28.6)
기타	1 (2.3)	7 (17.9)	5 (8.6)	2 (4.3)	2 (6.3)	1 (3.6)	3 (6.4)	2 (3.1)		4 (3.5)	8 (9.1)	5 (5.8)	6 (8.0)	9 (4.1)	14 (9.7)	23 (6.3)
계	43 (100)	39 (100)	58 (100)	47 (100)	32 (100)	28 (100)	47 (100)	64 (100)	6 (100)	115 (100)	88 (100)	86 (100)	75 (100)	219 (100)	145 (100)	364 (100)

19) 취업종합정보시스템의 이력서 작성 여부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종합정보시스템의 이력서 작성 여부는 [그림 3-46]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미작성' 72.6%, '작성' 27.4%로 많은 학생들이 이력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6] 취업종합정보시스템의 이력서 작성 여부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종합정보시스템의 이력서 작성 여부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사범대학(93.3%), 공과대학(75.8%), 경상대학(72.7%), 법정대학(71.7%), 생명자원과학대학(69.6%), 자연과학대학(69.4%), 해양과학대학(68.4%), 인문대학(67.6%), 의과대학(50.0%) 순으로 이력서를 미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종합정보시스템의 이력서 작성 여부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74.3%), 3학년(73.2%), 4학년(72.4%), 2학년(70.8%) 순으로 이력서를 미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종합정보시스템의 이력서 작성 여부를 성별에 따라 보면, 남학생(74.9%)과 여학생(70.2%)이 이력서를 미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6> 이력서 작성 여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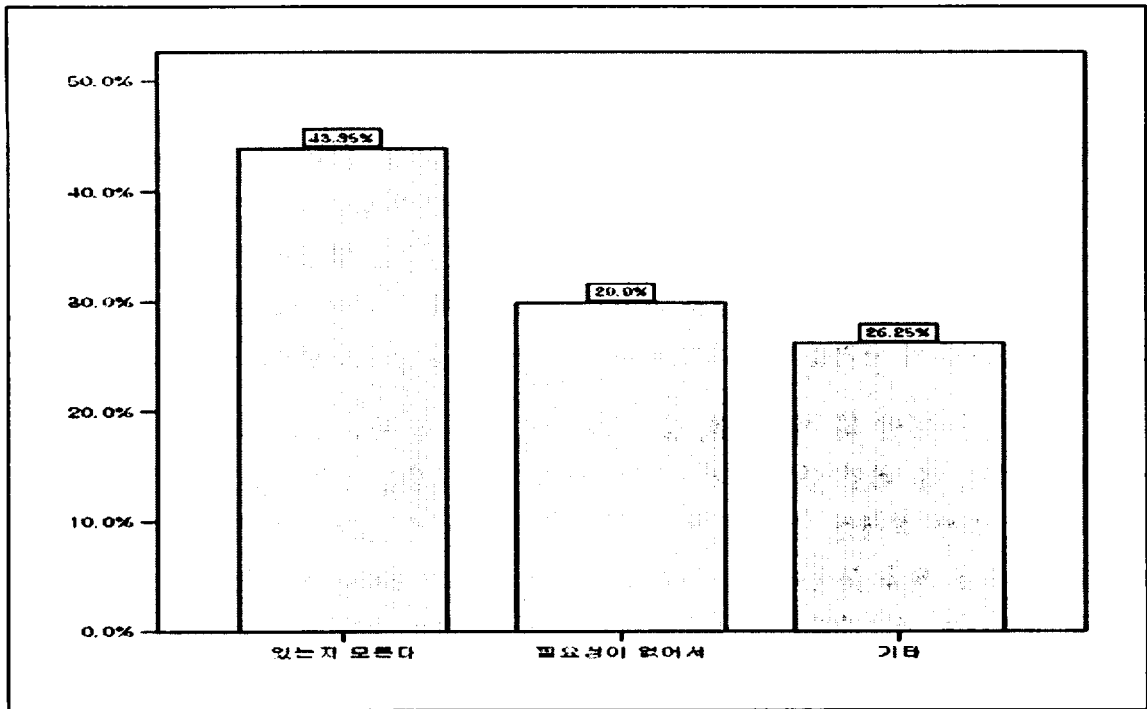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미 작성	50 (67.6)	38 (71.7)	64 (72.7)	28 (93.3)	16 (69.6)	26 (68.4)	34 (69.4)	50 (75.8)	1 (50.0)	55 (74.3)	75 (70.8)	93 (73.2)	84 (72.4)	161 (74.9)	146 (70.2)	307 (72.6)
작 성	24 (32.4)	15 (28.3)	24 (27.3)	2 (6.7)	7 (30.4)	12 (31.6)	15 (30.6)	16 (24.2)	1 (50.0)	19 (25.7)	31 (29.2)	34 (26.8)	32 (27.6)	54 (25.1)	62 (29.8)	116 (27.4)
계	74 (100)	53 (100)	88 (100)	30 (100)	23 (100)	38 (100)	49 (100)	66 (100)	2 (100)	74 (100)	106 (100)	127 (100)	116 (100)	215 (100)	208 (100)	423 (100)

20) 이력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19번의 ① 응답자만)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종합정보시스템의 이력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 [그림 3-4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있는지 모른다' 43.9%, '필요성이 없어서' 29.9% 가 꼽았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종합정보시스템의 이력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경상대학(35.4%), 공과대학(50.0%), 자연과학대학(51.4%), 해양과학대학(44.0%), 인문대학(37.5%), 생명자원과학대학(31.3%), 사범대학(57.1%), 법정대학(45.7%), 의과대학(100.0%)이 '있는지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종합정보시스템의 이력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학년에 따라 살펴보면, 1학년 63.2%, 3학년 45.1%가 '있는지 모른다'고 답한 반면, 2학년 36.5%, 4학년 40.5%가 '필요성이 없어서'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7] 취업종합정보시스템의 이력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취업종합정보시스템의 이력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성별에 따라 보면, 남학생(48.1%)과 여학생(39.2%)이 '있는지 모른다'로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7> 이력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대학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1	2	3	4	남	여		
있는지 모른다	18 (37.5)	16 (45.7)	23 (35.4)	16 (57.1)	5 (31.3)	11 (44.0)	18 (51.4)	24 (50.0)	1 (100)	36 (63.2)	26 (35.1)	41 (45.1)	29 (36.7)	76 (48.1)	56 (39.2)	132 (43.9)	
필요성이 없어서	14 (29.2)	9 (25.7)	18 (27.7)	11 (39.3)	7 (43.8)	5 (20.0)	9 (25.7)	17 (35.4)		11 (19.3)	27 (36.5)	20 (22.0)	32 (40.5)	55 (34.8)	35 (24.5)	90 (29.9)	
기타	16 (33.3)	10 (28.6)	24 (36.9)	1 (3.6)	4 (25.0)	9 (36.0)	8 (22.9)	7 (14.6)		10 (17.5)	21 (28.4)	30 (33.0)	18 (22.8)	27 (17.1)	52 (36.4)	79 (26.2)	
계	48 (100)	35 (100)	65 (100)	28 (100)	16 (100)	25 (100)	35 (100)	48 (100)	1 (100)	57 (100)	74 (100)	91 (100)	79 (100)	158 (100)	143 (100)	301 (100)	

IV. 요약 및 결론

제주대학교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일반적 사항, 심리적인 특성 및 가치, 대학생활, 대학의 이미지와 자긍심, 학과에 대한 만족도 및 교수 등과의 관계, 졸업 후 진로와 직업능력개발원의 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 및 분석하여 향후 재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대학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근거를 발견하기 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① 개인 및 가정생활, ② 대학선택 및 본교 관련사항, ③ 대학생활, ④ 개인생활·가치관, ⑤ 취업 관련사항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제주대학교의 전체 학생들 중 설문에 응답한 총 877부 중 결측치가 존재하는 설문지를 제외한 665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설문응답들은 빈도분석을 통한 백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별·성별 및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응답자 중 재학생들의 88.6%는 출신 고등학교의 소재지가 제주도였으며, 부산, 울산 및 경남 3.9%, 서울 2.1% 순으로 나타났다. 각 단대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의과대학은 100.0%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제주도였으며, 인문대학은 전체의 98.0%, 해양과학대학(96.4%), 공과대학(95.2%), 법정대학(94.6%)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육지 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생명자원과학대학으로 32.7%에 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상대학 19.8%, 사범대학 16.4%, 자연과학대학 13.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학생들의 가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진로 31.6%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인 측면 31%, 지나친 기대 8.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비부담은 재학생 전체의 73.5%가 부모였고, 본인(14.1%), 교내장학금(3.3%)과 교외장학금(2.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계 월평균 소득 수준은 201~250만원이 21.8%로 가장 많았고, 151~200만원(19.7%), 251~300만원(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선택 및 본교 관련사항 중 본교에서 가장 만족한 부분은 재학생 전체의 39.4%가 저렴한 등록금을 들었고 학과(부) 16.2%, 통학거리 및 교통 10.9%, 장학금 9.3%, 발전가능성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본교에서 가장 불만족한 부분은 취업가능성(20%), 미래 전망(16.39%), 통학거리 및 교통(10.4%), 발전가능성(10.2%) 학교시설

(9.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본교에 대한 긍지는 재학생 전체의 28.4%가 본교에 대해서 자랑스럽다고 했고, 9.5%가 자랑스럽지 못하다고 대답하여 본교에 대한 긍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및 편입 계획을 살펴보면, 응답 재학생 전체의 68.9%가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및 편입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고 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 및 편입 계획이 있는 학생은 9.3%에 불과 했다. 그러나 미정인 학생이 21.8%로 나타나 재수 및 편입 계획이 있는 학생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학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휴학계획은 응답 재학생 전체의 29.5%가 휴학 계획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없음은 50.5%, 아직 정하지 않은 미정은 20.0%로 나타났다.

셋째, 본교 재학생들의 대학생활 중 학과 만족도를 살펴보면, 응답 재학생 전체의 61.8%가 학과(학부, 전공)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32.6%, 불만족 5.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학과(학부,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복수전공 계획을 살펴보면, 응답 재학생 전체의 26.8%가 복수전공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 전공영역을 바꿀 계획은 8.1%만이 학과·전공영역을 바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활 중 교수에게 바라는 점은 응답 재학생의 35.5%가 진로(취업)지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박한 지식 전달(15.8%), 높은 학점(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업중인 교수에게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의 36.3%의 학생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만족은 12.0%로 나타났다. 불만족한 이유를 살펴보면, 학생수준 및 흥미의 고려 부족(35.5%), 강의 전달력 부족(23.4%), 강의준비 부족(12.1%) 등의 순으로 불만족 이유가 나타났다. 대학수업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살펴보면 전체의 45.6%가 학생수준 및 흥미의 고려 부족을 들었으며, 강의방법 다양화(18.1%), 학점(부여)의 공정성(14.4%), 철저한 강의준비(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하는 강의형태는 강의중심 강의(40.6%), 토의중심 강의(26.5%), 실험·실습중심강의(21.2%), 발표중심 강의(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인생활·가치관 중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살펴보면, 진로 및 취업준비(36.4%), 전공지식의 습득(19.0%), 해외여행·연수(16.1%), 인간관계(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학생들의 한 달 용돈은 15~30만원이 전체 51.13%로 나타났으며, 용돈출처는 부모 58.4%, 본인 33.2% 등이며, 용돈 주사용처를 살펴보면, 교통비·식비(55.6%), 오락·문화생활비(16.5%), 기본 생활용품비(9.3%), 취미생활(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목적은 용돈마련이 전체의 71.4%로 나타났으며, 폭넓은 사회경험 11.9% 등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흡연 여부는 '안한다'가 73.4%로 가장 많았고, 음주여부는 응답 재학생 중 92.8%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이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경험 여부는 77.6%가 이성교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대학에서의 교우관계는 원만하다가 73.4%, 원만하지 못하다가 4.1% 등으로 나타났으며,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로는 접촉기회의 부족(25.0%), 성격차이(25.0%), 가치관이 달라서(23.1%), 수준차이(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학생들의 취업 관련사항 중 졸업 후 진로에 관하여 살펴보면, 취업이 전체의 46.9%, 취업준비 22.9%, 대학원 진학 10.8%, 유학 7.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점은 적성이 전체의 33.8%, 수입 23.3%, 직업의 안정성 22.6% 등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준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외국어 실력으로 선택한 비율이 응답 재학생 전체의 43.3%, 자격증 23.6%, 전공 성적 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래 직업선택시 현재 전공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조금이 된다' 47.5%, '매우 도움이 된다' 31.9%, '그저 그럴 것이다' 16.2% 등의 순으로 나타나 현재 전공이 직업선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원 인지 여부는 '알고 있다' 72.2%로 나타났으며, 알고 있는 재학생 중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48.0%가 이용했다고 응답하였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상담 선호도를 살펴보면 '받고 싶다'가 전체의 54.1%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받고 싶은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응답 재학생 중 적성, 진로 관련이 6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상담 53.7%, 심리, 정신건강과 학업이 각각 7.8%를 점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의 심리검사를 받고 싶은 항목으로는 Holland 적성탐색검사가 6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MBTI 성격유형검사 51.7%, MMIP 다면적 인성검사 43.0%, 표준화 성격진담검사 27.8%, 대학생활 적응도 검사 13.7%, 문장완성검사 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신청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37.9%), 취업캠프(21.8%), 개인상담(19.4%), 동료상담(P.C.P) 리더 양성프로그램(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 여부는 '있다' 32.2%, '없다' 67.8%로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관련 교과목에 대한 만족

도는 만족이 55.5%, 불만족이 5.1%로 나타났다. 향후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의사를 살펴보면 '있다' 69.6%로 많은 학생들이 취업 관련 교과목 수강을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봉사 과목 수강 여부를 살펴보면, 응답 재학생 전체의 75.8%가 사회봉사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강한 경우는 24.2%에 불과하였다. 수강한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32.1%, '불만족' 14.9%로 나타나서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불만족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의사는 '있다' 60.4%로 많은 학생들이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취업종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여부는 가입이 44.8%, 미가입이 55.2%로 많은 학생들이 아직 취업종합정보시스템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응답 재학생의 65.1%가 '있는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취업종합정보시스템의 이력서 작성 여부는 '미작성'이라고 응답한 전체 72.6%에 달하며, 이력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 '있는지 모른다'로 응답한 비율이 43.9%에 달하며, '필요성이 없어서'라고 답한 비율에 전체 29.9%에 달하고 있다.

2007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재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정책 수립과 학생지도에 효과적인 대학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육지 소재 고교출신 신입생 및 편입생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국립대 법인화에 대비하여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치 등을 전국 고교와 편입하려는 타 대학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과 지도교수제 부활을 통한 진로상담 및 취업지도의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재학생의 관심 및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해서는 우선 전공교수의 역량을 발휘하고 재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전공 관련 취업 장려를 위하여 일명 학과내 전공별 취업동아리 지도교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많은 학생들이 진로 및 취업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으나 실제 가장 가까이에서 지도할 수 있는 교수로부터의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학생들의 진로 및 학업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조력할 수 있는 교수의 역할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수들에게 진로 및 취업상담 기법과 같은 상담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수의 상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직업능력개발원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상담 및 각종 검사(특히 취업 관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전문가들에 의한 다양한 자료 확보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개인문제 해결 및 취업에 도움이 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충원 및 각종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진로상담과 취업지도의 종합창구로써 직업능력개발원 내의 타 부서와 긴밀한 연계 속에서 직업능력개발원의 상담 및 심리검사를 확대하고 취업관련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과제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대학 당국에 감사 드리며, 연구 결과가 우리대학의 정책수립 및 학생지도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김두화(2004). '2004학년도 신입생 실태 조사', 학생생활연구, 제25집. 제주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 김민철, 김두화(2007), '2006학년도 제주대학교 재학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28집, 93-164.
- 김창일 외 6인(2001). '재학생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26집. 중앙대학교 제1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
- 소황옥, 전철은, 이호응(2004). '2004 신입생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학생생활 연구, 11. 1-36.
- 이민규, 장진아(2007), '2007학년도 아주대학교 재학생 실태 조사 보고서', 2007년 10월, 아주대학교 학생상담센터
- 이천수 (2005). '2005 신입생·재학생 실태조사 보고서', 대진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Abstract>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a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s Students in 2007

Kang Seok-kyu, Kim Doo-hwa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a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s students and is to offer basic information and desirable direction for the education program. We composed a questionnaire on students' current conditions, values, university life, getting employment and distributed all departments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The collected data is analyzed with frequency analysis and cross intersection analysis using the SPSS 12.0 version program.

The major findings of this survey are as follows: First, it needs to attract new students outside the jurisdiction of Jeju island. Most of new students entered in our university are within the jurisdiction of Jeju island. Therefore, the university should make effective plans for attracting new students outside the jurisdiction of Jeju island. Second, it needs to increase the opportunities to take career guidance and counselling. Main concern or interest of most students is getting a job or a course to advance. Therefore, to meet their needs, it needs to increase the opportunity to take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with major professor. Finally, it needs to strengthen the role of Career Center within the university. Most students have showed some interests in counseling and various tests. Therefore, Career Center needs to increase various test for students and develops the program to solve students' problem.